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1

1학기·전과정

천재
김수학

1 함께 소통하는 기쁨

(1) 문학으로 소통하기_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③	11 ②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②
17 ②							

01 '나무 그늘', '햇빛' 등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등의 의문형 문장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그늘이 된 사람',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이라는 상징적 시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그늘', '눈물' 등의 시어, '나는 ~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1연과 2연의 구조를 거의 유사하게 함으로써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다.

02 이 글의 화자는 '나'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나, 이 글의 청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늘', '눈물'과 같은 일상어에 '고난', '슬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그늘'과 '햇빛', '눈물'과 '기쁨', '사랑'을 대비하고 있다. ③ 1연의 1, 2행, 2연의 1, 2행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등은 이중 부정으로서, 이를 통해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03 2연에 걸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화자의 감정이 변화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그늘'과 '눈물'이 있는 사람, 즉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닌 사람이다. ③ 화자는 '그늘(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한 그루 나무의 그늘(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들을 대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이 글의 '나'로 등장하여 자신이 가진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그늘'과 '눈물'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이지만 화자는 여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04 ㉠은 시련이나 아픔을, ㉡은 슬픔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오답 해설 ① ㉠과 ㉡은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나, 이 글에서는 '햇빛'과 '기쁨', '사랑'의 가치를 부각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④ 1연 3행의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의미한다. ⑤ 2연 3행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을 의미한다.

05 이 글은 1연과 2연의 1, 2행에서 '나는 ~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글자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시적 허용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에서 종결 어미를 생략하여 여운을 남김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에서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가 작품 전면에 등장하지만 대상을 부르거나 이에 화답하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에 쓰인 표현법은 설의법이다. 설의법은 뻔한 내용을 물음으로써 하나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지, 다양한 답변을 유도하는 표현법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⑤ 설의법은 변화 주기의 일종으로, 화자의 의도나 정서를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 평서형으로 표현할 것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진술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며 새로운 인상을 받고, 진술 내용에 공감하게 된다.

07 1연에 쓰인 '나무 그늘'은 '어둡고 소외된 곳'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반짝이는 햇살'은 밝고 화려한 세상을 의미한다.

08 이 글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작가는 고통과 슬픔을 이미 겪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④ 독자적 맥락에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09 〈보기〉의 '나는 ~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A]에서 '나는 ~ 없는(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중 부정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진술은 일상적인 진술을 탈피해 참신함을 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A] 모두 '나는 ~는 사람을 사랑한다(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통사 구조가 반복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와 [A] 모두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A]로 바뀌면서 화자의 의도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이중 부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⑤ 화자는 '그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10 이 글에서 화자인 '나'는 작품에 드러나 있지만 청자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따라서 청자를 호명하여 그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참신한 인상을 주고 있다. ② 1연과 2연의 1, 2행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그늘(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그늘'과 '햇빛', '눈물'과 '기쁨', '사랑'과 같이 의미상으로 상반된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그늘', '눈물'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시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1 '나무 그늘'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거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화자가 공간적 배경인 '나무 그늘'에 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나'로, 작품의 전면에 드러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그늘(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다. ④ 화자는 인생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화자는 삶의 시련과 고통을 지닌 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12 ㉤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연민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② ㉡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 주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은 그늘에 의해 반짝이는 햇살로, 부러워하는 지위에 오른 것과는 무관하다. ④ ㉣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시련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3 화자는 '그늘'과 '눈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햇빛'과 '기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늘'과 '햇빛', '눈

물'과 '기쁨'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햇빛'이 맑을 수 있는 것은 '그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화자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다. ③ 화자는 '나무 그늘'에 앉아 햇살을 본 경험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화자는 '그늘이 없는 사람'과 '그늘이 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독자에게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14 '그늘'과 '눈물'은 서로 유사한 관계이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늘'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햇빛', '눈물'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기쁨', '행복'이다.

오답 해설 ② '그늘이 없는 사람'에서 '그늘'은 인생의 시련을, '한 그루 나무의 그늘'에서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상징한다. ③ '그늘'은 '햇살'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④ 구조상 1연 4행은 2연의 4~5행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위로하는 성숙한 내면을 지닌 사람이다.

15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이다.

오답 해설 ①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 보았'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예이다. ②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회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내용이며, '내가 겪은 아픔이' '고통을 겪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예이다. ③ "눈물'과 '그늘'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인데', 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시어의 가치에 새롭게 주목하게 한 점이 인상적이'라는 것은 정서적·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자신의 '삶에서 '그늘'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은 이 글을 읽고 얻은 깨달음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16 이 글은 참신한 발상으로 일상적인 언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ㄱ) 있으며, 또한 부정한 내용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ㄷ) 있다.

오답 해설 이 글은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심정을 이입하고(ㄴ) 있거나, 각 연의 통사 구조를 다양하게 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ㄹ) 있는 것은 아니다.

17 〈보기〉에서 작가는 '물속에 살아도 목마름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물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삶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결코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늘'을 통해 '햇빛'의 밝음을 강조하는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라는 시구와는 무관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고통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글에서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이 글에서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쁨도 고통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이 글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위로해 준다는 것으로 타인의 삶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19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③	10 ⑤	11 ②	12 ⑤	13 ④	14 ③		

▶ (나) 사건의 지평선_윤하

핵심 정리

갈래	가요 가사
성격	서정적, 비유적
주제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
해제	•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 천문학적인 개념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표현함.

▶ (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서정적, 낭만적, 연정적
주제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마음
해제	•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참신하게 표현함. •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

01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에는 설의법이 사용되어 화자의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늘이 없는 사람'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서로 대응되나, 화자가 이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저기'와 '여기'로 공간이 구분되고 있으나, 화자가 '하얀 빛'이 있는 공간을 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많이 그리워할' 것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나, 화자는 후회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론 님'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지, 원망하는 대상은 아니다.

02 (가)는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등에서, (나)는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에서, (다)는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에서 모두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는 원경('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와 근경('여긴')을 대비하고 있지만, (가)와 (다)에서는 원경과 근경을 대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다)에서는 '서리서리'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워할 거야'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가)와 (다)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지만, (다)에서는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03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나무 그늘'에서 햇빛을 바라본 일상적 상황을 통해, (나)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천체 물리학의 개념을 통해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② (가)는 '-(ㄴ)다'와 같은 주로 단정적 진술을, (나)는 '~할 거야'와 같은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다. ③ (가)는 명시적 청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늘', '사건의 지평선' 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04 (가)와 (다)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에서, (다)에서는 '굽이굽이 펴리라'에서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다)는 '굽이굽이', '서리서리'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가)는 (다)와 같은 정형시(시조)가 아닌 자유시이다. ④ (다)는 대상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05 '맘'은 '마음'의 준말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의 '그늘'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이다. ② ㉡에는 설의법을 통해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은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경을 전달한 것이다. ⑤ ㉤은 음성 상징어로, 이를 통해 시적 생동감이 형성된다.

06 작가가 아름다운 단어를 골랐다는 비평은 현실에 주목한 비평이 아니라 작가에 주목한 비평이다.

오답 해설 ① 연들의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은 작품의 구조를 살핀 비평이다. ② 독자들에 끼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은 독자에 주목한 비평이다. ③ 작가의 견해가 작품에 형상화된 것을 살피는 것은 작가에 주목한 비평이다. ④ 작품의 핵심어인 '눈물'이나 '그늘'과 같은 시어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작품에 주목한 비평이다.

07 임을 기다리는 것은 (다)의 화자이다. (나)의 화자는 이별을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삶에 고통이 늘 있고, 이를 공감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이별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역설적 발상을 하고 있다. ③ (다)의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가지고 싶어 한다. ④ (다)의 화자는 임이 없는 부정적 상황을 '동짓날 기나긴 밤'으로 표현하고 있다.

08 (가)에서 '반짝이는 햇살'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나)에서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너'와 함께했던 시간으로서 화자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무 그늘의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통찰 결과를 형상화한 것이다. ② (나)에서 화자가 '너'와 함께했던 '추억'을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너'와의 이별을 각오한 것은, 천체 물리학과 관련된 하늘의 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③ (다)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에 넣겠다는 것은 '동짓날 밤'이라는 시간을 '이불 아래'라는 공간으로 치환하는 상상력을 보여 준 것이다. ⑤ (나)에서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꺼내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다)에서도 '춘풍 이불 아래' 넣었던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론 님 오신 날'에 펴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 (나) 땅끝_나희덕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역설적
주제	절망 속에서 깨달은 삶의 희망
해제	• 과거 회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표현함.

09 (나)에서는 '그러나' 이후로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반어법이 쓰이지 않았으나, (나)에는 역설법이 쓰였다. ② (가)에는 화자의 경험이, (나)에는 화자의 과거 행위가 드러나 있다. ④ (가)에는 화자와 소재의 대립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에는 의문형 종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0 ㉤은 '땅끝'이라는 단어가 가진 중의성에 의해 끝이라 여겼던 곳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찾아간 곳이 '땅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 ㉡에는 독자에게 물음의 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설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은 '그넷줄'의 움직임을 '삐걱삐걱'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좌절감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11 ㉡는 '노을'을 찾으려는 화자의 노력이 시간이 지나 '어둠에 잡아먹'힘으로써 좌절된 상황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의 심리 상태와 무관하다. ③ 화자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대상은 ㉠도 ㉡도 아니다. ④ ㉠와 ㉡ 모두 사전적 의미 이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와 ㉡ 모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은 고통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는 깨달음이지, 타인의 삶을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답 해설 ① '노을'이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힌 것은 꿈과 이상이 좌절된 상태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 있는 것은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표현 한 것이다. ④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은 위태로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화자가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것이다.

13 (나)에서 '이상하기도 하지'라고 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나'는 작가가 설정한 화자로, 작가는 이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② (가)의 '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독자에게 그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③ (나)의 '나'는 자신이 그네를 뛰었던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⑤ (가)의 '그늘', '눈물', (나)의 '그늘'은 모두 화자가 시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형상화한 표현들이다.

14 (가)의 화자는 '그늘'과 '눈물'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햇빛과 사랑의 의미를 부각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치환하고 있다. 즉 화자는 삶에는 고통이 있고, 이를 토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0~021쪽

01 ⓐ: 햇빛, ⓑ: 눈물, ⓒ: 사랑 **02** (1) 그늘, (2) 눈물 **03** '그늘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나 아픔을 겪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다. **04** Ⓐ와 Ⓑ는 모두 문장 유형상 의문문이지만, Ⓑ와 달리 Ⓐ는 설의법이 쓰여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05** ㉠의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의미를, ㉡의 눈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0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화자가 '임'이 없이 지내는 부정적인 시간이다. 이 글에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1연의 '그늘'과 2연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04 Plus 〈보기〉 그리움_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회상적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해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함.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함.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2~0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7 화자가 '눈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시련과 아픔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09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픔과 시련을 겪지 않으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12 '눈물이 없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사람을, '눈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3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에서는 눈물이 있어야 기쁨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16 1연의 1~2행에 드러난 '그늘'은 현실의 시련과 아픔을, 1연의 3행에 드러난 '그늘'은 배려심, 이해심, 포용력을 가리키고 있다.

18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0 문학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인 문학 비평은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2)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6~029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③

01 협력의 원리는 양, 질, 관련성, 태도의 격률로서 모두 지켜야 한다. 이때 각 격률들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는 것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 것은 이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③ 대화의 원리는 크게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가 있다. ④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목적, 대화 상대방의 요구에 맞게 협력하는 것은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에 해당한다. ⑤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활동은 대화로, 대화의 원리란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02 세정은 ㉠에서 여행지를 이야기해 보자는 은수의 말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승호는 ㉡에서 단양, 담양, 양양 등 너무 많은 여행지를 말함으로써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03 민지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유진의 말에 대화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수학 시험 범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민지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을 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양의 격률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② 민지는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 격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④ 민지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태도의 격률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⑤ 유진과 민지는 의견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여야 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의 격률과는 무관하다.

04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줄이는 것은 찬동의 격률과 관련이 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은 늘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줄여야 겸양의 격률을 지킬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③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나와 상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줄일 수 있다. ④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면 겸양의 격률을 지킬 수 있다. ⑤ 이익과 부담의 상황에서 상대와 대화할 때는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이라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해야 한다.

05 지호는 자신을 칭찬하는 은영의 말에 자신보다 은영을 칭찬하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겸양의 격률과 관련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줄이는 것은 관용의 격률에 해당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늘리는 것은 찬동의 격률에 위배된다. ③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줄이는 것은 겸양의 격률에 해당하지만,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것은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④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는 것은 겸양의 격률에 해당하지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는 것은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⑤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은 늘리는 것은 요령의 격률에 위배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는 것은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06 ㉡의 수정 후 대화는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와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고 있는, 동의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② ㉠에서 공손성의 원리인 요령의 격률을 지키기 위해 '괜찮다면', '어떨까'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상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③ ㉡의 수정 전 대화는 명령형 문장으로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⑤ ㉠과 ㉡의 수정 후 대화는 모두 질문의 형태를 통해 대화의 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7 준영은 최빛나라의 적극적 체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지와 수정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영지와 수정과 달리 준영은 최빛나라의 반응을 살피며 체면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④ '눈치 없게', '최빛나라 때문에'와 같은 표현은 최빛나라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최빛나라의 체면을 건드림으로써 그의 공개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08 세정은 자신을 지적하는 은수의 말에 '미안해.'라고 할 뿐,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은수는 승호에게 '발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이야기만 하자.'라고 하며 양의 격률에 따라 이야기할 것을, 세정에게는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줘.'라고 하며 관련성의 격률에 따라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은수는 승호의 의견에 '떡볶이도 좋은 생각이야.'라고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 발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이야기만 하자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③ 은수는 대화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말하며 대화의 목적에 맞게 협력하여 대화하고 있다. ⑤ 승호는 자신을 칭찬하는 은수에게 '너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덕분이지.'라고 하며 겸양의 격률에 따라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함으로써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09 승호는 '분식'이라는 주제를 제안함으로써 김밥을 이야기한 세정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최대화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세정은 발표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찬동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승호는 세정이 제안한 의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세정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김밥은 어때?'라고 하며 제안하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세정과 승호는 모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고 있지 않으며,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가)의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말은 적을수록 좋다.'를 들 수 있다. ② (나)의 농부는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면 짐승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다)에서는 스스로 뽐내는 말인 '빛남'을 감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⑤ (가)와 (다)는 모두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침묵하는 말하기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11 ㉠의 농부는 짐승도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대에게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가려는 자세가 아닌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말하기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12 (가)~(다)는 모두 말을 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실수할 것을 우려하여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말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말을 삼가고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일지라도 감추어야 할 말은 삼가야 한다. ③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말을 삼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말을 삼가고 상대를 배려해야 하므로,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가 한번에 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3 담화 관습은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 습관으로, 집단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담화 관습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 ② 한 언어문화권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적 요인에 따라 담화 관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③ 담화 관습은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현재의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화 관습이 생기기도 한다. 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되,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14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소통 목적이나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른 매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소통 목적, 수용자 특성, 매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매체 자료를 만들 때는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매체 자료의 생산자는 수용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심사, 연령, 성별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상호 작용, 심미적 정서 표현, 정보 전달, 설득 등은 소통 목적으로서 매체 자료 생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0~033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⑤ 06 ⑤ 07 ③ 08 ③
09 ③ 10 ③ 11 ④

01 (가)뿐만 아니라 (나)도 주로 화자가 지켜야 할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지켜야 할 원리는 청자에게도 적용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협력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대화하는 사람의 말과 목적 또는 요구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나)는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대화 참여자 간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는 (가)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격률이다. ⑤ (가), (나)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02 A가 '오늘 시험 잘 봤어?'라는 물음에 B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묻는 말에 올바른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지,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

므로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② A의 질문에 대한 B의 답변은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③ A의 질문에 대해 B는 자신의 개인적 용무를 답하여 물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④ A의 제안에 대해 B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리 있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한 것이다. 이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03 ㉤은 상대와 일치점을 드러내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상대와 차이점을 드러내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② ㉡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③ ㉢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04 은수는 발표 준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축구 시합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비가 와서 축구 시합이 미뤄졌다는 발언에 시험을 앞두고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한 것은 ㉯를 위배한 것이다.

오답 해설 은수의 발언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05 ㉥를 '참, 엄마가 선물 보냈다고 하던데…….'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 소극적으로 예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령의 격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서 '아닙니다. 그분은 이사를 갔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② ㉡는 언니의 질문 맥락과 관련 없는 말로서 '○○ 고등학교야.'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③ ㉢는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미안, 많이 배고프지?'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④ ㉣는 상대방의 말을 끊은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말하는 것이 좋다.

06 ㉣에서 A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B에게 자신을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체면 위협 불이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상대에게 명령한 것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으로서 체면 위협 전략이다. ② ㉡은 적극적 예의 전략으로서 상대에 대한 칭찬과 함께 예의를 갖추어 지난 강요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③ ㉢은 소극적 예의 전략으로 상대에 대해 번거로움을 끼쳐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강요하지 않은 채 부탁을 하고 있다. ④ ㉣의 A는 오프 레코드 전략으로 학교에 가야 하는데 비가 와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바람을 암시적으로 전달하여 해석의 여부를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07 (다)에는 ○○ 회사에서 수평적 호칭 문화를 도입한 양상을 다루고 있으나 도입 이후 변화된 양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는 내용과 상대방의 말을 잘 가려서 들으라는 당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② (나)에는 엄마와 아들이 서로 친구처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④ (가)에는 상대방의 말을 가려서 들으라는 내용이, (다)에는 기업이 수평적 호칭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는 모두 말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소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⑤ (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기 때문에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음을, (다)는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조직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8 승희는 뚜렷한 근거 없이 다희가 지갑을 훔쳐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보기〉의 맥락에 의하면, 승희가 하는 말은, 음담패설(㉠)이나 과장된 말(㉡), 속이는 말(㉢)이나 원한이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없다.

09 (나)에서 엄마와 아들은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격의가 없이 반말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친밀감을 더 느끼게 한다.

오답 해설 ① 아들은 엄마가 앞머리를 만지려고 하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반말을 하는 것이 아들의 정서적 독립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② 엄마가 아들의 외모 등에 관해 사사로운 간섭을 하는 것은 굳이 친구처럼 여겨서만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이라 그러한 것이다. ④ 아들은 엄마에게는 반말을 하지만 친구의 부모에게는 경어를 쓰고 있다. ⑤ 엄마는 아들의 친구에게도 반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들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

10 (다)에 나타난 담화 관습은 '조직 문화의 민주화'(㉠), '수평적인 소통'(㉡), '위계 서열에 대한 거부감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욕 상실'(㉢), '업무 책임감 저하'(㉣),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1 (가)는 영상 매체이고 (다)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나)의 인쇄 매체보다 수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② (나)는 인쇄 매체로서 문자와 그림, 사진 등 시각적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며 일방향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③ (다)는 인터넷 매체로서 다양한 양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인쇄 매체와 달리 정보의 생산과 수용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⑤ (가), (다)는 모두 전파나 전기 통신을 이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나)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34쪽

01 (1) 동준이 "아무리 바빴어도 까먹지 않고 진작 완성했었어야지."라고 한 부분은 요령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2)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02 (가)~(다)에 드러난 과거의 담화 관습은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속담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이다.

03 ㉠: 시청각 이미지, ㉡: 빠른 편, ㉢: 신문(잡지/책)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3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겸양의 격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06 적극적 예의 전략은 예의를 갖추고 유대감을 나타내어 상대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는 전략이다. 자신의 요구를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체면 위협 전략에 해당한다.

08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담화 관습과 옛사람들의 담화 관습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삶을 비추는 언어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0~045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①	07 ①	08 ④
09 ④	10 ①	11 ⑤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③
17 ⑤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②	23 ④	24 ②
25 ⑤	26 ③	27 ③	28 ②	29 ③	30 ①		

01 '입'과 '잎'은 모두 [입](㉠)으로 발음된다. 국어의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 끝에 쓰인 'ㅋ, ㄲ'은 [ㄱ](㉡), 'ㅌ, ㅅ, ㅆ, ㅈ, ㅊ, ㅎ'은 [ㄷ](㉢), 'ㅍ'은 [ㅂ](㉣)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0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발생하는 까닭은 우리말 규칙에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는 발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발음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관련이 없다. ③ 표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관련이 없다. ④ 한글 맞춤법은 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⑤ 청자에게 정확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다.

03 '부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대신 연음 현상에 따라 [부어케]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⑤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절히 적용되었다.

04 '국내'는 'ㄴ' 앞에 놓인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궁내](㉠)로 발음된다. 한편 '실내'는 'ㄹ' 뒤에 놓인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실래](㉡)로 발음된다.

05 '인력'은 [일력]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척력'은 [척녁 → 청녁]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③ '입마개'는 [임마개]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④ '심리학'은 [심니학]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⑤ '삼림학'은 [삼님학]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06 '달님'(㉠)은 'ㄴ'이 앞(㉡) 음운인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조음 방법(㉣)이 바뀐 사례이다.

07 '끝이'와 '미닫이'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끄치]와 [미:다지]로 발음되고, '끝을'과 '닫아야'는 연음 현상으로 [끄틀]과 [다다야]로 발음된다.

08 '삭힌다[사킨다]'는 'ㄱ'이 'ㅎ'을 만나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①~③, ⑤ '굳히며[구치며]', '갇힌[가친]', '닫힌[다친]', '가을걷이[가을거지]'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9 '살고[살:고]'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삼고[삼:꼬]'는 용언 어간 'ㅁ' 뒤에서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국밥[국빱]', '발다[발따]', '입술[입쑬]'은 받침 'ㄱ, ㄷ, ㅂ' 뒤에 각각 'ㅂ, ㄷ, ㅅ'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② '신다[신:따]', '감더라[감:떠라]'는 용언 어간 'ㄴ(ㅉ), ㅁ(ㅉ)' 뒤에서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칙에 따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갈등[갈뜽], 일시[일씨]'는 한자어 받침 'ㄹ' 뒤에 'ㄷ, ㅅ'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갈 데[갈떼], 모일 곳[모일꼳]'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까닭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ㄷ, ㄱ'이 왔기 때문이다.

10 '독서광(讀書狂)'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독써광]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먹히다'는 [머키다]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에 의한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③ '솜이불'은 [솜:니불]로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④ '좋으면'은 [조:으면]으로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⑤ '한여름'은 [한녀름]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11 '인지'의 'ㄴ'은 어간 받침이 아니므로 뒤에 오는 'ㅈ'이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꺼안고[꺼안꼬]'는 어간 받침 'ㄴ' 뒤에 어미 'ㄱ'이 와서 된소리가 된 것이다. ② '그럴 수[그럴쑤]'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가 된 것이다. ③ '더듬지[더듬찌]'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어미 'ㅈ'이 와서 된소리가 된 것이다. ④ '발생[발쌩]'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가 된 것이다.

12 '입구[입꾸]'는 'ㄱ, ㄷ, ㅂ' 받침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독서[독써]'이다.

오답 해설 ① '품고[품:꼬]'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준비할 것[준비할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④ '물질[물찔]'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ㅈ'이 와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⑤ '담지[담:찌]'는 어간 받침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ㅈ'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13 '맏형'은 [마켱]이 아니라 [마텽]으로 발음된다.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집행'은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지팽]으로 발음된다. ② '밝히다'는 'ㄺ'의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발키다]로 발음된다. ③ '이웃한테'는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고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이우탄테]로 발음된다. ⑤ '좋지'는 'ㅎ'과 'ㅈ'이 만나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조:치]로 발음된다.

14 '않은'은 'ㅎ' 탈락이 일어나 [아는]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⑤ '읽는[잉는]', '맑고[말꼬]', '외곬[외골]', '훑다[훌따]'는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15 ㉠은 뒤의 자음이 탈락해 앞의 자음만 발음되는 것을 의미한다. '값[갑], 넋[넉]'은 모두 앞의 자음만 발음된다.

오답 해설 '닭[닥]'은 뒤의 자음이 발음된다. '삶[삼]' 역시 뒤의 자음이 발음된다.

16 '낯'의 활용 정보는 '낯이[나치], 낯만[난만]'이다. '낯이[나치]'를 통해 연음이, '낯만[낟만 → 난만]'을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개음화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밭'은 활용 정보에 있는 '밭이[바치]'를 통해 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낯'의 발음이 [낟]인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기 때문이

다. ② '흙'의 발음이 [흑]인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④ '밭을[바틀]', '흙이[흘기]'를 통해 연음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낯만[낟만 → 난만]', '밭만[받만 → 반만]', '흙만[흑만 → 흥만]'을 통해 비음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7 '닿아'와 '좋음'의 '-아'와 '-음'은 어미로, 이를 통해 조사와 결합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활 + 살 → 화살', '바늘 + -질 → 바느질'을 통해 'ㄹ' 탈락은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② '물- + -고 → 물고'로 볼 때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물- + -는 → 무는'으로 볼 때 'ㄹ' 탈락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물- + -니 → 무니[무니]'는 'ㄹ'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만, '닿으- + -면 → 닿으면[다으면]'은 'ㅎ'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18 '잠궈'는 어간 '잠그-'에 어미 '-아'가 결합할 때 'ㅡ'가 탈락하여 '잠가'가 될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잠-'은 어간이 아니다. ② 어미 '-아'가 결합한 것이다. ③ 'ㅏ'가 탈락한 것은 아니다. ⑤ '잠구어'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다.

19 〈보기〉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난다. '아파'는 '아프- + -아'로 'ㅡ'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가- + -아 → 가'로 'ㅏ' 탈락이 일어난다. ③ '만나- + -아'로 'ㅏ' 탈락이 일어난다. ④ '건너- + -어'로 'ㅓ' 탈락이 일어난다. ⑤ '서- + -어라'로 'ㅓ' 탈락이 일어난다.

20 '크- + -어서 → 커서'는 모음(㉣) 'ㅓ'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자음(㉢)이 축약(㉠)된 것이다. ② '좋아요'는 'ㅎ' 탈락이 일어난 것이므로 자음(㉢)이 탈락(㉡)한 것이다. ③ '울- + -는 → 우는'은 'ㄹ' 탈락이 일어난 것이므로 자음(㉢)이 탈락(㉡)한 것이다. ⑤ '먹- + -었다'에서는 교체의 일종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만 일어날 뿐,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21 ㉣과 ㉤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모두 한자어로, ㉣은 'ㄴ' 첨가가 일어나나, ㉤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이나 뒤의 말이 한자어일 경우에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합성어, ㉡은 파생어로, 'ㄴ'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는 경우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과 ㉢을 통해 앞말은 자음, 뒷말은 모음일 때 'ㄴ' 첨가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모음 'ㅣ', ㉣은 반모음 'ㅣ'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ㄴ' 첨가가 일어났으나, ㉤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통해 'ㄴ' 첨가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2 '물약'은 [물냑 → 물략]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감기약[감:기약]'으로 발음된다. ③ '절약[저락]'으로 발음된다. ④ '일약[이락]'으로 발음된다. ⑤ '밀약[미락]'으로 발음된다.

23 '옥수수[옥쑤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세 번째 음절의 '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난로[날: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여덟[여덜]'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③ '물받이[물바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가 일어난다.

24 '물엿[물녇 → 물렫]'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⑤)과 'ㄴ' 첨가, 유음화가 일어난다. '밯네[박네 → 방네]'는 자음군 단순화(④)와 비음화(①)가 일어난다. '겉모양[겉모양 → 건모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⑤)과 비음화(①)가 일어난다. '넓적하다[넙저카다 → 넙쩌카다]'는 자음군 단순화(④)와 된소리되기(③),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5 '땀받이[땀바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는 상황(㉡)에서, 앞의 음운인 'ㄷ'이 'ㅈ'으로 변한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마천루[마철루]'는 앞말의 끝소리 'ㄴ'이 뒷말의 첫소리 'ㄹ'과 만나(㉠) 앞의 음운이 'ㄹ'로 변한 경우(ⓐ)이다. ② '목덜미[목떨미]'는 앞말의 끝소리 'ㄱ'이 뒷말의 첫소리 'ㄷ'과 만나(㉠) 뒤의 음운이 'ㄸ'으로 변한 경우(ⓑ)이다. ③ '박람회[방남회]'는 앞말의 끝소리 'ㄱ'이 뒷말의 첫소리 'ㄹ'과 만나(㉠) 두 음운이 각각 'ㅇ', 'ㄴ'으로 변한 경우(ⓒ)이다. ④ '쇠붙이[쇠부치]'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와 만나(㉡) 앞의 음운이 'ㅊ'으로 변한 경우(ⓐ)이다.

26 '불여우'가 [불녀우]가 되는 것(㉠)은 'ㄴ' 첨가이므로 ⓑ에 해당하고, [불녀우]가 [불려우]가 되는 것(㉡)은 유음화이므로 ⓐ에 해당한다.

27 '내복약'은 'ㄴ' 첨가와 비음화에 의해 [내:봉냑]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사례는 '영업용[영업뇽 → 영엄뇽]'이다.

오답 해설 ① '꽃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해 [꼳망울 → 꼰망울]로 발음된다. ② '눈요기'는 'ㄴ' 첨가에 의해 [눈뇨기]로 발음된다. ④ '튓마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해 [튇:마루 → 튄:마루]로 발음된다. ⑤ '휘발유'는 'ㄴ' 첨가와 유음화에 의해 [휘발뉴 → 휘발류]로 발음된다.

28 '옳은[오른]'과 '싫어[시러]'는 모두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된 경우로서 이때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끊는[끈는]'과 '않는[안는]'은 모두 받침 'ㄶ'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로서 이때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③ '놓고[노코]'와 '국화[구콰]'는 'ㅎ'과 'ㄱ'이 순서에 상관없이 [ㅋ]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준다. ④ '놓는[논는 → 논는]', '쌓는[싼는 → 싼는]'은 받침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로서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것을 보여 준다. ⑤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은 받침 'ㅂ, ㄱ'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는 [ㅍ, ㅋ]으로 발음하는 것을 보여 준다.

29 '옳소'는 [올쏘]로 발음되므로 ㉢의 예이나, '걸핥기'는 [거탈끼]로 ㉢의 예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닳지[달치]', '않다고[안타고]'는 ㉠의 예이다. ② '숱한[수탄]', '젖히고[저치고]'는 ㉡의 예이다. ④ '놓네[논네]', '쌓는다[싼는다]'는 ㉣의 예이다. ⑤ '좋아[조:아]', '싫은데[시른데]'는 ㉤의 예이다.

30 '흙이'는 연음되어 [흘기]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⑤ 모두 적절한 발음과 음운 변동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46~051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①	05 ③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①	14 ⑤	15 ③	16 ②
17 ④	18 ①	19 ①	20 ④	21 ①	22 ①		

01 '덮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덥개]로, 된소리되기에 의해 [덥깨]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국밥'은 된소리되기에 의해 [국빱]으로 발음된다. ② '닫는'은 비음화에 의해 [단는]으로 발음된다. ④ '공권력'은 된소리되기와 비음화에 의해 [공꿘녁]으로 발음된다. ⑤ '붙이다'는 구개음화에 의해 [부치다]로 발음한다.

02 '색연필'은 첨가의 일종인 'ㄴ' 첨가에 의해 [색년필]로 바뀌므로 음운 수의 변화가 1개 늘어나므로 ㉮로 이동하고, 다시 교체의 일종인 비음화에 의해 [생년필]로 바뀌므로 ㉯로 이동한다.

03 '붙어야'는 앞 음절의 받침에 'ㅌ'이 오지만 뒤에 오는 모음이 'ㅓ'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붙이다'는 자음 'ㅌ'이 모음 'ㅣ'와 만나 [부치다]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붙여라'는 '붙-+-이-+-어라'로 자음 'ㅌ'이 모음 'ㅣ'와 만나 [부처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붙임성'은 자음 'ㅌ'이 모음 'ㅣ'와 만나 [부침썽]으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붙임머리'는 자음 'ㅌ'이 모음 'ㅣ'와 만나 [부침머리]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04 〈보기〉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교체의 일종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보기〉는 모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③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④ '껴안고'와 '담다'는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⑤ '갈등', '실수'는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난다.

05 '작년'은 앞의 음운 'ㄱ'이 뒤의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아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어 [장년]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이다. '칼날'은 뒤의 음운 'ㄴ'이 앞의 음운 'ㄹ'의 영향을 받아 'ㄹ' 뒤에서 'ㄹ'로 바뀌어 [칼랄]로 소리 나므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겹눈[겸눈]'은 ㉠의 예이나, '맨입[맨닙]'은 'ㄴ' 첨가의 예이다. ② '실내[실래]'는 ㉡의 예이고, '국물[궁물]'은 ㉠의 예이다. ④ '백마[뱅마]'는 ㉠의 예이나, '잡히다[자피다]'는 거센소리되기의 예이다. ⑤ '끓이다'는 'ㅎ' 탈락의 예이고, '물놀이[물로리]'는 ㉡의 예이다.

06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로, 그 후에 첨가된 'ㄴ'에 의해 앞말의 받침 'ㄱ'이 'ㅇ'으로 비음화되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받는다'는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 'ㄷ'이 'ㄴ'으로 비음화된다. ② '않더라'는 겹받침의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ㄷ'과 합쳐져서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된다. ③ '한여름'은 접사 '한-'과 명사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에서, 앞말이 받침이 있고, 뒷말이 반모음 'ㅣ' 때, 'ㄴ'이 첨가된다. ④ '솜이불'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받침이 있고, 뒷말이 'ㅣ' 모음인 경우이므로 'ㄴ'이 첨가된다.

07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인 [ㅈ, ㅊ]이 되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 굳이[구지], 같이[가치]에서 보듯이 'ㄷ'이나 'ㅌ'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 '밭이[바치]'와 '밭에[바테]'에서 보듯이 'ㅌ'이 특정한 모음인 'ㅣ'와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 '끝인사[끄딘사]'에서 보듯이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 '헛딛다[헏딛다]'에서 보듯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 [딛]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8 '깻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일어나 [깬닙]이 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깬님]으로 발음한다. ②의 '베갯잇'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일어나 [베갠닏]이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베갠닏]으로 발음한다.

오답 해설 ① '밥상'은 [밥쌍]으로 발음되며, 이는 된소리되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기'는 [국끼]로 발음되며, 이는 된소리되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눈요기'는 [눈뇨기]로 발음되며, 이는 'ㄴ' 첨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식용유'는 [시굥뉴]로 발음된다.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적용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숨겨(㉤)'는 '안기다'와 같이 접미사 '-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뒤 음절의 초성이 교체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입술[입쑬]'과 같이 뒷말의 초성인 'ㅂ'이 [ㅃ]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② ㉡은 받침의 'ㅎ'이 탈락하는 현상과 받침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 뒷말의 초성인 'ㄷ'이 [ㄸ]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③ ㉢은 '부엌만[부억만 → 부엉만]'과 같이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④ ㉣은 '공권력[공꿘녁]'과 같이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0 '닭도'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탈락,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가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

오답 해설 ② '맨입[맨닙]'에는 'ㄴ'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났다. ③ '발야구[발랴구]'에는 'ㄴ' 첨가와 유음화에 의한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났다. ④ '늙지'를 [늑찌]로 발음하는 데에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줄어들었다. ⑤ '흙일'을 [흥닐]로 발음하는 데에는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에 의한 교체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11 '국민[궁민]'에서 'ㄱ'이 'ㅇ'으로 변하였는데, 'ㄱ'은 파열음이고 'ㅇ'은 비음이므로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물난리[물랄리]'에서 'ㄴ'이 'ㄹ'로 변하였는데, 'ㄴ'은 비음이고 'ㄹ'은 유음이므로 조음 방법이 변하였다.

오답 해설 ① '국민[궁민]'에서 파열음 'ㄱ'이 'ㅇ'으로 바뀐 것은 뒤 자음 '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바뀐 음운 'ㅇ'은 유음이 아니라 비음이다. ② '물난리[물랄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굳이[구지]'에는 잇몸소리 'ㄷ'이 'ㅣ' 모음 앞에서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⑤ '굳이[구지]'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였는데 'ㄷ'은 잇몸소리, 파열음이고 'ㅈ'은 센입천장소리, 파찰음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물난리[물랄리]'에서는 'ㄴ'이 'ㄹ'로 변하였는데 둘 다 잇몸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12 '꽃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다. '꽃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눈]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눈]이 된다.

오답 해설 ① '끝까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끋까지]가 되지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② '부엌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따라 [부억또]가 된다. ③ '눈약'이 [눈냑]이 되는 것은 'ㄴ' 첨가 현상 때문이다. ⑤ '덮밥'이 [덥빱]이 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때문이다.

13 '삶고서'가 [삼:꼬서]로 발음될 때, 어간의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고(자음군 단순화), 'ㄱ'이 앞의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된다(된소리되기).

오답 해설 ② '훑고서'가 [훌꼬서]로 발음될 때, 어간의 겹받침 중 'ㅌ'이 탈락되고(자음군 단순화), 'ㄱ'이 [ㅇ]으로 교체된다(된소리되기). ③ '예삿일'이 [예:산닐]로 발음될 때, 'ㄴ'이 첨가되며, 둘째 음절의 받침인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교체된다(비음화). ④ '알약을'이 [알라글]로 발음될 때, 'ㄴ'이 첨가되고, 첨가된 'ㄴ'이 첫째 음절의 받침인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유음화). ⑤ '앓았다'가 [아랃따]로 발음될 때, 어간의 겹받침 중 'ㅎ'이 탈락하며(자음군 단순화), 둘째 음절의 받침인 'ㅆ'이 [ㄷ]으로 교체되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된 'ㄷ'의 영향으로, 셋째 음절의 'ㄷ'이 [ㄸ]으로 교체된다(된소리되기).

14 '훑이'는 용언의 어간 '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결합된 경우로, 'ㅌ'이 'ㅊ'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훌치]로 발음된다.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얹는[언는]'은 겹받침 'ㄵ' 중 뒤의 자음인 'ㅈ'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다. ② '끓고[끌코]'는 겹받침 중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③ '끓는[끌른]'은 첫음절의 겹받침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뒤 음절의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다. ④ '훑어[훌터]'는 뒤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앞 음절의 받침인 'ㅌ'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15 '공릉[공능]'을 발음할 때는 'ㄹ'이 'ㄴ'으로 바뀐다. 'ㄹ'과 'ㄴ'은 모두 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에 변화가 없지만, 조음 방법은 유음 'ㄹ'에서 비음 'ㄴ'으로 한 번 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굳이[구지]'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ㄷ'이 'ㅈ'으로 바뀐 것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한 번씩 변한 것이다. ② '꽃눈[꼰눈]'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ㅊ' → 'ㄷ')과 비음화('ㄷ' → 'ㄴ')이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 것이다. ④ '설날[설: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유음화로 조음 방법만 변한 것이다. ⑤ '앞날[암날]'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로 조음 방법만 변하였고,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16 ㉣은 용언의 어간 말음 'ㅎ' 뒤에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축약을 가리키고 있다. 어간 '놓-'와 어미 '-기'가 결합하여,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어미의 'ㄱ'이 거센소리로 축약되었다.

오답 해설 ① '한몫[한목]'을 발음할 때, 종성에 있는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이 일어난다. ③ '끓지[끌치]'를 발음할 때,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뒤에 오는 어미의 'ㅈ'이 'ㅊ'으로 축약되므로 ㉣이 일어난다. ④ '값만[감만]'을 발음할 때, 종성의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이 일어난다.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ㅈ'과 'ㅎ'이 'ㅊ'으로 축약되므로 ㉣이 일어난다.

17 '건너다'의 어간 '건너-'에 모음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건너서'가 된 것은 어간과 어미의 동일한 음운 'ㅓ'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울다'의 어간 '울-'에 어미 '-ㄴ-'이 결합할 때, 어간 받침 'ㄹ'이 탈락했다. ② '쓰다'의 어간 '쓰-'에 모음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ㅡ' 모음이 탈락했다. ③ '개다'의 어간 '개-'에 모음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개어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탈락한 음운이 없다. ⑤ '좋다'의 어간 '좋-'에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ㅎ'이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아 [조:아]로 발음한다. 'ㅎ'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18 〈보기〉에 따르면 'ㅡ'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밭은'의 '-은'은 어미이므로 연음되어 [바튼]과 같이 발음된다. '소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낱'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으로'가 붙으면 연음되어 [나트로]로 발음된다. 그러나 '알'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낱알'은 [나달]로 발음된다. ③ '앞어금니'의 '어금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나 [아버금니]로 발음된다. ④ '겉웃음'의 '웃-'은 실질 형태소, '-음'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연음이 일어나 [거두슴]으로 발음된다. ⑤ '밭'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을'이 오면 [바틀]과 같이 연음되어 발음한다.

19 '산란기[살:란기]'는 뒤에 오는 'ㄹ'에 의해 앞에 오는 'ㄴ'에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의 예이다. 한편 파생어인 '표현력'은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나 [표현녁]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② '줄넘기[줄럼끼]'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파생어인 '입원료[이뷘뇨]'는 ㉡의 예이다. ③ '결단력[결딴녁], 생산량[생산냥]'은 모두 ㉡의 예이다. ④ '의견란'은 [의:견난]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이고, '향신료'는 [향신뇨]로 소리 나므로 역시 ㉡의 예이다. ⑤ '대관령[대:괄령]'은 ㉠의 예이고, '물난리[물랄리]'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확인된다.

20 '안겨라'는 '안- + -기- + -어라'로 분석되는데 이때 '-기-'는 피동 접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미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푼다'의 '-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ㄷ'은 평서형 종결 어미의 일부이므로 어미끼리 결합하는 경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도'는 조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③ '잠가'의 'ㅁ'과 'ㄱ'은 어간 '잠그-'의 일부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큰지'의 'ㄴ'과 'ㅈ'은 어미 '-ㄴ지'의 일부이므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21 '쌓던[싸턴]'은 축약의 일종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잃고[일코]'는 어간 말 'ㅎ'이 어미의 첫소리 'ㄱ'과 합쳐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③ '끓이다[끄리다]'는 'ㅎ'이 탈락한 뒤 'ㄹ'이 연음된 것이다. ④ '칡하고[치카고]', '하찮은[하차는]'은 모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⑤ '먹히다[머키다]'와 '끊고서[끈코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 한 번만 일어난 것이다.

22 '낮 한때[나탄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어근 '맺-'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맺힌[매친]'은 ㉠의 예이다. ③ '닭한테[다칸테]'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뒤 거센소리가 일어난 것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④ '꽂하고[고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어근 '넓-'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넓히는'은 [널피는]으로 발음되므로 ㉠의 예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52~053쪽

01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 비음화 **02** ㉠의 발음: [저켜], ㉡의 발음: [삼:], ㉢의 발음: [마:나], ㉠의 음운 변동 현상: 거센소리되기, ㉡의 음운 변동 현상: 자음군 단순화, ㉢의 음운 변동 현상: 'ㅎ' 탈락 **03** (1) 갈 데[갈떼] (2) 국밥[국빱] **04** ⓐ: 색년필, ⓑ: '색연필'의 둘째 음절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고, 이후 '색'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ㅇ]이 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05** '겉'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걷]으로 발음되고, [걷]은 비음화로 인해 [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06**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와 결합했을 때 일어난다. '발에'는 'ㅌ'과 'ㅔ'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01 '홑이불'이 [홑이불]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고, 이후 'ㄴ' 첨가가 되어 [홑니불]이 된다(ⓑ). 이때 'ㄷ'은 'ㄴ'과 만나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혼니불]과 같이 발음된다.

02 '적혀'는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저켜]로 발음된다. '삶'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삼:]으로 발음된다. '많아'는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 'ㅎ'이 탈락하여 [마:나]로 발음된다.

03 '갈 데[갈떼]'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 것이고, '국밥'은 'ㄱ' 받침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된 것이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54~0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유음화는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09 구개음화 현상은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ㄷ, ㅌ'이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받아쓰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3 '맏형'이 [마텽]으로 발음되는 것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때문이다.

14 '떡볶이'는 받침 'ㄱ' 뒤의 'ㅂ'이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해 [떡뽁이]가 되며, 받침 뒤에 모음이 결합하는 경우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현상에 의해 [떡뽀끼]로 발음된다. 또한, 'ㄲ'은 겹받침이 아닌 쌍받침이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좋지'가 [조:치]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의 축약인 거센소리되기 현상, '좋아'가 [조:아]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의 탈락인 'ㅎ' 탈락에 해당한다.

19 '고파서'는 '고프- + -아서'에서 'ㅡ'가 탈락한 것이다.

(2) 다원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국어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8~061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③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④							

01 한글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 공동체와 소통하며 살고 있는 시대에 가급적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②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 공동체와 소통하며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 ③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언어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⑤ 언어 공동체의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02 다문화 언어 공동체는 외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글 위주의 언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언어 공동체를 말한다. 국내 여행 외국인은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문화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⑤ 국제결혼 가족, 북한 이탈 주민, 해외 주재원 가족,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모두 다문화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03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단의 성격과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명 배우인, 내 친구의 소개 글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내 친구는 생김새나 언어가 다르지만 연기를 사랑함을 근거로 듦. → 언어를 통한 차별적인 표현은 삼가야 함을 주장함.

오답 해설 1문단에서 쟁점을 정리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3문단에서 글쓴이가 대안을 제기한 것도 아니다.

04 글쓴이인 '나'는 자신의 친구가 ○○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의외'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가 다른 타자가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외국인을 동시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누군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에게는 쓰지 않을 표현을 그에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여기고 있다. ② 이름이 외국의 것이고 그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를 한국 사회에서 '의외'의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③ 글쓴이에 따르면 아누팜에게 '의외로 ○○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고 하였을 때 무례하다고 여긴 것처럼 한국인 배우에게 의외로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면 같은 무례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④ 글쓴이에 따르면 아누팜이 연기를 잘하는 것은 '○○예술종합학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연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오랜 시간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05 글쓴이는 자기의 친구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의외로'라고 하면서 한국인에게 쓰지 않을 표현을 쓰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가 연기를 잘

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인보다 연기를 못 한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06 '영수'는 '투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투이'는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해도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하는 등 영수와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② '투이'는 '영수'에게 '답답하지?'라고 하며 자신의 서툰 한국말로 인해 '영수'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고 있다. ③ '영수'는 '투이'의 한국말이 서툰 이유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인 것을 알고 이를 배려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⑤ '투이'와 '영수'는 한국어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투이'는 자신의 한국어가 서툴러서 '영수'가 답답함을 느낄 것을 걱정하고, '영수'는 그런 '투이'의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인다.

07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겪게 되는 예절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한국에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이 겪게 되는 언어 구사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나'는 윗사람과 대화할 때는 팔짱을 끼면 안 된다는 윗사람에 대한 예절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다. ② (다)의 '나'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을 익히지 못하였다. ③ (나)의 '나'가 존중의 의미로 한 행동이 한국 사회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인 것을 보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살았음에도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니 한국에 오래 살았어도 관용 표현은 익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남한에서는 '만날 것이다'와 같이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 '만날것이다'와 같이 표기한다.

오답 해설 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역사'를 '력사'로 표기한다. ②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뭇잎'을 '나무잎'으로 표기한다. ④, ⑤ 북한에서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기에 '먹어버리자', '가지고싶다'와 같이 표기한다.

09 북한에서는 에둘러 말하는 간접 화행이 아닌 직접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오답 해설 ① 북한식 표기로는 '장마비'와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북한식 표기로는 '력사, 녀성'과 같이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북한식 표기로는 '만날것이다'와 같이 의존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⑤ 북한식 표기로는 '먹어버리자'와 같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10 '로인'과 '락하산'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표현이며, '메돼지'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이므로 북한식 표기에 적합하다.

오답 해설 ㄴ. '나룻배'는 '나루 + ㅅ + 배'로 이루어진 어휘로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식 표기에는 맞지 않는다.

11 '남돌이'는 에둘러 말하는 표현에 익숙한 남한 문화에 따라 간접 화행을 사용하였지만, '북순이'는 직접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북한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돌이'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두 사람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북순이'가 '남돌이'의 간접 화행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다. ②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의 뜻이나 용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북순이'가 '남돌이'의 간접 화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③ 단어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쓰임 때문이 아닌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한 '북순이'가 '남돌이'의 간접 화행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④ '북순이'가 간접 표현을 중시하는 남한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순이'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노동 계급의 이상과 생활 감정에 맞는 문화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12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직접 화법에 익숙하다. 따라서 '북순이'는 '남돌이'가 한 '한번 식사하자.'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약속의 의미로 이해하고 식당을 알아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하기에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였으므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② 헤어질 때 하는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은 간접 화행에 익숙한 남한에서의 모습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북한에서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말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밥 먹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북한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하기에 자신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밥 먹자는 약속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13 남한의 '엄지'는 가장 굵은 손가락을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말이 '짐승의 어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북한의 '곽밥'은 남한의 '도시락'을 의미하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 ② 북한의 '생둥이'는 남한의 '풋내기'를 의미하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 ④ 북한의 '가시어머니'는 남한의 '장모'를 지칭하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의미한다. ⑤ 북한의 '차마당'은 남한의 '주차장'을 가리키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의미한다.

14 ㉣의 '동치미물'은 '동치미 + 물'로 이루어졌지만, 뒤의 자음이 'ㅁ'으로 시작되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로 '동치미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랭면'은 두음 법칙에 의해 '냉면'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의 '국수오리'는 남한의 어휘 표기에 따라 '국숫발'로 표기해야 한다. ③ ㉢의 '우에'는 남한 표준어에 의해 '위에'로 표기해야 한다. ⑤ ㉤의 '닭알지짐'은 남한의 어휘 표기에 따라 '달걀지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15 이 글은 '냉면(랭면)'을 소개하고 있는 북한의 글이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을 존중해서 자신의 의사를 에둘러 표현하는 간접 화행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④ 남한에서는 '돼지 편육(片肉)'이라고 하는 말을 북한에서는 '돼지고기 썬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언어는 남한의 언어에 비해서 한자어를 가급적 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은 두음 법칙, 사이시옷,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과 같은 표기법에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오답 해설 ①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이 남북한 및 해외 동포 공동체의 언어를 집대성하여 만드는 사전이다. ② 남북 간 비정치적 교류 사업으로, 남북 어문학 분야 학자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펴내는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 ④ 남측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남북의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자는 방안을, 북측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양측의 학자들은 남북의 외래어 차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복수 외래어를 다수 허용하기로 하였다.

17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언어로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두루 살릴 수 있어야 하므로, 남한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겨레말큰사전》을 출판하여 북한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남북한 각각의 언어에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생활 용어집을 제작하여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남북의 언어학자들 사이에 교류와 연구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남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의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남북한 공동 연구 기관 및 보급 기관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남북한 언어 순화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2~06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①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③ 12 ④ 13 ②

01 (가)는 미얀마의 인사법과 한국의 인사법의 차이를,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관용 표현을 습득하는 것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문화 관습이 다르다는 점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미얀마의 인사법과 한국의 인사법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팔짱 끼는 행동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는 문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습득하기 어려워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네 문화 방식대로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외국인이 한국의 관용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속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는 외국인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지냈어도 관용 표현에는 익숙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2 〈보기〉는 미얀마에서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미얀마식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이 미얀마식 표현을 버리고 한국의 예절을 따라야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미얀마에서 팔짱을 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미얀마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가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야겠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03 이 글은 문단별로 '문제 제기' – '근거' –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3문단의 주장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단의 성격과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문단(문제 제기): 유명 배우인 자신의 친구 소개 글의 문제점(①). 2문단(근거): 내 친구는 생김새나 언어가 다르지만 연기를 사랑함(②). 3문단(주장): 언어를 통한 차별적인 표현은 삼가야 함(④). 따라서 3문단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04 '의외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 자기 생각이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을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보고 평가한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외국인이 예상과 달리 연기를 전공하는 학교를 나왔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력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차별이다. 즉, 아누팜은 실력이 아닌 생김새로 차별을 당한 것이지 모국어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다. ② 외국인의 생김새만을 보고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 여기는 것이므로 국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누팜의 생김새를 보고 예상과 다르다고 평가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 여기는 것이므로 실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한국인과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학교를 나왔다고 생각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 여기는 것이므로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되는 어휘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언어 차이의 극복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남북한어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같이 남북한이 언어 관련 사업과 언어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⑤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들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설명해 주며 언어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06 조선말맞춤법 제14항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규정이 아니라, 형태를 밝혀 적는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한글 맞춤법 제29항의 규정과 예로 볼 때, 이 규정은 조선말맞춤법의 제17항과 대응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29항의 예와 조선말맞춤법 제17항의 예로 볼 때, '나흘'과 '날'이 합쳐진 말은 모두 '나흘날'로 표기한다. ④ 한글 맞춤법 제31항에 따르면 '수캐'로 표기될 것은, 조선말맞춤법 제14항에 따르면 '수개'로 표기한다. 따라서 이는 합의되지 않은 맞춤법(㉠)에 해당한다. ⑤ 남한의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에, 북한의 표기법은 '조선말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

07 ㉡은 한글 공동체의 발전과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편찬되는 사전이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함께 쓰게 될 어휘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이 하게 될 역할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은 남북이 통일을 이룬 후 예상되는 사회 언어학적 문제와 혼란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남북 말과 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은 남북이 통일을 이룬 후 예상되는 사회 언어학적 문제와 혼란에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문제와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③ ㉡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한과 북한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⑤ ㉡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회 언어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물리적 통일을 넘어선 정신적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08 ⓐ, ⓑ, ⓒ는 각각 남한 표기법을 따른 것, 북한 표기법을 따른 것, 남한과 북한의 표기를 병기한 것이라는 기준에 따른 사례를 보여 준 것으로서, 통일 이후 외래어 표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사례이지, 외래어 표기 기준을 정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는 남한의 '게임'과 북한의 '껨', 남한의 '페이지'와 북한의 '페지' 중 각각 '게임'과 '페이지'로 표기된다는 사례를 보여 준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남한의 표기법을 따른 것이다. ② ⓑ는 남한의 '콩트'와 북한의 '꽁트', 남한의 '로봇'과 북한의 '로보트' 중 각각 '꽁트'와 '로보트'로 표기된다는 사례를 보여 준 것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북한의 표기법을 따른 것이다. ③ ⓒ는 남한의 '피시'와 북한의 '피씨', 남한의 '서비스'와 북한의 '써비스'가 병기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서 남한과 북한의 표기 병기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④ ⓐ와 ⓑ에 해당하는 기준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남북의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려는 남한과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다는 북한이 각각 주장하는 바로서,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될 것이다.

09 북한에서 '력사, 녀성, 로동'으로 표기하는 것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나무잎, 내가, 장마비'로 표기하는 것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남한에서 '나뭇잎, 냇가, 장맛비'로 표기되는 어휘들이 북한에서 '나

무잎, 내가, 장마비'로 표기되는 것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북한에서 '력사, 녀성, 로동'으로 표기하는 것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초성에 모든 자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남한의 '냉면'은 북한에서 '랭면'으로 표기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말하는 '국수오리'는 남한에서 '국숫발', '면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면'과 '국수오리'는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북한에서의 '원주필'은 남한에서 '볼펜'으로 표기되므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이다. ② 북한에서의 '생둥이'는 남한에서 '풋내기'로 표기되므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이다. ③ 북한에서의 '가락지빵'은 남한에서 '도넛'으로 표기되므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이다. ④ 북한에서의 '손기척'은 남한에서 '노크'로 표기되므로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이다.

11 '말자'는 보조 용언으로서 남한에서는 띄어쓰지만 북한에서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오답 해설 ①과 ②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경우에 해당하고, ④와 ⑤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돌민정음'은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훈민정음의 특징을 활용한 신조어다.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했을 경우 어감이 살지 않거나 적절하게 대체할 단어가 없는 경우 사용한다.

오답 해설 ① 때로는 영어와 한글이 혼합된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② 돌민정음이 하나의 팬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한글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③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국어 발음대로 영어로 쓰는 것을 말한다. ⑤ 한국의 연예인들이 해외에 알려진 후 한글이 한류 콘텐츠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한글을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의 예로 돌민정음을 든 것은 아니다.

13 '돌민정음'은 해외 팬들이 만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팬들이 만든 독창적인 문화가 아니므로 '돌민정음'이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가 이루어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해외 팬들이 우리나라를 매력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글이 해외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해외 팬들이 케이팝에 담긴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응답을 볼 때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해외 팬들이 아이돌의 노래 가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위로하는 내용의 한글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66쪽

01 ⓐ: 두음 법칙이 적용됨. ⓑ: 역사, 여성, 노동 02 남한에서는 '살찌다'를 사람과 동물 모두에 쓰지만, 북한에서는 주로 동물에만 쓰기 때문이다. 03 북한에서 '연락'은 남한에서 '패스'라고 표현한다. 이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6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남한과 북한에서는 '소행'이 각각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형태가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뜻이나 용법에 있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06 간접 화행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남한이 아닌 북한이다.

10 다원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며,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3) 견해를 표현하는 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0~07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② 11 ① 12 ③ 13 ①

01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노약자가 먼저 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대립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회적 쟁점으로 적절하다.

02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용 생성하기'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글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글의 인과 구조, 비교, 대조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계획하기'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하며 글을 쓰는 활동 전체를 계획하는 과정이다. ③ '내용 조직하기'는 '서론–본론–결론' 등과 같은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④ '표현하기'는 미리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⑤ '고쳐쓰기'는 한번 쓴 초고를 다듬으며 글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03 사회적 쟁점은 찬반 양론이 분명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으로서 독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는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글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글이므로 주제와 관련된 논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한다. ③ ㉡: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글을 쓰는 목적을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중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④ ㉢: 자신의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가 주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⑤ ㉣: 자신이 쓴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성격을 정해야 하므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04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로 견해를 뒷받침하였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활동은 글을 다 쓴 후 글의 주제가 적절히 드러났는지 점검해 보는 고쳐쓰기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한 내용에 대해 초고를 작성하게 된다. ②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맥락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어휘나 표현을 선택하고 또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③ 자신의 글이 실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도표, 동영상 등 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수시로 자신의 표현 과정을 점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05 (가)는 학생회장이 학생회 게시판에 올린 글로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공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댓글은 공지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댓글 중 '탄소 중립'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댓글을 단 학생들은 (가)의 공지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 ③~⑤ (나)는 (가)의 공지 사항에 대한 댓글이 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고,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도록 설득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고자 한 것이다.

06 (나)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글쓰기 계획에서 설정된 예상 독자는 탄소 중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학생회 게시판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학생들만을 예상 독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쓰기의 쟁점은 학생회에서 제기한 탄소 중립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글의 주제는 학생들도 일상 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다. ③ 글을 쓰는 목적은 탄소 중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설득하는 것이 된다. ⑤ 글을 실을 매체는 여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의 자유 투고란이 적절하다.

07 (마)의 〈자료 5〉는 1920년부터 2000년까지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탄소 중립의 개념과 실천 방법 ② (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③ (다): 탄소의 증가와 기후 변화의 원인 ④ (라):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

08 〈자료 1〉은 전문 기관이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탄소 중립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자료 2〉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난방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주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적절한 활용이 아니다. ③ 〈자료 3〉은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고, 글의 논지와도 맞지 않다. ④ 〈자료 4〉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어 있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다. ⑤ 〈자료 5〉는 2000년도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좀 더 최신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가)는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다룬 것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이미 써 놓은 글을 다시 고쳐 쓰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③ (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과정을 분석하거나 앞으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10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뒷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와 관련이 없으니 적절한 수정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서론'의 '가'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본론 1–다'인 '교실에서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라는 실천 방안은 '본론 2'와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본론 2–나'는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개발'로서 학생들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결론'에 '본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전체 핵심 내용을 간추릴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예시와 함께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심각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다)에서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해 지구 기온이 상승하여 기후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캠페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다)와 (라)에서는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통해 지구 기온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12 ㉠의 뒤에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탄소 배출량의 증가와 지구 기온의 상관관계'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위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에서 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위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적절하지 않다. ④ 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지구 기온의 정상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언급되고 있으나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상은 다루고 있지 않다.

13 학생회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포스터이므로 '실천'과 '탄소 중립'이라는 핵심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탄소 중립'이 금주의 최고 검색어라는 것은 실천 방안과 무관하다. ③ 탄소 중립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학생회 제작 홍보 포스터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탄소를 줄입시다. 나무를 심읍시다.'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학생들의 실천 방안으로서 매우 제한적이다. ⑤ '지구가 뜨거워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는 지구 기온 상승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74~077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④ 10 ④

01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선별한 자료를 쟁점별로 나누어 조직한 후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문제-해결 구조를 작성하는 과정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계획하기나 고쳐쓰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계획하기는 사회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글의 성격, 목적, 표현 방법, 매체 등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② 내용 생성하기는 사회적 쟁점을 다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이 쓸 글의 내용으로 삼는 단계이다. ④ 표현하기는 이미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이 분명하며 논지가 정확하게 글의 초고를 쓰는 단계이다. ⑤ 고쳐쓰기는 미리 써 놓은 초고를 다시 읽으며 쟁점이 분명한지 확인한 후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 쓰는 단계이다.

02 고쳐쓰기 전략 중 '글의 수준'에서는 글의 제목 및 소제목을 수정하거나(㉠),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활동을 한다.

오답 해설 ② (나) 문단 수준에서는 ㉤의 활동을, ③ (다) 문장 수준에서는 ㉡, ㉢, ㉦의 활동을, ④, ⑤ (라) 단어 수준에서는 ㉥, ㉧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인과 관계에 해당하므로 대조 구조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왜냐하면 인공 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전자 기기가 인간 사이의 만남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적절한 인과 구조이다. ②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느끼게 되는 소외감은 이전 산업화 시대와는 사뭇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적절한 인과 구조이다. ③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한편 이전의 산업화 시대의 현대인들도 비인간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유사한 현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비교 구조이다. ⑤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적절한 문제-해결 구조이다.

04 (가)의 첫 문단에서 '패스트 패션으로 일 년에 수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중 삼분의 일이 버려진다고 한다.'라고 하여 패스트 패션이 1년에 얼마나 만들어지고 버려지는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자는 것은 적절한 보완책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패스트 패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자는 내용은 적절한 보완 방안이다. ③ (가)에서 제시한 패스트 패션을 만드는 합성 섬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패션 부문 전체 배출량의 15~20%를 차지한다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것을 발표한 기관을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 학대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주장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 보완 방안이다.

05 4문단에서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이 전체 쓰레기의 사분의 일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식품의 폐기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알래스카의 빙하가 붕괴되거나 전례 없는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가 일어나는 원인은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이미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것은 식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교실에 공기 정화 식물을 배치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기 중의 미세 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전기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모두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전자가 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06 글의 처음에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 무엇일까요?'라고 하거나 셋째 문단에서 '그렇다면 ~ 동참할 수 있을까요?'라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한 후 글쓴이가 스스로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하여 '탄소 중립'이라는 중심 화제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를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재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③ 이 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중심 화제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거나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07 ㉢에서는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산된 식량의 삼분의 일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생기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탄소 중립'은 학생들 수준에서 낯선 개념일 수 있으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게 한다'는 탄소 중립의 개념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② ㉡: 전기를 절약하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친구의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로 인용하게 되면 주장의 신뢰성을 얻게 되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④ ㉣: 공기 정화 식물이 학급 환경 미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라는 글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니 삭제하자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⑤ ㉤: 결론 부분이므로, 본론에서 탄소 중립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숲 조성과 식물 기르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 좋겠다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08 ㉤에 쓰인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

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즉, ㉤에서는 '만큼'을 통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보조 용언 '있다'는 '화제가 되고 있는'에 쓰였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함'에 더해 '포인트를 받음'도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이는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겠-'이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09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에 제시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선택!',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는 다시 채워 쓰기!', '물건 살 때 전자 영수증 받기!'는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수용자인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 이외에 QR코드를 함께 제시하여 수용자가 좀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는 돼지 저금통과 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수용자로 삼는 (가)와 달리 (나)는 '◇◇고 친구들'로 수용자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나)에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라는 생산자가 명시되어 있다.

10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 제시 여부의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쓰는 것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다회용기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받기'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은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⑤ 학생 5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8쪽

01 ⓐ: 문제 해결, ⓑ: 문제-해결 구조 **02** ㉠: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표현하기 **03**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주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7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3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7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로 견해를 뒷받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고쳐쓰기' 과정은 글을 쓰는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08 다양한 매체에서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때는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와 최신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문학의 네 가지 빛깔

(1) 땅끝_나희덕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84~087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⑤	16 ⑤
17 ①							

01 서정 갈래에서 글쓴이의 정서와 사상이 투영된 인물을 '화자'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 한다.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정 갈래는 사전에 풀이된 지시적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하는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전달한다. ② 서정 갈래는 주제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인 시어를 활용한다. ③ 서정 갈래는 주제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활용한다. ⑤ 서정 갈래는 음운이나 시어, 글자 수나 음보, 통사 구조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Plus 〈참고〉 화자의 위치

표면적 화자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화자 ('나' 혹은 '우리')
이면적 화자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화자

02 공감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기법으로, 기존의 감각을 새롭게 표현하는 '낯설게 하기'이다. 이 글은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아름다운 것들을 동경하고 좌절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의 땅끝을 보고 있다. ② 3연에서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종결 어미 '-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좌절감은 '삐걱삐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

03 화자는 1연에서 어린 시절에 지녔던 꿈이 실현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어린 시절 화자의 꿈이 좌절되었던 경험은 '그넷줄이 /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2연에서 어린 시절 화자가 아름다움에 취해 찾아갔던 '땅끝'은 진정한 의미의 절망적 공간은 아니다. ④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은 절망의 순간을 의미하는 곳이다. 단순히 육지의 끝이라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⑤ 3연에서 화자는 '땅끝'을 보며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아름다운 삶의 속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04 '어릴 때'와 '이제'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절망적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땅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의 화자는 친근한 구어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③ 화자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화자는 절망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으나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⑤ 과거 시제의 종결 어미의 반복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5 이 글은 실재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소재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땅끝'은 아름다움에 취해 찾아갔던 공간이지만 현재의 '땅끝'은 삶의 위태로운 순간을 상징한다. ② '땅끝'과 '~는 것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유년 시절 꿈꾸던 바가 좌절되었던 경험은 '삐걱삐걱'과 같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⑤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는 강렬한 시구로 화자가 처한 위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06 땅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화자는 삶의 위태로움 속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의 의미가 희망으로 가득한 공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어린 시절 화자가 동경하던 아름다운 공간이다. ② ㉠은 해남의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살면서 원하지 않아도 몇 번씩 가게 되는 ㉡은 삶의 절망적 순간을 의미한다. ⑤ ㉢은 절망적 순간이지만 인식을 전환하면 바다의 시작으로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07 〈보기〉에 제시된 시구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에 사용된 표현법은 역설이다. ③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 역설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어디 있으랴'에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② '울음이 타는 가을 강'에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청각화)이 사용되었다. ④ '병든 나무처럼'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눈은 살아 있다'에 활유법이 사용되었고 전체적으로 이 시구를 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08 3연에서는 '그런데'를 기준으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화자가 다시 아름다움을 찾아다닐 것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연은 화자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느꼈던 슬픔을 감정 이입의 대상을 통해 나타내었다. ② 1연은 화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아름다운 노을을 보기 위한 노력이 어둠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2연에서 화자는 과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갔던 '땅끝'과 달리 오려고 하지 않아도 서게 되는 현재의 '땅끝'에서 절망을 느낀다. ④ 절망적 순간에서 느낀 두려움을 파도가 달려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눈부시고 감미롭다'와 같은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는 시구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는 꿈의 좌절을 나타내는 시구이다. ② ⓑ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형상화한 시구이다. ③ ⓒ는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 처한 화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는 삶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보러 올 것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깨달음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음을 나타낸다.

10 작가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시적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서정 갈래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정서는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나타난다. ② 서정 갈래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들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③ 서정 갈래는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낸다. ④ 시의 형식과 내용은 유기적 관련을 이루어 주제를 형상화한다.

11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깨닫고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으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인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고 있다. ② 평이한 구어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는 어조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④ 화자의 어린 시절 절망감은 그넷줄의 떨림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⑤ '~는 것이'와 '-지'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이 글에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였다. ③ '그넷줄'은 화자의 절망감이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④ '땅끝'은 중의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로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절망적 상황 속에 발견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⑤ 이 시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Plus 〈참고〉 대유법: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제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냄.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 우리나라를 대유)
환유법	표현하려는 대상과 관련되는 다른 사물이나 속성으로 그 대상을 나타냄. (펜은 칼보다 강하다. – 펜: 글의 힘 / 칼: 무력)

13 ㉤은 삶의 시련과 고통에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시어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의 어린 시절 꿈과 희망, 이상을 의미한다. ② ㉡은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 이상 등을 좌절시킨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③ ㉢은 화자가 좇았던 꿈과 이상을 비유하는 시어이다. ④ ㉣은 화자를 위협하는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14 〈보기〉의 낯설게 하기는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역설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순된 내용으로 표현한 '낯설게 하기'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3연의 시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독자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은 낯설게 하기가 아니다. ②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낯설게 하기와 관련이 없다. ③ 해변가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만으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④ 도치법은 익숙한 어순을 바꾸어 낯설게 표현하는 기법이나, 도치법을 사용하여 보편적인 미의식을 보여 주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낯설게 하기와 관련이 없는 감상이다.

15 ⑤의 화자는 스스로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을 하는 것은 자유보다 더 달콤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A]에서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시적 상황이 유사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겨울이라는 절망적 시간도 희망을 품고 있다고 인식을 전환하는 역설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②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반성에서 자랑스러울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③ 오지 않는 대상을 기다리다가 인식을 전환하여 화자가 '너'에게 가기로 하는 태도의 전환이 드러난다. ④ 차를 놓쳤음에도 오히려 걷는 일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16 '그러나'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환되는 것이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적 상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글에 쓰인 활유법은 생동감을 높이는 표현 방법이다. ③ 이 글은 부정적 상황이라도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인식으로 주제를 나타낸다. ④ '그런데'를 기준으로 화자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17 직유법은 이 글과 〈보기〉에 모두 나타난다. 이 글은 '나비를 쫓듯'에서 이상을 추구했던 화자의 모습을 직유법으로 표현하였고, 〈보기〉는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고무신이 미끄러지며 떠내려가듯, 바람의 널빤지 가듯'과 같이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달리 〈보기〉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로 줄글 형식으로 쓰여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는 '나'로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④ 이 글은 종결 어미와 '파도, 땅끝'과 같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보기〉도 '가네', '부르네'와 같은 동일한 시어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Plus 〈보기〉 1942열차_문태준

성격	감각적, 묘사적
주제	열차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 열차 밖 풍경
해제	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 열차 밖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음.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8~09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③ 11 ② 12 ④ 13 ⑤

▸ (가) 노신_김광균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의지적
주제	예술가의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갈등과 그 극복 의지
해제	시인의 신념과 생활인의 고통이 갈등하는 순간의 고뇌를 고백하는 시로, 중국의 문인인 '노신'을 떠올리며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짐.

01 (가)의 화자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괴로워하지만 노신을 떠올리며 인식을 전환하여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에서도 절망적 순간에 인식을 전환하여 절망의 순간에도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는다.

오답 해설 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가)와 (나)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② 현재 화자의 처지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가)와 (나)에서 화자의 반성은 찾을 수 없다. ④ (나)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을 견뎌 내겠다는 내적 의지를 다진다. 그러나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의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외부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화자 모두 자신의 인식을 전환하여 현실을 다르게 보려고 하고 있다.

02 (가)는 ① '어떻게 살아가나', '나를 쫓아오느냐' 등과 같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탄식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에는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여기, 하나'의 시어가 반복되고, (나)는 '파도, 땅끝'이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의 '먹고 산다는 것',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나)의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은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형성한다. ④ (가)와 (나) 모두 시각적·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등불'이 화자에게 속삭이는 것, (나)에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동감을 준다.

03 '노신'은 (가)의 화자에게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인물이다.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래도록 남을 만한 글을 썼던 '노신'을 떠올리며 화자는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며 '노신'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진다. 따라서 '노신'이 (가)의 화자에게 했음직한 말을 상상하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말하며 절망적 상황에 처한 화자를 위로하려 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린 시절 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가)의 화자에게 의지를 북돋우는 말이 아니다. ② 어린 시절 꿈이 좌절되어 슬퍼했었다는 이야기는 (가)의 화자에게 의지를 북돋우는 말이 아니다. ③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땅끝을 찾아갔던 경험은 진정한 의미의 땅끝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은 (가)의 화자에게 의지를 북돋우는 말이 아니다. ④ 두려움에 뒷걸음질만 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가)의 화자에게 의지를 북돋우는 말이 아니다.

04 (나)의 화자는 어린 시절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다 좌절했던 경험을 '노을'을 보기 위해 '그네'를 탔다가 '어둠'에 처했던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네'가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반복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동경하던 상황이 좌절되었을 때의 절망감이 '그넷줄'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③ 화자는 과거에 스스로 원하여 땅끝을 찾아갔으나, 현재는 원하지 않아도 땅끝에 서게 되었다. ④ 원하지 않아도 땅의 끝에 서 있게 된 화자 앞에 파도가 무섭게 치는 모습은 삶의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땅끝이 늘 젖어 있다'는 것은 인식을 전환하면 땅의 끝은 바다의 시작이므로 절망적 상황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가) 추천사_서정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초월적
주제	초월적 세계에 대한 갈망과 운명적 한계
해제	고전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 운명적 한계를 드러냄.

05 ㉠은 이상적 공간으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이상적 공간이나 대상을 의미한다. ③ ㉢은 이상적 공간이나 대상을 의미한다. ④ ㉣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대상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⑤ ㉤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대상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06 ⓐ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인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고, ⓑ도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대상인 '노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오답 해설 ① ⓐ가 화자의 이상을 좌절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 ⓐ는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하여 화자를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게 하지만 화자가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꾀꼬리'는 아름답지만 유한한 대상들로, 화자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③ 화자의 꿈과 이상을 상징하는 소재는 '노을'이다. ④ ⓐ와 ⓑ 모두 화자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07 (나)에서 화자는 역설적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땅끝에 올 것이라 말한다. 이는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다시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의 깨달음을 되새기며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는 과거에 화자가 이상을 추구했던 모습을 나타낸다. ② '뒷걸음질만 허락된 것이라고'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화자의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③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절망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화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들을 의미한다.

08 (나)만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각각 '밀어 올려다오', '~는 것이'와 같은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② (가)의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채색한 구름같이' 등과 (나)의 '나비를 쫓듯'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하였다. ④ (가)의 1연, (나)의 3연은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나)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_복효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희망적
주제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 및 조화
해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은 잔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획득했음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조화를 깨달았음을 노래함.

09 (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잔디를 훼손하는 것을 보고 염려하지만, 자신이 부정적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시적 상황에 대해 화자가 성찰하고, 사색하고 있다. ② (가)는 땅끝에 갔던 경험, (나)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는 잔디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는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나)는 잔디가 사람들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잔디가 사람들의 몸속에서 생명력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하였다. ④ (가)와 (나) 모두 부정적 상황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10 (나)만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설의법이 아니라 역설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화자가 '나'로 작품에 직접 드러난다. ② (가)는 '~지', (나)는 '~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땅끝은 늘 젖어 있다'에서 촉각적 심상을, (나)는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그넷줄의 떨림 소리, (나)의 사람들의 웃음소리, 말소리는 청각적 심상으로 시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11 (가)의 '파도'는 땅의 끝에 서 있는 화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화자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땅끝'은 실제 지명이기도 하고,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 공간이기도 하며,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가)의 '노을'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상, 꿈 등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④ (나)의 '잔디'는 사람들에게 밟혔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여 되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다. ⑤ (나)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자연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12 '파도'가 긍정적인 요소인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그네'를 타고 '노을'을 보려 했다. ②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대상인 '노을'은 어둠 속에 사라졌고, 화자는 절망을 느꼈다. ③ 과거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려 땅끝을 찾아갔으나, 현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떠밀려 땅끝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⑤ 화자는 현재 '여기'에서 깨달은 바를 시련의 순간마다 떠올릴 것이라 말하고 있다.

13 ⑤는 시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공감하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의 감상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는 작품의 내재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①은 시의 표현법을 파악하며 시를 감상하고 있고, ②는 시어의 의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고 있다. ③은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④는 시의 운율 형성 요소를 파악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92~093쪽

01 ㉠: 꿈이 좌절되어 불안해함, ㉡: 과거와 달리 두려움과 절망을 느낌, ㉢: 절망적 상황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02 ⓐ: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 절망적인 공간(상황), ⓒ: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 03 ㉠ 동일 시어, 시구, 종결 어미의 반복, ㉡: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04 '그런데'는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시어이다.

01 화자는 어린 시절 이상이 좌절된 경험으로 고통스러웠으나, 다시 아름다움을 찾아 땅끝으로 간다. 그러나 진정한 땅끝은 살면서 경험하는 절박하고 두려운 좌절의 순간으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서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화자는 인식을 전환하여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름다움과 희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02 '땅끝'은 중의적 시어로 구체적 지명이자, 대조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또한 '땅끝'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화자가 처한 절망적 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03 시는 운율 형성 요소, 시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함축적인 시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제를 형상화한다.

04 '그런데' 이후로 화자의 인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094~09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6 이 글에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은 사용되었으나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08 화자는 '그넷줄'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13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것이다.

16 화자가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이나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았으나, 절망적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7 화자가 앞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 땅끝에 오면 땅의 끝은 바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적 상황도 새롭게 인식하면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되새길 것이다. 그러나 바다를 보며 위로를 받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9 작가는 자신의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 경험과 성찰을 표현한다.

(2) 미스터 방_채만식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8~10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⑤	07 ③	08 ①
09 ②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①	15 ④	16 ①
17 ⑤	18 ①	19 ⑤	20 ④	21 ⑤			

01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다.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에는 인물, 배경, 사건 등이 있다.

오답 해설 ①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으며, 자아의 세계화를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② 작가가 체험한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교훈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의 특징이다. ③ 화자를 통해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서정 갈래의 특징이다. ⑤ 사건의 전달을 중시하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의 특징이다.

02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외형을 묘사하거나 상황적 아이러니 등의 풍자적 기법을 활용해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래 보여도 나는 삼 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 이 백 주사가 아닌가.'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드러내어 인물의 몰락을 부각하고 있다. ④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 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씸벌씸해 가면서'를 통해 미스터 방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다. ⑤ '이래 보여도 나는 삼 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 이 백 주사가 아닌가.'를 통해 판소리의 사설체를 사용해 언어의 유희와 간결한 요약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03 '향리의 예법으로 ~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로 보아, 백 주사는 향리의 예법을 지키지 않는 미스터 방을 내심 괘씸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 주사.'라는 것을 통해 미스터 방과 백 주사는 고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② '내 참, 이래 봬두, 응, 동양 삼국 물 다 먹어 본 방삼복이우. 청얼 뭇허나, 일얼 뭇허나, 영어야 뭐 말할 것두 없구……'를 통해 미스터 방은 영어와 청어(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술두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은 안직두 멀었어.'로 보아 미스터 방은 미국이 조선보다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④ '백 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 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로 보아 백 주사는 미스터 방을 괘씸해하면서도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04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미스터 방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미스터 방은 시대가 바뀌면서 권세를 얻었으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자랑하며 허풍을 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모습은 아니다. ③ 기고만장한 태도이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⑤ 헛된 꿈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05 미스터 방의 품위 없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미스터 방이 '신사'나 '방 선생'과 같은 명칭에 걸맞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광복 직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날 팔시헐 눔이 어딨어, 지끔 이 천지에'라는 것을 통해 미스터 방이 권세를 얻어 자기 과시와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백 주사는 친일파 지주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인물'이라는 것과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를 통해 백

주사가 왜곡된 역사의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백 주사는 '어떤 비굴한 태도도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통해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빼끔빼끔 피'우는 미스터 방을 백 주사는 괘씸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 하던 백 부장'이라는 것을 통해 백 주사의 집안이 친일 행위로 득세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6 〈보기〉의 '한국은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해 외세의 개입과 혼란에 휘말리며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작가는 친일파 백 주사와 기회주의자 방삼복을 희화화하고 풍자함'을 바탕으로 혼란한 시대를 이용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출세를 도모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인 방삼복을 비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상황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염치없이 뻔뻔한 행동을 반복하는 무례한 인물 유형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자국의 것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타국의 것을 추구하는 사대주의적 인물 유형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확고한 신념이나 원칙 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낭만주의적 인물 유형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오직 과거에만 집착하는 보수주의적 인물 유형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07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② 서술자가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로서 주인공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건이나 상황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⑤ 서술자가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1인칭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방삼복은 여러 나라를 떠돌았지만, 특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할 수 없이 이번엔 궤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낫 놓고 기역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는 것을 통해 방삼복은 방 첨지의 아들로,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무식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아비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를 통해 방 첨지는 방삼복의 아버지로, 짚신을 만드는 기술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장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를 통해 고향 사람들은 방삼복에게 빈정거리는 태도를 취하며, 그의 직업과 신분이 하찮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백 주사가 방삼복을 만난 이후 백 주사는 방삼복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를 하찮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신기해 한다.

09 이 글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적 특징을 이어받았으며, 조선 후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풍자적 기법을 계승하여 기회주의적 인물들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의로운 인물이 악한 인물을 꾸짖고 벌하는 권선징악의 결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에 시간의 흐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결말에 있지만, 고전 소설 특유의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전기적 요소는 신이한 이야기에 해당한다. ④ 미스터 방의 내력을 간결하게 요약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면 전환을 빈번하게 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미스터 방'의 본명은 방삼복으로, 인물을 익명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는 않다.

10 〈보기〉는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의 단면을 중심으로 감상한 ⑤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식민지 시대를 겪은 작가의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는 감상은 표현론적 관점이다. ② 방삼복을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감상하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이다. ③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이상적인 삶의 가치를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이다. ④ 이 글을 통해 기회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효용론적 관점이다.

11 삼십 대까지 머슴으로 살던 방삼복은 어느 날 돈벌이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 후 일본과 중국을 떠돌다 돈을 벌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고향에서 일 년 동안 놀면서 부모와 처자식에게 의지해 살았다. 따라서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방삼복의 증조는 외지에서 온 평범한 인물이고, 조부는 아전을 다녔으며, 아버지 방 첨지는 짚신 장수로 성실히 살아왔다. 방삼복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지내왔다. ③ 방삼복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처음에는 포로수용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구둣방에서 일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구두 가죽이 동이 나 구둣방이 문을 닫자 신기료장수로 전업하게 된다. ④ 방삼복이 신기료장수로 일하자 고향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가 외국에서 돌아와 고작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한다고 비웃는다. 그의 과거와 직업을 비하하며 부전자전이라는 빈정거림이 이어진다. ⑤ 방삼복은 시간이 지나며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한다. 과거에 그를 하찮게 여기던 백 주사는 방삼복의 성공을 신기하게 여기며,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는 감탄을 하게 된다.

12 백 주사가 아들인 백선봉의 호화로운 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S 소위는 미스터 방의 권력과 부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양치질 사건으로 인하여 미스터 방의 몰락을 초래한다. ② 군중들은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고, 재산과 물품을 빼앗는다. 이는 백선봉의 몰락과 광복 직후의 사회적 혼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미스터 방은 신기료장수였다가 S 소위를 만나 갑자기 권세를 얻은 후 화려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인물이다. ⑤ 백선봉은 순사로서 권력을 얻어 다양한 물품과 재산을 축적하여 사치스럽게 생활하며, 경제적 호황을 누리다 군중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인물이다.

13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를 통해 백 주사의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방삼복과 백 주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이 드러난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모든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한다. ③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는 결말을 통해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④ 백 주사의 배경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그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킨다.

14 백선봉이 도망 오기 전, 백 주사의 집이 군중에 의해 습격당한 것이 아니라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의 집'이 습격당했다.

오답 해설 ②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는 것을 통해 백선봉은 광복이 된 날 군중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목숨을 겨우 구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를 통해 8.15 당시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여 그의 재산을 강탈하고, 집과 세간을 파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백 주사는 우연히 만난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미스터 방은 염려 말라며 백 주사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 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

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를 통해 백선봉은 많은 재산과 고급 물품을 축적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미스터 방이 S 소위에게 간절하게 빌며 애원하는 것은 자신의 부와 권세가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에서 비는 것이지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미스터 방의 말을 통해 그가 백 주사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백 주사는 광복 후에도 여전히 친일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미스터 방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미스터 방이 술을 마시고 양치를 하는 습관은 마지막에 S 소위가 미스터 방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장면으로 해학적인 결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작가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⑤ 결말에서 S 소위가 미스터 방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장면은 미스터 방의 몰락을 예고하며, 그의 부와 권력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백 주사가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백 주사의 모습에 해당한다. 하지만 작가는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의 변화가 부당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방삼복이 미스터 방이 되며 양치질을 하는 것은 자신이 세련된 사람이라고 유난 떠는 모습으로, 작가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허세를 부리는 방삼복을 비판하고 있다. ③ 백선봉이 순사가 되어 일제 강점기를 기회 삼아 잘사는 모습을 통해 작가가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백 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찾으면 반을 주겠다며 방삼복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해방 이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⑤ 방삼복이 광복 이후 잘사는 것은 미국의 권위를 등에 업고 얻은 권력 덕분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 기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던 미군정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 이생규장전_김시습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명혼 소설, 애정 소설
성격	전기적, 비극적, 환상적
주제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해제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편의 소설 중 하나로, 현실적으로 좌절된 사랑을 귀신과의 사랑으로 바꾸어 성취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더욱 애틋하고 절실한 것으로 그리고 있음.

17 서술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인물, 배경, 사건의 구성 요소로 나타내는 양식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이나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감정, 분위기, 이미지, 상징 등을 활용하여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은 서정 갈래이다. ②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며, 극적 구성과 인물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 것은 극 갈래이다. ③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을 서술하며 주로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교술 갈래이다. ④ 대화, 독백, 극적 갈등, 무대 지시 등이 중요하며, 인물의 갈등과 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극 갈래이다.

18 '이생은 최씨 여인이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을 통해, 이생이 다시 최씨를 만났을 때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재산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를 통해 홍건적의 난을 겪었지만, 재산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를 통해 홍건적의 난으로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끝내 승냥이의 손에 몸을 망치지 않고 저 스스로 모래 구덩이에서 살을 찢기는 길을 택했지요'를 통해 최씨는 홍건적의 난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오직 규방 여성의 일이나 알 뿐 ~ 붉은 살구가 있는 담장을 넘겨다보고는 그만 제가 먼저 마음을 바치고 말았고'를 통해 최씨는 규방의 생활밖에 몰랐지만, 이생을 만나 먼저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은 최씨는 이생과 함께 하기 위해 이생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가 지닌 생각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은 최씨가 죽은 이후 환생해서 돌아온 것이므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전개되어 전기적 소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② ㉡은 최씨가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으로 이생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구덩이에 뒹굴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최 씨가 이미 사망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④ ㉣은 최씨가 혼령이 되어 살아난 것이므로 작가가 지니고 있는 내세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0 〈보기〉에서 전기성은 환상적이고 기이한 특성이기에 사실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사실감을 더해 이야기 속 사건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서로를 사랑하는 인물의 성격은 전기성으로 인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②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기에 두 인물의 사랑을 환상적이면서도 애절하게 만들어 준다. ③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되도록 도움을 준다. ⑤ 이생과 최씨의 만남과 이별이 죽음을 넘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이야기 전개에 긴장감을 더하고 서사적 흥미를 높여 준다.

21 최씨와 이생은 모두 죽음을 초월해서라도 사랑을 이루고 그것을 오래 지속시키려는 열망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생이 난을 통해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최씨가 죽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최씨가 난이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최씨와 이생이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6~11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③	07 ②	08 ③
0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②	14 ⑤	15 ⑤	16 ④
17 ①							

01 미스터 방이 백 주사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S 소위가 욕을 하며 미스터 방을 때리는 상황을 통해 그가 미스터 방을 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를 통해 백 주사가 미스터 방의 변화에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자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를 통해 미스터 방은 백 주사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백 주사는 미스터 방을 이용해 재산을 되찾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02 방삼복은 '머, 지끔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이라고 말하며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백 주사는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면서 방삼복에게 부탁하고 있고 그 일에 방삼복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방삼복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방삼복은 백 주사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에게 방삼복이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③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 그런데 백 주사는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이다. ⑤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04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부분은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선이므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를 통해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를 통해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독자는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④ '있었더란다'.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는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⑤ '백 주사는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05 ㉮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그 시대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부분'은 '미스터 방'과 '백 주사'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으로 독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간결한 문장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독자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의 '장면 전환을 빠르게 하여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6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07 백 주사의 냉소적인 시각을 통해 그가 지닌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시대에 순응하는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광복이라는 시대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백 주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방삼복의 과장된 태도를 통해 그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지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방삼복의 성공 과정을 통해 해방 직후 사회에 내재된 부패와 타락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백 주사는 속으로는 방삼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목적을 위해 그에게 아부를 떠는 양면적 태도를 통해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8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는 유사 발음을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 애 이 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에도 이러한 언어유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대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꼴불견이다'는 중의적 해석을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② '구름이 걷히니 달이 구름 속에서 걷더라'는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④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는 언어의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⑤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인심 좋다 후박나무, 셈 잘한다 계수나무'는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09 이승만도 자신의 말이면 따른다는 말은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방삼복은 필요에 따라 백 주사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방삼복은 겉으로만 백 주사를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④ 방삼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백 주사와 같이 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⑤ 방삼복은 백 주사에게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

10 ㉢은 방삼복이 하는 행동이지, 외부 세력인 S 소위의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외세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양치질 사건을 통해 미스터 방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③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지나치게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미스터 방의 모습이 허위였음을 폭로하고 있다. ④ 백 주사를 만나 자신감 넘치던 미스터 방의 허세가 양치질 사건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⑤ 백 주사도 미스터 방을 통해 얻으려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1 '두꺼비'는 허세를 부리며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미스터 방과 백 주사의 인물 유형과 비슷하다.

오답 해설 ①~③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안분지족을 드러내고 있다.

12 이인국 박사는 일제, 미국 등을, 방삼복은 광복 이후의 사회 상황이나 정세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

오답 해설 ① 두 인물 모두 현실적인 삶과 멀어진 채 허황된 꿈을 좇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② 두 인물 모두 폭력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③ 두 인물 모두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는 것이 아닌 정세를 이용하고 있다. ④ 방삼복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체제를 이용하여 출세를 도모한다.

13 최씨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③ 잦은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라는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최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이생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14 최씨가 '이제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시 사랑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의도이지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그 지극한 즐거움은 예전과 똑같았다.'라는 것에서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두 주인공의 사랑이 예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생이 최씨의 물음에 '진정 내가 바라던 바요!'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남녀 주인공 모두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최씨가 '서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 새'라고 표현한 것은, 둘이 이별한 것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다. ④ 최씨가 '도중에 일이 어그러져 구덩이에 뒹굴게' 되었다는 것은 홍건적의 난으로 최씨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이생이 '양가 부모님의 유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원적 공간 구도는 이승과 저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씨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수놓고 옷 짓는 일을 열심히 익혔고, 시 짓기며 글씨 쓰기며 인의의 도리도 배웠어요.'를 통해 최씨가 결혼 전에 시 짓기를 배웠으며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최씨가 저승에서 돌아와 이생에게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말 것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 최씨가 능동적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사람의 사랑이라는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씨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최씨는 저승에서 돌아왔지만 결국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인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 있지만 끝내는 사라진다는 작가의 내세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이 글에서 최씨는 죽은 뒤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잠시 머문 뒤 끝내는 저승으로 영원히 떠난다. 따라서 ① 사람은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거나, ② 바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사라져 버린다거나, ③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거나, ⑤ 하늘로 올라가 행복을 누리거나 벌을 받으며 지낸다는 것은 모두 작가의 내세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17 〈보기〉의 최씨는 이생과 헤어지는 데 있어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①도 죽음으로 인해 임과 헤어진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 ③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④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⑤ 민중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12~113쪽

01 ⓐ: 신기료장수, ⓑ: 미군 장교의 통역, ⓒ: 고리대금 업자 **02** ㉠: 백 주사의 외양적 특성을 '대추씨만 한 얼굴에 양상한 노랑 수염'이라고 희화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 '있었더란다'를 통해 글쓴이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설명하였다. ㉢: 전지적인 서술자가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백 주사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3** 이 글의 결말은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는데, 작가는 그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황적 아이러니와 희화화의 기법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4** 미스터 방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회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는 해방 이후 새로운 권력에 빠르게 적응하며 통역 일을 통해 부를 쌓으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고민이나 역사적 책임 의식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성공에 집중한다.

01 방삼복은 해방 전에 보잘것없는 신기료장수였지만 해방 이후 약간의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S 소위를 만나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는 부를 누리며 편히 살았지만 광복 이후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다.

02 이 글은 인물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 사설의 화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결말에 해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방삼복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상황적 아이러니와 희화화를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04 미스터 방은 역사의식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중시하는 인물로, 당시의 정세를 잘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14~11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8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10 방삼복과 백 주사의 대화는 갈등 고조와는 거리가 멀다.

11 신기료장수로서의 수익은 해방 전후에 크게 다를 것이 없었기에 통역 일을 하게 된 것이다.

12 방삼복은 미국 장교의 통역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S 소위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17 S 소위가 미스터 방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나빌레라_이은미 각본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8~12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②
17 ③	18 ⑤	19 ②	20 ①				

01 극 갈래는 '보여 주기'의 표현 양식에 해당한다. '이야기하기'의 표현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극 갈래에서 사건은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③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갈등의 발생과 해결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⑤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서사 갈래와는 달리 시나리오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02 승주는 남을 가르치는 데 재능이 없어서 덕출을 가르치는 것을 채록에게 미룬 것이 아니라, 채록이 무용원에 복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덕출을 핑계 삼아 제안을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채록은 발레 유망주이지만 현재 슬럼프를 겪고 있다. ② 덕출은 채록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레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서 발레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한다. ④ 채록이 조건을 건 것은 덕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이는 덕출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⑤ 덕출은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년퇴임 후 하루가 길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03 채록은 레슨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승주가 레슨비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레슨비를 내지 못한 상황을 비관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나 '치사하다' 등의 대사로 미루어 보아 채록은 승주의 제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승주는 채록이 복학하지 않고 혼자 안무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덕출을 가르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 ④ 승주는 채록에게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나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몰아세우지만, 제안을 수락하는 채록에게 미소를 짓는 것을 통해 채록이 복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⑤ 채록이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4 채록이 덕출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승주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알겠다는 표정'보다는 '궁금한 표정'이 적절하다.

05 채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을 제안한 것은 덕출이 동작의 어려움을 알고 발레 배우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오답 해설 ① 덕출이 발레 배우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이지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② 덕출이 발레 배우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이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④ 발레가 쉬운 운동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다. ⑤ 덕출이 발레 배우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이지 나이 많은 사람은 발레를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06 선배는 덕출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편지를 배달하는 덕출을 보고 대견하다는 의미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채록과 승주는 덕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② 효과음 이후에 현재에서 과거로 장면이 전환되었다. ④ 채록이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이유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과거와 현재의 덕출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 주고 있다.

07 S# 29와 S# 30에서 젊은 덕출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배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해 내는 책임감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오답 해설 ①, ② 선배의 강압적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집배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며, 의기소침함보다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③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 신분을 밝힌 것이다. ④ 퇴근 후에도 주소와 위치를 외우는 것은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08 S# 30에서 덕출을 반신반의하던 선배는 완벽하게 임수를 수행한 덕출을 대견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S# 28에서 선배는 사회 초년생 덕출이 실수한 것을 그럴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한심하게 여긴다. ② S# 30에서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덕출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보아 실수할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③ S# 30에서 선배가 편지 배달을 실수했는지는 지문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④ S# 30에서 선배는 거침없이 배달을 하는 덕출의 모습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고 있다.

09 ⓐ의 S# 29 장면은 낮에서 밤까지 오랜 시간 동안 덕출이 한 행동을 짧은 시간에 담아내 사건을 속도감 있게 보이도록 연출해야 하므로 몽타주가 적절하고, ⓑ는 덕출이 편지를 모두 배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빠르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컷 투가 적절하다.

10 시나리오는 영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평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입체화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각적 요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웹툰의 특징이다. ② 활자와 그림을 활용해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가 빠른 것은 웹툰의 특징이다. ③ 영상으로 구현하기 힘든 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소재 범위가 넓은 것은 웹툰의 특징이다. ④ 그림을 활용한 컷 구성이나 연출 등으로 영상보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은 웹툰의 특징이다.

11 이 글은 시나리오로, 극 갈래에 해당한다. 시나리오는 사건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하지만, 관객과의 직접적인 교감이 가능한 것은 극 갈래 중 희곡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시나리오는 인물, 대사, 지시문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② 장면 번호(S#)를 구성단위로 하여 시공간을 표시한다. ③ 지시문에는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제시하는 행동 지시문과 무대 배경 등을 설명하는 무대 지시문이 있다. ⑤ 영상 상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수 용어를 사용하여 보여 준다.

12 S# 5는 채록이 덕출의 병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장면이다. 채록은 덕출이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발레를 그만두기를 종용하고, 덕출은 계속 발레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채록에게 보이면서 두 사람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덕출의 수첩을 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기에는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채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② 가족들이 발레를 반대하여 덕출이 포기하려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알 수 있으나, 반대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은 알 수 없다. ③ 성관은 덕출이 알츠

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록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 그와 갈등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록이 부상을 입어 실의에 빠진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덕출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덕출의 병을 알고 염려하는 마음을 발레를 그만두라는 말로 표출하고 있다.

13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시나리오는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②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소리치며)'와 같은 동작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말투와 표정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③ 덕출과 채록의 대화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④ '(고개를 끄덕이면서)'와 같은 동작 지시문을 통해 덕출의 심리 상태가 드러낸다.

14 ⓐ는 채록에 대한 덕출의 애정과 고마움을 드러내며, ⓑ는 덕출에게 발레를 그만두라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덕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등의 감정이 담겨 있다.

15 ㉯ 사건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 주는 것은 희곡,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 대사,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되는 갈래는 희곡, 시나리오이다. ㉳ 희곡과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 갈래이다.

오답 해설 ㉮ 장면의 전환이 자유로운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 장면(scene)은 시나리오, 장은 희곡의 구성단위이다. ㉱ 시간과 공간 설정에 제약이 심한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16 채록과 갈등을 빚었던 덕출은 친구가 묻힌 수목원을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한참 시간을 보낸다. 휴대 전화 속 사진을 보는 것을 통해 발레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이 발레를 하고 싶은 의지를 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교석이 묻힌 수목원을 찾아간 것은 병으로 발레를 할 수 없는 심정을 고백하며 위로받고자 한 것이다. ③ 병으로 연습실에 갈 수 없었지만, 오디션의 안무를 잊지 않기 위해,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 매일 공원에서 연습한 것을 알 수 있다. ④ 채록은 발레에 대한 덕출의 진심을 깨닫고 발레를 계속 하자고 제안하며 갈등이 해소된다. ⑤ 성산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채록을 발견한 덕출은 차에서 내려 매일 연습한 오디션 안무를 보여 주며 발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17 인서트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기법으로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하는 것이다. S# 58에서 덕출이 교석이 묻힌 수목원을 찾아와 울먹이는 장면은 덕출의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①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영상 기법은 페이드 인이다. ② 화면을 크게 확대하여 나타내는 영상 기법은 클로즈업이다. ④ 화면이나 대사를 겹치게 표현하는 영상 기법은 오버랩이다. ⑤ 회상하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이 어두워지는 영상 기법은 페이드 아웃이다.

18 그림을 활용한 컷 구성이나 연출 등으로 영상보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은 웹툰의 효과이다.

오답 해설 ①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이 된다면 다양한 곳에서 소비될 수 있으므로 상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시나리오는 대중적 언어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대중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③ 시나리오의 강점인 영상과 이야기가 결합되어 작품의 깊이와 완성도가 좋아진다. ④ 웹툰은 평면에 단순화한 그림으로 전달되는데,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면 역동적인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

19 로커에 붙은 덕출의 이름표, 다 닳은 발레 슈즈를 바라보는 채록은 발레에 대한 덕출의 열정, 알츠하이머로 어쩔 수 없이 발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덕출의 절망감 등을 알기 때문에 이를 아련한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승주는 덕출과 채록 사이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채록의 말을 끊고 덕출이 연습을 계속하도록 단호하게 연기하도록 연출한다. ③ 수목원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덕출,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덕출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컷 투로 연출한다. ④ 어둠 속에서 휴대 전화를 바라보게 되므로 전화 화면 속 사진이 잘 보이도록 휴대 전화를 클로즈업으로 연출한다. ⑤ 동작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연습했던 발레를 채록 앞에서 하는 덕출은 하고 싶었던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나비처럼 나풀거리는 동작으로 연출한다.

20 일흔 나이에 발레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덕출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

오답 해설 ②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꿈에 도전하는 덕출의 열정을 지지하는 것은 올바른 감상이다. ③ 두 주인공의 꿈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돌아보는 것은 올바른 감상이다. ④ 채록의 모습에서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 가는 것은 올바른 감상이다. ⑤ 제목의 의미가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열정이 번데기를 뚫고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는 나비와 같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올바른 감상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26~131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②	12 ③	13 ③	14 ②	15 ④	

▸ (나) 원고지_이근삼

핵심 정리

갈래	단막극, 희극, 부조리극
성격	풍자적, 실험적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해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과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줌.

01 (가)는 시나리오, (나)는 희곡이다. 막과 장을 구성단위로 하는 것은 희곡이며, 시나리오, 희곡 모두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② (가)는 장면의 전환이 자유로워 장소에 따라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④ (나)는 비현실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장치와 소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는 실제 벌어지는 일들과 반대되는 인물의 진술을 통해 관객이 극 중 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한다.

02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 20초 분덕에서 자세가 무너지며 주저앉는 덕출의 모습은 자세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재미를 주기 위함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몽타주는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편집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컷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몽타주는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편집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컷을 통해 덕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는 것을 보여 주기에 적당하다. ③ 〈보기〉에서 몽타주 기법은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덕출의 발뒤꿈치, 색깔이 다른 양말, 초침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를 집중시킬 수 있다. ④ 몽타주 기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이에 따라 점차 나아지는 덕출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3 덕출이 밸런스 자세를 1분 동안 버티는 것을 일주일 안에 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을 보고 두 인물 모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승주는 덕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② 채록은 덕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채록이 덕출에 대해 감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채록은 자신이 예상한 바와 다르게 흘러간 것에 대해 놀라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04 덕출은 집 안 곳곳에서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다 해남에게 등짝을 맞긴 했지만, 발레 연습을 들킨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덕출은 기회를 얻은 사실에 기뻐하며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를 외치며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② 채록은 무리한 조건을 걸어 덕출이 발레 배우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작전을 세웠다. ③ 승주는 채록의 조건을 듣고 다 틀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덕출의 성공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덕출이 해내자 박수를 쳐 주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⑤ 덕출은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그것을 지켜보는 채록은 사색이 되어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05 장남과 장녀는 해설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만 관객들이 극 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관객이 극 중 상황에 거리감을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장남의 상투적인 대사와 장녀의 반어적 성격을 띤 대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보기〉의 '기승전결 식의 플롯 개념을 버리고, 장면의 기계적 반복'을 바탕으로 (나)가 기승전결을 버리고 유사한 에피소드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며 극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등장인물들이 '장남', '장녀', '교수' 등 고유 명사 대신 보통 명사로 지칭됨으로써 개성이 사라진 현대인들을 풍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는 비현실적 소도구인 원고지 무늬의 의상, 쇠사슬 등이 나타난다.

06 장남은 아버지가 늘 쾌활하고 발걸음이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실제 교수는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장남이 우리 집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도리어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답 해설 ① 지루한 음악은 무의미한 일상과 교수의 피로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남의 대사와 상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수와 처의 외양 묘사를 통해 교수는 삶의 무게에, 처는 돈에 찌들어 의미 없이 살아감을 보여 준다. ③ 원고지 칸투성이 양복은 교수의 신분이자 교수가 규격화된 일상에 갇혀 있음을 나타낸다. ⑤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장녀의 대사와 달리 교수의 주머니를 터는 처의 행동은 관객에게 극 중 인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감을 갖게 한다.

07 (나)에 등장하는 장남은 부모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장남이 추구하는 꿈과 이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화자는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지 않고 /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 가네'라고 말하며 꿈과 이상은 젊은 청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② (가)의 채록은 덕출을 만난 이후 어떤 문제도 장애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③ (가)의 덕출은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이상을 잃을 때 늙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이가 열정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08 장녀가 지친 교수를 보고 달콤한 하품을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교수는 큰 하품 소리와 기지개를 켜는 행동을 통해 일상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규격화된 원고지 모양의 양복과 몸에 두른 무거운 쇠사슬을 통해 교수의 삶이 기계적이고 억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처는 교수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를 통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라와 같이 자신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정의하는 장남의 대사를 통해 그가 이기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09 교수의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는 처의 행위는 그가 물질적 욕망에 가득찬 인물임을 보여 주기 위한 장치이며 이것이 경제적 궁핍함을 상징한다거나 이것이 절망적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행동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쇠사슬은 교수의 자유롭지 못한 삶과 더불어 그가 무겁게 느끼는 책임감, 압박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지루한 음악은 극 중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음악은 교수의 등장과 함께 흘러나오며, 교수의 삶이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갇혀 있음을 상징한다. ④ 교수의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묘사는 그의 직업적 역할과 삶의 얽매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원고지는 교수의 글쓰기 작업과 연관되며, 그가 지닌 직업적 책임이 그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⑤ '마른 얼굴'과 '이마'의 '주름살', '찌푸린 얼굴'과 같이 교수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피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0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을 통해 덕출이 오디션에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덕출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작용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을 통해 밸런스 동작을 버티는 일에 생동감을 더한다. ③ 승주가 하는 대사 '어르신, 합격하셨어요!'는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으로 인해 극적 효과를 갖게 된다. ④ 〈보기〉에서 '효과음은 장면의 분위기나 감정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과 함께 스튜디오의 장면을 보여 준다면 오디션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과 함께 채록의 '망했다 싶은, 일그러지는 표정'을 잇는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채록이 덕출에게 느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11 채록은 승주가 자신의 알람이 울리는 효과음은 덕출에게 합격했음을 알리는 승주의 대사에 극적 효과를 부여해 준다. 전에 말을 차단한 것이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상대방에 대한 언짢음을 드러내는 반응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불가능해 보이는 채록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놀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덕출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승주는 덕출의 반응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덕출을 당황스럽게 쳐다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덕출의 자신감에 대해 채록은 빈정거림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나) 꿈, 견디기 힘든_황동규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희망적, 의지적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 꿈을 잃지 않는 의지
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색을 담고 있음.

12 덕출이 채록에게 '나도 무서워.'라며 무서움을 털어놓고 있지만 이어서 매일 발레 연습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발레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매일 공원에서 연습했던, 잊지 않으려고 했던,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다.'를 통해 덕출이 계속 발레 연습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덕출이 수목원에서 휴대 전화의 사진을 보는 장면에서 그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이 교차하는 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S# 58에서 덕출은 교석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묻고, 자신이 아프다는 고백을 하며 감정이 복받치고 있다. ⑤ 덕출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발레를 추는데, 이는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다.'라는 것을 통해 채록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기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3 수목원이라는 공간이 교석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덕출의 내면적 평화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덕출의 '나도 무서워'라는 대사는 그의 두려움과 고뇌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발레 슈즈나 고량주와 같은 소품은 인물의 감정과 배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발레 슈즈는 덕출의 꿈과 열정을 상징하고, 고량주는 교석과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④ 덕출이 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 모습과 수목원에서 교석에게 고량주를 따르는 장면 등의 전환을 통한 시간과 장소의 변화는 덕출의 내면적인 갈등과 회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덕출이 발레를 추는 장면은 그의 감정이 고조되는 클라이맥스를 형성한다. 이 장면은 그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채록과의 정서적 연결을 이루는 순간이다.

14 (가)는 시나리오로, 사건의 전달을 중시하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시나리오이다. 화자를 통해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서정 갈래인 (나)에 해당한다. ③ 서술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한 것은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④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으며, 자아의 세계화를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⑤ 작가가 체험한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교훈이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교술 갈래이다.

15 (가)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가)는 시나리오 대본으로 보여 주기 방식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나)는 시로서 운율이 있는 언어와 이미지 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③ (가)는 인물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갈등과 대립을 통해 드러낸다. (나)는 화자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의 아침처럼'과 같이 직유법을 통해 드러낸다. ⑤ (가)는 인물이 꿈에 도전하는 과정을 영상 기법을 통해, (나)는 꿈에 대한 인식 과정을 새벽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드러낸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2~133쪽

01 ⓐ: 온화하고 착하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 / 채록의 춤을 보며 막연히 동경하던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도전함. ⓑ: 어둡고 까칠한 성격 / 현재는 무용원을 휴학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음. 02 장면 번호, 그 장면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03 ⓐ: 채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을 일주일 안에 해낼 것을 요구한다. ⓑ: 채록은 덕출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레를 그만두라고 한다.

01 심덕출은 70세로 은퇴한 우편집배원이다.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 채록은 23세로 발레 무용수이다. 까칠한 성격으로 현재는 무용원을 휴학한 상태다.

02 장면 번호는 장면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03 ⓐ에서 채록은 덕출을 떼어 내려 어려운 요구를 한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34~13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시나리오 대본이므로 무대를 상상할 필요가 없다.

08 채록은 덕출을 떼어 내려 어려운 요구를 한다. 따라서 순순히 승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덕출은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15 덕출과 채록의 갈등이 승주의 중재로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16 내레이션을 통해 갈등의 전개 상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18 성산은 덕출의 아들로, 아버지의 꿈을 응원한다.

(4) 이와 개에 관한 명상_이규보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38~141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①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⑤	10 ①	11 ⑤	12 ③	13 ①	14 ⑤	15 ③	16 ⑤
17 ⑤							

01 이 글에는 장소의 변화나 정서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손님의 견해를 '정–반–합'의 단계를 거쳐 논박하는 변증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큰 것과 작은 것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표면적 사실(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 이면적 진실(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개, 이, 손가락 등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교훈을 전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 '나'는 개와 이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외형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손님은 편견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동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근본적 속성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나'는 손님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이의 죽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팠음을 이야기한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상대방은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한 상황이며 ㉠을 듣고 자신을 놀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은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한 상황이며 ㉠을 듣고 자신을 놀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정심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없다. ⑤ 과거 상대방의 잘못을 언급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04 '나'는 손님에게 '달팽이 뿔을 쇠뿔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에' 즉,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야 도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나'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 뒤에야 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진정한 소통이나 믿음, 경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거리가 멀다. ⑤ '나'는 손님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가만히 하여,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되면 함께 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도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5 손님이 개를 죽인 것이 아니라, 개의 죽음을 보고 나서 개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를 놀리는 게 아니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⑤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손님이 사물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06 소나 말, 떠돌이 개, 엄지손가락, 덩치가 있는 큰 짐승과 달리, 달팽이 뿔은 작고 하찮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07 이 글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모든 존재가 죽기를 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손님: 개가 죽어 마음이 아픔.), 승('나': 이가 죽어 마음이 아픔.), 전(손님의 반박: 개는 크고 이는 하찮음.), 결('나'의 결론: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③ 이 글은 '나'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며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큰 것과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해 비유적, 우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08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간이 아닌 생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적자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글과 〈보기〉에 모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②, ③ 이 글은 외형과 관계없이 사물의 본질이 같음을, 〈보기〉는 자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함께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속세와 멀어지는 것이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은 이와 관련이 없다. ④ 이 글과 〈보기〉에서 이나 벌레가 인간에게 해로운지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Plus 〈보기〉 나무에 깃들여_정현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자연 친화적
주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존
해제	나무를 집에 비유하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자연에 깃들여 살고 있음을 표현함.

09 이 글은 고전 수필로,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교술 갈래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갈래이다.

오답 해설 ① 교술 갈래는 경험과 깨달음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한다. ② 교술 갈래는 일상의 경험이나 성찰의 내용이 담기는 글이므로 꾸며 낸 세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교술 갈래는 일상적인 소재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깨달음을 전하는 글이므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극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10 외형적으로 대비되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를 나열하여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④ 이 글은 배경 묘사, 외양 묘사, 의인화된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교술 갈래는 글쓴이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이 성찰한 내용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이 글에서 '이'와 '나머지 손가락'은 작은 것, '개'와 '엄지손가락'은 큰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은 '이'를 하찮은 벌레로 여기고 있다. ② '이'는 작은 것, '개'는 큰 것을 의미하므로 외형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③ '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본질이 같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개'와 '이'의 죽음을 동일하게 여긴다. ④ 손님은 '개'가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며 앞으로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12 ㉢은 열거법과 점강법을 사용하여 크기가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손님은 개가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② '나'가 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 ㉡에서 손님이 놀라며 후에 자신을 놀린다고 여기는 말을 통해 손님은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에서는 개와 이의 죽음이 동일함을 말하며 생명은 본질적으로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⑤ ㉤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숙한 소재인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예로 들었다.

13 손님은 개를 덩치가 있는 큰 짐승으로 보고 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반면 이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므로 작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손님이 개를 이로운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③ 손님은 개를 불쌍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④ 손님이 이를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손님은 삶을 사랑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개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14 손님은 '나'에게 생명에 차등이 있다고 여겨 이를 토대로 대꾸하는 반면, '나'는 생명에 차등이 없다고 여겨 이를 깨달은 뒤에야 도에 관해 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은 덩치 큰 개와 하찮은 벌레인 이가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② 손님은 개를 불쌍히 여겨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죽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나'는 이의 예를 통해 손님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15 손님은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으므로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측은지심'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무위도식'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함.'을 의미한다. ②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의미한다. ④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의미한다. ⑤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컬음.'을 의미한다.

16 손님은 큰 동물의 죽음만이 불쌍하다고 보고 있지만 '나'는 작은 동물이라도 생명을 가진 것이면 그 죽음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긴 이유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은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손님과 '나'의 지식 수준이 다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손님과 '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나'는 손님이 편견을 버리고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함께 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있다. ④ 외형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손님이다.

17 글쓴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취급받는 이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④ 생명은 크기와 상관없이 근본적 속성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42~145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①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⑤

▸ (나) 수평 자세로 가마 누워 보는 세상_황선우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체험적, 사실적
주제	한 박자 쉬어 가는 태도의 중요성
해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한 박자 쉬어 가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는 편지글임.

01 손님은 '개'는 큰 짐승이고 '이'는 하찮은 벌레라고 여기며 외형의 크기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가 죽어 마음이 아프다는 '나'의 말을 손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개 역시 손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②, ④ 손님은 이를 하찮은 벌레로 여기고 개의 죽음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흔한 일인지 아닌지, 경험 여부에 따라 개와 이의 죽음을 생각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나'는 모든 존재의 생명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02 (나)는 편지글 형식의 수필로, 글쓴이의 진솔한 경험과 생각이 드러나는 교술 갈래에 해당하므로 가상의 서술자를 내세웠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혼비 씨'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이다. ② 할머니가 사용한 지역 방언, '가마~~~ 있으므 마, 한 개도 안 듭다.'를 떠올리며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③, ④ 할머니가 사용한 지역 방언, '가마~~~ 있으므 마, 한 개도 안 듭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불볕더위 속일수록 뭔가를 하려 들 때면 용이 쓰이니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더위를 덜 느끼게 된다는 어른들의 말은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할머니의 말을 통해 더운 날씨도 견디며 순응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와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더위에도 가만히 있으며 견디는 것은 물자가 부족한 시대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나)는 한 박자 쉬어 가는 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수필로 진취적인 태도로 고통을 극복하는 모습과 관련이 없다. ⑤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개성을 살리고는 있으나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할머니 말에 담긴 지혜로 보긴 어렵다.

04 (나)에도 더운 날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을 떠올리는 글쓴이의 경험이 담겨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작 시기에 따라 (가)는 고전 수필, (나)는 현대 수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경험이나 깨달음, 글쓴이의 개성 등의 구성 요소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④ 수필은 감동이나 교훈을 전하는 문학의 한 갈래이다. ⑤ (가)는 '나'와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편지글의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며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 (나) 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체험적, 성찰적, 생태적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해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함.

05 (가)에서 글쓴이는 외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의 글쓴이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의 잔해를 보고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둘 다 미물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히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에는 생명의 소중함, (나)에서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를 통해 자동차 사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났으나 이것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긴 어렵다. ③, ④ (가), (나) 모두 자연과의 합일이나 무위의 상태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는 문명의 이기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려고 하나,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06 (가)와 (나)의 글쓴이 모두 인간이 아닌 생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소중하다는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 (나) 모두 작은 존재도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작은 존재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에서는 외형적으로 큰 존재나 작은 존재 모두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작은 벌레도 소중한 생명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보호해야 함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⑤ (가), (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07 (가)에서는 '이, 나머지 손가락, 달팽이의 뿔, 메추리'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되었고 (나)의 '풀벌레'나 '공기 중의 미생물' 역시 작은 존재를 의미한다.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은 큰 것, '나머지 손가락'은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열 손가락'은 나머지와 의미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⑤의 '달팽이의 뿔', '메추라기', '풀벌레', '미생물'은 모두 작은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08 손님은 외형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은 개의 죽음을 보고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다. ③ '나'는 모든 존재가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고 말하며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④ 티베트의 승려들은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천을 두르고 다녔으므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고 볼 수 있다. ⑤ 문명의 이기가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이야기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09 (나)의 '풀 비린내'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혹은 자연의 처참한 모습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④ '풀 비린내'는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에서 난 냄새로, 문명의 이기에 의해 죽음에 이른 생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능성,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문명의 이기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10 '나'가 설정한 반명제는 작은 생물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의 예를 들어, 덩치 큰 짐승만 중요시하는 손님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이 개와 같이 큰 짐승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정명제이다. ② '나'는 손님의 말을 듣고 반명제를 설정했다. ④ '나'는 반명제를 통해 손님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으나, 손님은 이를 놀리는 것으로 여겼다. ⑤ '나'는 합명제, 즉 모든 생명체가 소중함을 깨달은 뒤에야 손님과 도를 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1 (가)의 주제는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이다. 그리고 〈보기〉의 내용은 환경을 보전하는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선입견을 버리고 자연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할 뿐 〈보기〉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② 자연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③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발전보다는 환경 보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보기〉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발전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6~147쪽

01 ⓐ: 마음이 아픔, ⓑ: 이의 죽음, ⓒ: 놀리는 것임, ⓓ: 죽음은 같음. **02** 이, 달팽이 뿔은 작은 것을 의미하고, 개, 쇠뿔은 큰 것을 의미한다. **03** (1) 이와 개라는 일상적 소재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2) 손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04** 개와 이는 크기만 다를 뿐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손님과 '나'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글은 큰 것을 의미하는 소재(개, 엄지손가락, 쇠뿔, 붕새 등)와 작은 것을 의미하는 소재(이, 나머지 손가락, 달팽이 뿔, 메추라기)의 대조로 주제를 전하고 있다.

03 이 글은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교훈을 전하고 있다.

04 이 글의 '나'는 사물의 크기와 상관 없이 모든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48~14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붕새는 큰 것을 의미한다.

05 '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의 죽음에는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6 '나'가 아니라 손님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외형의 크기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12 글쓴이는 달팽이의 뿔과 쇠뿔이 외형의 크기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고 여긴다.

14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사물의 본질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4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54~159쪽

01 ①	02 ①	03 ③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①	13 ①	14 ④	15 ④	16 ①
17 ①	18 ③	19 ③	20 ④	21 ③	22 ③	23 ⑤	24 ⑤
25 ②	26 ⑤	27 ⑤					

01 조사 '께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상대 높임은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③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께서'뿐만 아니라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한다. ④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에는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뵈다' 등이 있다. ⑤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는 '계시다', '주무시다' 등이 있다.

02 '민아'는 하굣길의 상황에서는 비격식체 중 해체를, 학급 회의 시간의 상황에서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말하는 상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대화에서는 말하는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다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자와 청자가 같으므로 친밀도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의 감정이 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화자가 청자에게 거리감을 느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03 '선생님,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는 청자인 '담당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상대 높임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목적어로 나타난 '할머니'를 높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② 부사어로 나타난 '담당 선생님'을 높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④ '학생들'을 청자로 하여, 이를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⑤ 주어로 나타난 '국어 선생님'을 높여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04 (나)는 부사어로 나타난 객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통해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할아버지' 대신 '동생'이 주체가 되면 '주무시다'는 '자다'로 바뀌어야 한다. ④ '선생님' 대신 '친구'가 객체가 되면 '여쭈다'는 '묻다'로 바꿔 '물었다'로 써야 한다. ⑤ (가)에서는 '할아버지'를, (나)에서는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05 '너 오시래'의 주체는 '너'이므로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너 오라고 하셔(오라셔).'가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의 '행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을 적절히 고치면 '아쉽지만 이 행사는 벌써 마감되었어요.'가 된다. ③, ④ ㉡의 '할머니의 다리'는 간접 높임을 통해 높임을 실현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할머니께서는 아직 다리가 아프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6 '민아는 숲길을 걷는다.'는 '걷는다'에서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해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울더라'에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반가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찾아왔다'에서 선어말 어미 '-았-'을 활용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내렸습니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멀고 먼'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살았었다'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07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로, 선어말 어미 '-겠-', 관형사형 어미 '-(으)ㄹ', 시간 부사 등으로 실현된다. '집에 갈 사람은 빨리 나와라.'에서 '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활용해 미래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내린다'는 현재 시제이다. ③ '남았다'는 과거 시제이다. ④ '입은'은 과거 시제이다. ⑤ '많다'는 현재 시제이다.

08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는 '-어 버리다'를 통해 완료상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 오다'를 통해 진행상을 실현하고 있다. ②~④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실현하고 있다.

09 '있었죠'(㉠)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간직했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였-'과 관형사형 어미 '-던'이 , '참아야 했죠'(㉢)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였-'이 쓰여 모두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말하죠'(㉣)는 '말하다', '있어요'(㉤)는 '있다'에서 모두 기본형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0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능동이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피동이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피동문의 부사어는 능동문의 주어가 된다. ⑤ 동일한 사건이라도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피동, 행위를 한 주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능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1 ㉠의 '업혔다'와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의 '잡혔다'는 모두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⑤ 주체인 '어머니'가 대상(부사어)인 '동생'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12 ⓑ~ⓔ는 '-되다'를 활용해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지만, ⓐ는 '-어지다'를 활용해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13 '찢-'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피동 접미사 '-가-'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쓰여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③ '반복되어'가 아니라 '반복하여'로 써야 한다. ④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쓰여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⑤ 피동의 의미를 가진 '-되다'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쓰여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14 '새로운 유물을 발굴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었다.'가 된다.

오답 해설 ①~③, ⑤ 모두 적절하게 바뀐 피동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15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화자의 입장에서 바꾸어 쓰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인용 표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직접 인용과,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이 있다. ②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가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③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것이다. ⑤ 간접 인용으로 표현할 때는 인칭, 지시, 시

간, 높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16 (나)의 '강연자는 설득력을 높이려고 인용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강연자는 자신의 강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는 강연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와 같은 인용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강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③ 〈보기〉는 강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한다. ④ 직접 인용에 해당하므로 재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는 강연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17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에 쓰인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라고'가 아니라 '앞 절의 일을 뒤 절의 까닭이나 근거로 둠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②~④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⑤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이다.

18 '친구가 나에게 "내 책 좀 반납해 줄래?"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자기 책 좀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가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직접 인용 표현이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히 바뀌었다.

19 '영서가 경호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영서가 경호에게 자신도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된다. 즉, '나'는 '경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 ㉢은 직접 인용 표현, ㉡,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② ㉠과 ㉡의 비교를 통해 '할게'는 '하겠다'가 됨을 알 수 있다. ④ ㉣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도 '거기'는 그대로 쓰인다. ⑤ ㉣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큰따옴표 안에 선생님의 원래 말 그대로를 인용해야 한다.

20 ㉯는 ㉮와 달리 '보관하다', '인도받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가 맡아서 관리하던 사물을 넘겨받는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 ㉯ 둘 다 문화재 환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 사용한 어휘를 통해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약탈하다', '환수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해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⑤ 어휘 선택을 통해 글쓴이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21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ㄷ)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ㄹ)

오답 해설 ㄱ. 사고 도구어는 대부분 한자어이다. ㄴ. 순우리말 어휘에 비해 의미의 범위가 좁고 전문적이다.

22 '구분하다(㉢)'는 사고 도구어, 나머지는 전문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건축 분야의 전문어에 해당한다.

23 전문어는 학문이나 직업 분야의 지식이 담겨 있는 어휘로, 같은 분야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② 전문어는 구체적인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③ 일상어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은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4 전문어를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사용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의학, 법률, 방송, 건축, 항공 등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이다. ② 전문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다. ③ 전문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전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25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을 뜻하는 말로,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사고 도구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모두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26 ㉠에는 한자어가 주로 쓰였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기초 어휘인 것은 아니다. ②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의미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④ 사고 도구어에 대한 설명이다.

27 '향토적'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골다운'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0~165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9 ④	10 ④	11 ①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④	20 ②	21 ①	22 ①	23 ③	24 ②
25 ⑤	26 ③						

01 '크시다'는 선생님을 직접 높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키'라는 신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한 간접 높임이다.

오답 해설 ①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선생님'이 서술어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②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는 '할아버지'가 서술어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③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는 '할머니'가 서술어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가 서술어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02 '찾으세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두루 높여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해체를 사용한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④, ⑤ 하게체를 사용한 격식체에 해당한다.

03 〈보기〉에서 '어머니께서는'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주체 높임 중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② '어머니'는 문장의 주체에 해당한다. ③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고 있다. ④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04 ⓔ의 청자는 '아버지', 주체는 '어머니', 객체는 '할머니'로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

오답 해설 ① ⓐ에는 객체 높임이 드러나지 않았다. ② ⓑ의 청자와 객체는 '아버지'로 높임의 대상은 동일하다. ③ ⓒ에는 주체 높임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의 주체는 '할머니', 청자는 '아버지'로, 높임이 대상이 다르다.

05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했다. ②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했

다. ③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했다. ⑤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인 부사어('선생님께')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했다.

06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은 시제가 아니라 동작상이다.

오답 해설 ① 시간 표현에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시제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한 동작상이 있다. ②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한다. ③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한다. ④ 시간 표현이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말한다.

07 〈보기〉의 ㉠에는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이 들어가야 한다. '살았었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면서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했다. ②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했다. ③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했다. ⑤ 선어말 어미 '-더-',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08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것은 시간 표현 중에서 동작상이 아닌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은 '-고 있다', '-어(아) 오다' 등을 통해, 완료상은 '-어(아) 있다', '-어(아) 버리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③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④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려면 진행상을 사용하면 된다. ⑤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려면 완료상을 사용하면 된다.

09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에서는 내일까지 일을 마치겠다는 주체의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③ 가능성이나 능력의 의미를 드러낸다. ②, ⑤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10 ㄹ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었-'은 현재와는 단절된 과거 상황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ㄴ에는 시간 부사어 '어제'가 사용되었다. ②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을 드러낸다. ③ ㄷ의 '본'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ㅁ의 '졌네'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했으나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1 ㉠은 '-아 오다'를 사용해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은 '-어 버리다'를 활용해 어떤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은 '-었-', ㉣은 '-았었-'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통해 미래 시제를, ㉣에서는 '-(으)ㄴ'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의 '-겠-'은 미래의 의미, ㉣의 '-았었-'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⑤ ㉠은 선어말 어미 '-ㄴ-', ㉡은 '-었-', ㉢은 '-겠-', ㉣은 '-았었-'을 통해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2 '부르게 했다'의 '-게 하다'는 주체('누나')가 대상('동생')에게 어떠한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해 피동을 실현하고 있다. ③ '-어지다'를 활용해 피동을 실현하고 있다. ⑤ '-되다'를 결합해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

13 〈보기〉의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와 ④의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는 모두 이중 피동으로,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어지다'는 피동 접미사가 아니다. ② 능동문이 아니라, 피동문에 해당한다. ③ '보다'는 동사이다. 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는 능동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피동 표현은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ㄷ),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ㄹ)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피동 접미사를 사용하거나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ㄴ.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15 '날씨가 풀렸다.'는 피동문의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므로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오답 해설 ②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처럼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④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⑤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다.'처럼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16 ㉠에서 인용문의 시간 표현인 '내일'이 ㉡에서는 '오늘'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은 직접 인용이며 ㉡은 간접 인용이다. ② 직접 인용에는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에는 조사 '고'를 사용한다. ④, 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한다.

17 '어제 선영이에게 "내일 학교에 갈 거니?"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제 선영이에게 오늘 학교에 갈 거냐고 메시지를 받았다.'가 된다. 즉, '내일'이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준수가 "발표는 우리 모둠이 하자."라고 제안했다.'가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서 큰따옴표가 삭제되고, 조사 '고'가 쓰였다. ② '연아가 "이 꽃 참 향기롭지."라며 꽃다발을 건넸다.'가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서 '이'가 '그'로 바뀌었다. ③ '어머니께서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서 '내가'가 '당신이'로 바뀌었다. ⑤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서 "너희 반 반장 나와."라며 화를 내셨다.'가 간접 인용문으로 바뀌면서 '너희'가 '우리'로 바뀌었다.

18 ㅁ에서 '민지'가 부른 '너'는 '나'에 해당하므로, '너'를 '나'로 바꾸어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ㄱ은 문장 종결 표현인 '폈구나'를 '폈다'로 서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ㄴ은 높임 표현인 '갔어요'를 '갔다'로 서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ㄷ은 시간 표현인 '내일'을 '오늘'로 서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ㄹ은 지시 표현인 '이'를 '그'로 서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9 ㄱ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가 된다. ㄱ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대명사('당신' → '내', '저(의)' → '자기(의)'), 높임 표현('-시(었)-' → (-았-)), 종결 어미('-습니까' → '-냐')에 변화가 생긴다. ㄴ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가 된다. ㄴ과 비교하면, 인용 조사('라고' → '고'), 인용절의 시간 표현('내일' → '오늘'), 종결 어미('-ㅂ니다' → '-ㄴ다')에 변화가 생긴다.

20 '좋은 결정'이라는 어휘로 볼 때 학생은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어려운', '부담스러웠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학생은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④ '방대하기', '자료가 풍부하고'는 모두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휘이다.

21 ㉠은 ⓐ가 부족해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책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사고 도구어 학습 도구로 보기 어렵다. ③ ㉠의 저자가 전문적으로 설명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④ ㉠이 전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이 기초 어휘만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를 사고 도구어로 바꾸면 '난해한'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알려진'을 대체할 사고 도구어로 '저명해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삼고 있을'을 대체할 사고 도구어로 '명명했을'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루고'를 대체할 사고 도구어로 '섭렵하고'는 적절하지 않다. ⑤ '받아들이는'을 대체할 사고 도구어로 '수령하는'은 적절하지 않다.

23 '그렇다면 보존 환경과 보존 처리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발표의 화제는 제시되었으나, 발표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면을 동원하고 있으나, 역사적 변천이 아니라 보존 처리 전후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④ 발표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나 당부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4 ⓐ, ⓒ는 사고 도구어이고, ⓑ, ⓓ, ⓔ는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 볼 수 있다.

2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표라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은 ⑤와 같이 고치는 게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고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달라졌다. ② 손상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표면 박락'을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적절하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치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6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외래어, 한자어, 외국어가 많이 쓰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발표 내용에 전문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발표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의 '접점이 있는 줄은 몰랐어.'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흥미가 생겼어.'는 주체적인 수용에 해당한다. ④,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66~167쪽

01 ⓐ: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 어머니, 함께 산책하러 나가요. **02** ㉠: 발생하고 있다, ㉡: 연구되고 있다 **03** '-겠-'은 ⓐ에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에서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04** 산불이 소방관들에 의해 초기에 잡혔다. –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05** (1)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예상되어진다'는 '-되다'와 '-어지다'를 사용한 이중 피동이다. **06** ㉠: 그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 ㉡: 희수가 민주에게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 부산에 간 친구가 나에게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07** 정의하다, 존재하다, 취하다, 실현하다, 부정하다 **08** 실존적

01 ⓐ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조사와 특수 어휘를 활용해야 하고, ⓑ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종결 어미를 바꿔 써야 한다.

02 물 부족 현상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발생하다'를 현재 시제와 진행상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술이 연구되는 중이므로 '연구되다' 역시 현재 시제와 진행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03 '-겠-'은 ⓐ에서 추측의 의미를, ⓑ에서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4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꾸면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05 이중 피동은 피동을 나타내는 요소가 중복되어 나타난 표현으로, 어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쳐 써야 한다.

06 ㉠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내일'은 '오늘'이 된다. ㉡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자기'는 '나'가 된다. ㉢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이곳'은 '그곳'이 된다.

08 '실존적'은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하는'이라는 철학 분야의 전문어이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168~16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07 '-고 있다'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완료상은 '-어(아) 있다', '-어(아) 버리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10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선어말 어미 '-는-/-ㄴ-'을 사용한다.

11 피동 표현은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된다.

13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20 사고 도구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2)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읽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2~177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①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①
17 ①	18 ②	19 ③					

01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름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② 3~7문단에 걸쳐 주장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각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1, 5문단에서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국제연합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보고 등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1문단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을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2 5문단에서 인간이 야생 동물과 접촉하면 할수록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인수 공통 감염병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과 반려동물의 접촉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의 '가축화된 동물은 (가)에는 귀납 논증이 쓰였는데, 〈보기〉로 볼 때 유전적 변화를 거쳐 왔기 때문에'와 '먹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며,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왕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미어캣이나 금강앵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8문단에서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사육을 방관하면 생태계 위협, 인간의 안전 위협 등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3 7문단에서 반려동물로 수입된 붉은귀거북, 늑대거북 등이 주인에게 버림받아 생태계에 유입되어 기존의 생물종을 닥치는 대로 포식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 년에 4,2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부분을 통해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붉은귀거북, 늑대거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적 변화를 겪어 먹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며,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각자의 서식지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해 온 야생 동물이 고유의 습성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박탈당하면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한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야생 동물 중 왕뱀은 독성이 없지만 몸으로 조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인을 공격하거나 가정을 탈출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은 야생에서 지내던 조상과는 다른 동물로, 사육 상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 따라서 고유의 서식지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개, 말, 당나귀, 소, 염소, 고양이, 양, 돼지, 오리, 닭, 거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먹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5 ⓐ와 ⓑ는 모두 고유의 습성이 있어 야생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이러한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동물들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와 ⓑ를 언급한 까닭은 야생 동물에게 고유의 환경과 습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와 ⓑ는 단독 생활을 하는 종이 아니다. ③ 먹이를 스스로 찾는다는 점은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④ ⓐ와 ⓑ는 야생에서의 환경과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동물들이다. ⑤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배척받는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6 글쓴이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가 된 회색앵무와 버려진 후 생태계를 교란하는 붉은귀거북 등의 근거를 들어 ㉮를 주장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와는 관련이 없다. ② 번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야생 동물이 일반 가정에서 길러졌을 때의 문제점이나, ㉮와는 관련이 없다. ③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이다. ④ 인수 공통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이다.

07 6문단에서 회색앵무는 서식지에서 무분별하게 포획되어 개체수가 급감해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 개체 수가 급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의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리 지어 생활하는 미어캣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금강앵무에게 고유의 습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야생 동물의 야생성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근거는, 독성은 없지만 조이는 힘이 강한 왕뱀이 주인을 공격하거나 탈출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인수 공통 감염병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근거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애완용 설치류가 야생 동물 판매업체에서 애완용 프레리도그와 접촉하여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유기되거나 탈출한 야생 동물의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붉은귀거북, 늑대거북 등이 기존의 생물종을 포식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08 논증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을 평가할 항목은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가, 이유와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유와 근거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적절한가,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설득 효과가 있는가 등이다. 이 글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주장을 드러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09 주장이 근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이 글은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이 사용된 글이므로 글에 사용된 ① 논증 방법이 설득 효과가 있는지, ② 자료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③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⑤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10 ㄱ. 논증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역적 논증 방법과 귀납적 논증 방법이 있다. ㄴ. 연역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ㄷ. 귀납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오답 해설 ㄹ. 연역 논증에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은 언제나 거짓이 된다. ㅁ. 개별적 사례로부터 이끌어 낸 결론이 모든 사례를 확인해 얻은 것이 아니므로 결론이 언제나 참이라 할 수 없다.

11 〈보기〉는 칠면조가 매일 관찰해 모은 자료로 내린 결론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가)에는 귀납 논증이 쓰였는데, 〈보기〉로 볼 때 참인 전제들을 가진 귀납 논증은 거짓 결론을 낳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참인 전제지만 거짓 결론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④ 전제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은 유추이다. ⑤ 결론 속의 정보가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인 논증은 연역 논증이다.

12 글쓴이는 백색 목록 제도가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야생생물법〉을 개정하고 백색 목록을 지정할 것을 법제화하였다고 했으나, 백색 목록 제정 능력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개, 고양이도 처음에는 야생 상태에 놓였다가 여러 세대를 거쳐 반려동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야생 동물도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사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② CITES(멸종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내용을 인용하여 야생 동물에게 야생 환경만이 최적화된 환경이라 볼 수 없고 일상 환경에서도 야생 동물의 습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야생 동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은 ㉡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③ 반려동물의 야생성이 훈련을 통해 억제되었으니, 야생 동물도 충분한 훈련을 하면 사육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④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접촉으로도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야생 동물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다.

13 이 글의 글쓴이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보기〉도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야생 동물이 유기되어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위험을 야기하므로 〈야생생물법〉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우리나라가 2022년에 〈야생생물법〉을 개정하고 2025년까지 백색 목록을 지정할 것을 법제화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이미 백색 목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면 야생 동물의 복지를 훼손하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②, ④ 〈보기〉의 글쓴이는 야생 동물 관련 규정이 미흡하며 외래 야생 동물을 유기했을 시 처벌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14 (나)는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라는 대전제와 '야생 동물 대부분은 사람과 함께 살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없고, 사람과 유대감을 나눌 수 없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야생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을 연역이라고 한다. '대전제－소전제－결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참이라고 추론하거나 어떤 주장이 참이라고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거짓이라고 추론하는 무지의 오류이다. ② 인신공격의 오류이다. 인신공격의 오류란 발화자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발화자'를 트집 잡아 그의 주장을 비판하는 오류이다. ④ 알렉산더,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⑤ 어려움을 견디고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마라톤과 인생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5 학생 1과 학생 2 모두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코로나19가 어떤 동물과의 접점으로 발생했는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학생 2는 자신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야생 동물이 가축화되는 것이 야생 동물에게 이점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백색 목록과 관련한 자신의 지식을, 학생 3은 자신이 본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한 배경지식을 언급하며 글의 내용과 비교하고 있다.

16 글쓴이가 사스의 예를 든 것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을 언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야생 동물과의 접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미어캣은 고유의 습성이 있는 야생 동물의 예에 해당한다. ③ 가축화된 동물이 야생 동물과 다르다는 점은 당나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백색 목록을 이미 도입한 벨기에의 예를 통해 백색 목록이 생소한 개념이 아님을 드러낼 수 있다. ⑤ 반려동물로 인기를 끈 결과 결국 멸종 위기에 처했음을 드러내는 예로 회색앵무를 든 것은 적절하다.

17 서두에 야생 동물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정의는 글의 말미에 나오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의 위험성을 첫째, 둘째, 셋째의 이유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③ '물론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 치르게 될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야생 동물의 사육을 제한하는 백색 목록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⑤ 글의 말미에 인간이 동물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18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는 야생성이 있는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③, ④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⑤ 이유들의 주장에 해당한다.

19 둘째 문단이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귀납 논증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례로부터 이끌어 낸 결론이 모든 사례를 확인해 얻은 것이 아니므로 결론이 무조건 참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산 것은 정당한 소유물이다.'라는 대전제와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라는 소전제를 바탕으로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이용은 정당하다.'라는 결론으로 구성된 연역 논증으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연역 논증에서 일반화된 원칙이 통념인지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 원칙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사실임을 입증할 때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 수 있다. ④ 우선 탑승권을 운용하고 있는 일부 나라를 사례로 들어 널리 일반화된 정당한 권리라고 결론을 도출했으므로 이것은 일부 나라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반적인 판단으로 규정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볼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에서 예상 반론에 대해 글쓴이가 '시간'과 '돈'이라는 비교를 통해 우선 탑승권 이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한 것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78~183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①	08 ③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④	15 ⑤	16 ①
17 ③	18 ③						

01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인을 감염된 동물의 타액, 혈액, 대소변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물리거나 긁히는 것 외에도 오염된 물건

이나 환경 접촉에서 발생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동물이 야생 동물인지 반려동물인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글쓴이가 반박하는 근거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개인이 야생 동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 증식된 개체 혹은 인공 사육된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고유의 습성은 쉽게 버리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 고유한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질병본부청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종 감염병의 60퍼센트가 동물에서 유래되었고 그중 약 72퍼센트는 야생 동물에서 유래되었다고 함으로써 반려동물과의 접촉보다는 야생 동물로 인한 감염병이 더 많다는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④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야생 동물이 야생성을 잃지 않고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02 이 글은 귀납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ㄴ)으로,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이끌어 낸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완전히 참이라 보기 어렵지만 사례가 충분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ㄹ).

오답 해설 ㄱ, ㄷ, ㅁ. 연역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03 '사육 상태에서 길러진 동물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은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장인 ㉠과도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⑤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다.

04 이 글에서는 가축화된 동물은 '유전적 변화를 거쳐 왔기 때문에 야생에서 지내던 조상과는 전혀 다른 동물이 된 것들'이라고만 언급할 뿐 이들이 겪은 유전적 변화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작은 동물이나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를 통해 답할 수 있다. ③ '야생 동물이란 사는 ~ 동물이 된 것들이다.'를 통해 답할 수 있다. ④ '결국 좁고 단조로운 ~ 걸리거나 죽기도 한다.'를 통해 답할 수 있다. ⑤ 왕뱀의 예를 통해 답할 수 있다.

05 〈보기〉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반드시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야생 동물의 사육을 하더라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박의 논거로 삼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야생 동물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보기〉는 무관하다. ③ 동물 복지와 〈보기〉는 무관하다. ④ 야생 동물을 인간과 완전히 격리시키자는 주장은 이 글과 무관한 주장이다. ⑤ 반려동물 허가제는 이 글과 무관한 내용이다.

06 ㉠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망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이 우리 생태계를 망치는 것과 생물 다양성이 상실되는 것은 무관하다. ③ 외래 유입종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④ 외래 유입종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⑤ 생태계가 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07 ㉮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삼을 때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반려동물을 삼는 일을 제약하는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야생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다. ③ 동물과 함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⑤ 제한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다.

08 〈보기〉는 백색 목록 제도와 흑색 목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따르면 ㉮는 기를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설정해 이에 해당하는 종만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의 사육을 완전히 금하자는 것은 아니다. ② 모든 종의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④ 몇몇 국가의 예가 있지만, 이들을 따라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허용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09 '바늘 끝만 한 일을 보면 쇠공이만큼 늘어놓는다'는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떠듦을 이르는 말'로, 프레리도그와 접촉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들이 적음에도 호들갑을 떤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나게 굴면 당연히 남의 욕을 받게 된다. ②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음을 이르는 말

10 글쓴이는 ㉠과 같이 말함으로써 백색 목록을 만드는 것을 토대로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색 목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②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③ 엄격히 규제하자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④ 관계 기관의 개입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11 ㉠은 2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생태계로 유출되어도 교란 위험이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은 '사고의 위험이 적으며,'를 통해 알 수 있다. ㉣은 '동물의 복지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고,'를 통해 알 수 있다.

12 '야생 동물을 가정에서 기를 수 없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길렀을 때의 문제점이다.

13 ㉮는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라는 뜻의 '유명무실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유야무야하다: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다. ③ 유유낙낙하다: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다. ④ 유일무이하다: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다. ⑤ 유효적절하다: 아주 효과적이고 알맞다.

14 [자료 1]은 야생 동물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의 문제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있는 제도인 백색 목록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의 문제점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야생 동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백색 목록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2]와 [자료 3]은 모두 가정에서 기르기 어려운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근거로 백색 목록이 있다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5 백색 목록에 있는 야생 동물은 개인이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이므로 이를 반려동물로 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전체 인구의 25.4퍼센트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반면 야생 동물들은 가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야생 동물의 복지, 사람의 안전,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를 통해 야생 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일임을 알 수 있다. ④ '벨기에, 네덜란드 등 ~ 지정한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6 ⓐ에 쓰인 '마땅히'는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라는 의미이나, ①에 쓰인 '마땅히'는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릴 정도로 알맞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답 해설 ②~⑤는 모두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17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A]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백색 목록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사회적 요구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목록의 범위가 함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백색 목록으로 지정된 동물종의 특성이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야생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그러나 백색 목록의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8 ㉠, ㉤에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과 ㉢에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에는 두 대상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비 추리가 사용되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4쪽

01 야생 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 때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반려동물은 사람과 유대감을 나눈다는 특징이 있다. **02**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 **03** (1) (다)에 쓰인 논증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2) • 결론의 정보나 사실적 내용은 모두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 • 제시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언제나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두 결론의 근거이다. 등

01 (가)에서 야생 동물은 사람과 같이 지낼 때 불안감을 느끼고, (다)에서 반려동물은 사람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03 연역 논증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으로,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의 과정에 따라 주장을 증명한다.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또한 연역 논증의 대전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고 소전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연역 논증은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8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1 귀납 논증은 근거가 참이라 하더라도 주장은 거짓이 될 수 있다.

05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고, 두 대상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은 '유추'이다.

08 야생 동물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3) 논증하며 토론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88~193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⑤
0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②	19 ④					

01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과 반론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경쟁적인 말하기이다. 상대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는 토의이다.

오답 해설 ① 토론의 정의에 해당한다. ② 토론을 할 때 주장과 이유는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상대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④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⑤ 토론을 할 때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공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02 [토론 준비하기]에 제시되어 있는 논제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의 유형 중에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토론의 유형 중에 입론 뒤에 바로 반대 신문을 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살피는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다. ③ 토론 전에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기 위해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두 명씩 짝을 이루어야 한다. ⑤ 필수 쟁점에 대해 주장과 이유, 근거를 종합하여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03 ㄱ. 논증을 구성할 때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갖추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ㄹ. 주장에 대한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논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ㄴ. 근거 자료가 다양하다고 해서 논증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ㄷ. 찬성 측은 필수 쟁점 중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해야 한다.

04 토론의 논제는 평서형의 긍정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해설 ①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정책 논제이다. ② 논제는 현재의 상황이나 제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 ③ 토론의 논제는 공동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④ 정책 논제는 찬반의 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05 (나)에서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여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토론은 공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였다. ④ 사회자는 토론이 반대 신문식 토론임을 소개하고, 토론자들에게 예의를 지켜 토론할 것을 당부하였다. ⑤ (나)에서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없다.

06 ㄱ. "로봇세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세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로봇연맹이 2022년 발표한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밀도는 1천 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ㄷ. "이러한 문제는 로봇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세로 늘어난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세로 마련한 재원을 로봇으로 인한 실직자를 교육하는 데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ㄹ. 국제로봇연맹의 보고서를 근거로 사람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ㅁ. 로봇세의 도입으로 로봇 산업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보다 로봇세로 마련한 재원을 노동자에게 투자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큼을 주장하고 있다.

07 "유럽 의회에서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봇세가 도입되었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유럽 의회의 사례는 로봇세 도입에 대한 초안만 만들었을 뿐 실행되지 않아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오답 해설 ① '반대 2'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문제(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가 심각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반대 신문은 상대방의 입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다. ④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이익보다 문제점이 크다는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측이 아니라 상대측의 입론 내용과 근거 자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에서는 그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08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필수 쟁점인 효과와 이익과 관련해 주장할 수 있으나 부작용을 입증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필수 쟁점을 파악하는 방법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인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심각성을 주장할 것이다. ② 찬성 측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인 해결 방안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③ 해결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찬반 측이 언급한 내용이 필수 쟁점과 관련한 내용이다. ④ 해결 방안에 대한 효과와 이익 발생 여부도 필수 쟁점이다.

09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지만, 반대 신문식 토론의 경우는 발언 순서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임의대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고 바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다음은 반대 측이 입론을 한다. ③ 입론은 필수 쟁점을 모두 다뤄야 하며 주장과 이유, 근거로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④ 반대 신문은 상대측 입론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말하기이다. ⑤ 반대 신문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상대측에게 추가적인 발언 기회만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Plus 〈참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입론과 반대 신문	찬성 1의 입론 → 반대 2의 반대 신문 → 반대 1의 입론 → 찬성 1의 반대 신문 → 찬성 2의 입론 → 반대 1의 반대 신문 → 반대 2의 입론 → 찬성 2의 반대 신문
반론	반대 1의 반론 → 찬성 1의 반론 → 반대 2의 반론 → 찬성 2의 반론
평결	배심원의 평결

10 '반대 1'은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나 모바일 뱅킹,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같은 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기술에 과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에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반대 1'은 입론의 처음 부분에서 주장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반대 1'은 로봇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특정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반대 1'은 로봇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로봇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11 가영: 반대 측 입론에서 일부 일자리는 감소하여도 특정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

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나영: 반대 측 입론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계들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어 로봇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다영: 반대 측은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근거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계에 세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라영: 반대 측 입론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경쟁력이 주요 로봇 산업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산업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로봇세를 걷었을 때 이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찬성 1'은 상대측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상대측의 근거와 대비되는 예시를 통해 상대측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로봇세의 과세 대상이 명확해지면 로봇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반대 신문이다. ②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인 ~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에서 '찬성 1'은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③ '찬성 1'은 무인 자판기나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 토론 전에 상대측의 입론 내용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등의 자료 등을 준비했을 것이다.

13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이다.

오답 해설 ① 문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이다. ② 로봇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였지만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지는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종사자 수 1천 명당 로봇 1대가 늘어날 때, 지역 노동자 수가 0.38퍼센트 늘어났다고 하였다. ③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이다. ⑤ 해결 방안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찬성 측의 입장이다.

14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경쟁력은 주요 로봇 산업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따르면 로봇세 도입으로 인해 로봇 산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1'이 반대 신문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② 종사자 수 1천 명당 로봇 1대가 늘어날 때, 지역 노동자 수는 0.38퍼센트 늘었다. ③ 항공기 탑승권 발급 기계는 과세되지 않는 기계의 예이다. ④ 하버드대 교수는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15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여, 토론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②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지 않았다. ③ 사회자가 논점에서 어긋난 토론자의 발언을 지적한 적 없다. ④ 이 글에서 청중의 평결은 나타나지 않았다.

16 토론의 입증 책임은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에 있다.

오답 해설 ⓑ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 논제는 정책 논제이다. ⓓ 주장에 대한 근거는 객관성, 사실성, 타당성을 갖춘 자료라면 보편적 사실이나 경험, 기사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 토론에서 항상 결정이나 평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17 '찬성 2'의 입론에 나타난 세부 주장은 '로봇세를 걷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와 '로봇세로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이다.

오답 해설 ① 로봇을 활용한 생산 활동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로봇 증가로 인해 단순 반복적 직종의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주장이 아니다. ② 근로 소득세 감소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주장의 이유이다. 또한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주장의 근거이다. ④ 근로 소득세 감소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주장의 이유이다. 또한 로봇으로 인해 관련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화될 것도 주장의 이유이다. ⑤ 근로 소득세 감소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주장의 이유이다.

18 '반대 1'은 찬성 측의 근거가 예상일 뿐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상당수의 근로자가 로봇으로 대체되면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로봇세를 걷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③ 로봇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로봇세를 걷는다면 실직자와, 로봇을 활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간의 빈부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반대 1'은 빈부 격차의 원인이 로봇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⑤ '찬성 2'는 두 가지 세부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모두 들어 입론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 1'은 로봇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찬성 측의 이유와, 국내 노동자의 60퍼센트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근거로 찬성 측이 주장을 뒷받침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19 '반대 2'는 '또한 로봇세 때문에 ~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에서 로봇세를 걷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면세자의 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반복 노동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미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로봇세를 통한 세수 확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로봇세를 통해 기업 간 빈부 격차를 만들 수도 있다. ⑤ '반대 2'의 근거 중 면세자가 대부분 단순 반복 노동자라는 사실은 추측에 불과하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94~199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③	11 ④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④
17 ①	18 ⑤						

01 토론의 필수 쟁점은 각 쟁점에 대해 모두 주장과 이유,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토론을 하기 전에 토론에서 다룰 논제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② 토론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③ 논증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는 주로 '~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⑤ 토론자의 근거는 설득력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02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ㄱ과 ㄹ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정책 논제의 예이다.

오답 해설 ㄴ.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 논제이다. ㄷ.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의 논제로 정책 논제의 필수 요건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ㅁ. 논제는 가치 중립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인스턴트 음식을 몸에 해롭다고 표현한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03 정책 논제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를 표현하되 찬성 측이 주장할 내용을 옳다고 표현하거나 반대 측이 주장할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필수 쟁점이 형성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정책 논제는 기존의 질서나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② 정책 논제는 평서형으로 진술해야 한다. ③ 정책 논제는 변화를 주장하

는 찬성 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⑤ 논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04 토론을 시작할 때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을 소개하고, 토론 순서를 지켜 줄 것을 토론자에게 당부하였다.

오답 해설 ① 사회자가 아닌 토론자가 논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③ 사회자가 토론자의 태도를 지적한 적은 없다. ④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한 적 없다. ⑤ 토론의 순서는 사회자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05 찬성 측의 입론 중 문제에 관한 입장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로봇 기술의 우수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로봇세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금이다. ④ 유럽 의회는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든 적이 있을 뿐, 로봇세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⑤ 찬성 측은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06 트집을 잡아 따져 묻는 것은 '힐문(詰問)'이다.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묻는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① '재원'은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을 의미한다. ② '초안'은 '초(처음)를 잡아 적음, 또는 그런 글발'을 의미한다. ③ '위축'은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함.'을 의미한다. ⑤ '초석'은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로, 어떤 것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7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의 입론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반대 2'는 유럽 의회가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은 까닭이 이익보다 문제점이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반대 신문을 할 때는 한 번의 발언에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유럽 의회가 로봇세 도입의 초안을 마련했던 것만으로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문하고 있다. ④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세계적인 아이티 기업 창업자의 말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08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②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④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로봇세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로봇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⑤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기계에 과세하지 않은 예를 들어 로봇에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09 가. 로봇 1대가 늘어날 때 지역 노동자 수가 0.38퍼센트 늘어난 것은 매우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해설 나. 권위자의 말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기계나 기술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로봇에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은 찬성 측의 입장이 될 수 없다. 다.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할 때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

10 '시기상조'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으로,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때가 아니라는 ⓐ와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간담상조'는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을 의미한다. ② '어부지리'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④ '만시지탄'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뜻한다. 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의미한다.

11 〈보기〉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부 있으나,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봇으로 인해 특정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기〉를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로봇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② 〈보기〉는 로봇세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위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는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보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 기계나 기술에 과세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다.

12 반대 측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으며, 로봇세 도입으로 로봇 산업이 위축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한국의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은 주요 로봇 산업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② 로봇세 도입이 아니라 로봇 산업으로 특정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⑤ 반대 측은 로봇 사용이 노동자의 고용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13 '과세 대상이 되는 로봇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면 로봇세를 부과해도 됩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 1'은, 반대 측이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가 로봇세의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로봇세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반대 측에 질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이 반대 측 입론에 대해 신뢰성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②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가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근거를 들고 있다. ③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 외에 기계에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로봇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⑤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 토론 전에 상대측 입론 내용과 근거에 대해 미리 파악해 두었을 것이다.

14 주장과 이유, 근거로 구성되는 것은 논증이다. 논제는 토론의 주제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반대 신문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대측 입론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단계이다. ③ 입론 과정에서 필수 쟁점에 대해 모두 논증해야 한다. ④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을 밝히는 단계이다. ⑤ 반대 신문에서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 자료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15 반대 측은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근거로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로봇세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일부 감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로봇세 도입의 해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반대 측은 로봇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큼을 주장하였다. ⑤ 지역 노동자의 수가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니라 로봇 1대당 노동자 수가 0.38퍼센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16 〈보기〉는 로봇세를 도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사례이므로 반대 측이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②, ③, ⑤ 〈보기〉는 찬성 측의 견해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17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은 예측일 뿐이므로 찬성 측의 근거로서 정확성이 없

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반대 측은 로봇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찬성 측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반대 측은 상대측의 근거가 예측일 뿐이라고 지적하였고, 주장의 이유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④ 찬성 측은 로봇세를 걷어 부족한 국가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찬성 측은 로봇으로 인한 실직자를 돕는 것이 기업가와 노동자 간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로봇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2'의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 소득자 중 ~ 단순 반복 노동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찬성 측은 '반대 2'의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③ '반대 2'는 로봇이 면세자를 대신한다면 로봇에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반대 2'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복지를 강화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00~201쪽

01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02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문제 03 '찬성 1'은 로봇세 도입을 통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 극복이라는 효과가 로봇 산업이 일부 위축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04 '반대 1'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05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다.

01 이 토론의 논제는 정책 논제로, 찬성 측의 입장을 담은 평서형의 진술로 서술해야 한다.

02 '찬성 1'이 언급한 '이러한 문제'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03 '찬성 1'의 쟁점을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이익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 극복이고, 비용은 그로 인해 위축되는 로봇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04 [A]에서 '반대 1'이 언급한 쟁점은 문제로, '반대 1'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05 [B]에서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인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O×로 마무리 check

본문 202~20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는 '입론 → 반대 신문 → 반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06 찬성 측은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반대 측은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증해야 한다.

12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과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질문을 해야 한다.

15 상대측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을 논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반론'이다.

19 사회자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206~211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②	06 ⑤	07 ④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②	16 ④
17 ⑤	18 ⑤	19 ⑤	20 ①	21 ⑤	22 ④	23 ⑤	24 ⑤
25 ③							

▶ (라) 동승_하종호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자아 성찰적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에 대한 반성
해제	아시안 젊은 남녀를 의식하는 '나'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아시안 젊은 남녀'의 태도를 대비해 주제를 드러냄.

01 '나무', '사랑'이 아니라 '그늘',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각각 '근심, 시련, 아픔', '이해, 배려, 위로' 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늘', '눈물'은 '근심, 시련, 아픔', '이해, 배려, 위로' 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등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여운을 주고 있다. ③ 1연과 2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며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종결 어미 '-다', '-가'의 각운과 시어와 시구 등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보기〉의 긍정문을 (가)에서는 '나는 ~이 없는(~지 않는) 사람을 ~하지 않는다'처럼 이중 부정으로 변화를 주어 표현의 참신성과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를 (가)의 1연 1~2행처럼 바꾸면 말하는 이의 간절함이 잘 드러난다. ② 〈보기〉를 (가)의 1연 1~2행처럼 바꾸면 평범한 문장에 변화를 주어 참신한 느낌이 드러난다. ③ 〈보기〉를 (가)의 1연 1~2행처럼 바꾸면 '그늘'과 '눈물'의 시적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④ 〈보기〉를 (가)의 1연 1~2행처럼 바꾸면 시의 리듬감이 강조되어 신선한 느낌이 든다.

03 ㉢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은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며 보듬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⑤ ㉤은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나서야 기쁨의 가치를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04 (가)의 화자는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알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껴 주는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도 '깊고 붉은 상처'를 가진 '잠 못 든 이'(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편지', '새살'(위로, 공감)이 되자고 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별을 통해 얻는 영혼의 성숙을 표현하고 있다. ② 사랑의 간절함과 영원한 기다림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난 때문에 소중한 감정들을 버려야 하는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⑤ 외로움은 모든 존재가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므로 이를 수용하고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05 〈보기〉에서 작가는 인생은 고통이지만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해야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②의 기업가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극복했지만 타인과 함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모두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글쓴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06 (가)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식의 중요성을, 〈보기〉는 '슬픔의 힘(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애정이 지닌 힘)'이라는 가치를 통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슬픔'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기쁨'은 무관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그늘'과 '눈물'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지닌다. 1연과 연 1~2행의 '그늘'과 '눈물'은 부정적 의미로, 1연과 2연 3행의 '그늘'과 '눈물'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가)에서 이중 부정은 문장에 변화를 주어 표현의 참신성을 드러내지만, 〈보기〉의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③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보기〉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등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삶의 부정적 측면까지 포용할 줄 아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 '기쁨'은 '행복', '따뜻함'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슬픔의 가치'를 부각하는 시어이며, 〈보기〉의 '기쁨'은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보이는 무관심과 이기심의 의미이다.

Plus 〈보기〉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설득적, 현실 비판적
주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
해제	'슬픔'은 긍정적 가치로, '기쁨'은 부정적 가치로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의 가치를 노래함.

07 [B]와 [D]는 모두 화자가 '그늘'과 '눈물'의 의미를 통해 따뜻한 삶의 가치라는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1연과 2연이 대응되는데 특히 [A]와 [C], [B]와 [D]가 각각 구조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 ② [A]에서는 화자가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햇빛의 가치를 드러내고, [C]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쁨과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늘'과 '눈물'이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③ [A]의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는 [C]에서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로 두 행으로 확장되고 있다. ⑤ [B]는 반짝이는 햇살을, [D]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관찰 대상을 달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08 '그늘'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배려, 포용력 등을 의미한다. 〈보기〉는 연탄이 자신을 불태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핵심 제재인 '연탄'은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 배려 등을 의미한다. (가)와 〈보기〉는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으로, '그늘'과 '연탄'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Plus 〈보기〉 연탄 한 장_안도현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성찰적
주제	타인을 위한 희생의 아름다움
해제	사람들을 위해 몸을 태우는 연탄의 속성을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함.

09 (다)에서는 '서리서리', '굽이굽이'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이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 관념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등에 설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저기', '여기' 등의 지시어를 사용해 이별 후의 상황을 드러내고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와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④ (가)에서는 '-다', '-가'를, (나)에는 '-거야'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는 '그늘'과 '햇빛', '눈물'과 '기쁨, 사랑'이, (다)에서는 초장의 '밤(임이 부재한 부정적 시간)'과 종장의 '밤(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이 대립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0 (다)의 ⓐ는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게 되는 부정적 시간이고, ⓑ는 사랑하는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는 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화자의 욕망이 좌절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다. ③ ⓐ는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을, ⓑ는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④ ⓐ는 화자의 기대가 좌절되는 시간이고, ⓑ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애틋함이 있는 시간이다. ⑤ ⓐ는 화자의 욕망이 좌절되는 시간을, ⓑ는 화자가 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성취가 실현될 긍정적 시간을 의미한다.

11 (가)의 '그늘'과 '눈물'은 '공감, 배려, 포용' 등을 의미하는 시어로, 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주제 의식을 언어의 형식을 빌려 형상화한다. ③ (나)는 사랑과 이별이 주는 감정의 무게와 복잡성을 물리학적 용어인 '사건의 지평선'에 비유하여 형상화한다. ④ (다)는 '서리서리'와 '굽이굽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⑤ 추상적 관념인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서 넣었다가 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치환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12 (가)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연민과 공감을 드러내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을 반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며 사는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화자의 인식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삶과 자연 질서와의 평화로운 공존의 필요성을 노래하지 않았다. ② (라)는 다문화 시대에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를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우리 사회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⑤ (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필요성을, (라)는 다문화 시대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드러냈다. 두 작품 모두 소외 계층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3 ㉰의 '천박한 호기심'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나'의 시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평범하게 대하지 못하는 '나'의 자책과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는 설의법을 통해 시련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세상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는 사랑이 지닌 가치도 눈물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눈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는 깃털 색이 다른 새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피부와 인종이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는 보조사 '도'를 사용해 '아시안 젊은 남녀'가 우리와 똑같이 일할 수 있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아시안 젊은 남녀'는 서로에게 집중하여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을 뿐 '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② '국철'을 타고 있는 '나'의 시선은 처음에는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동승'은 차, 비행기 등을 함께 타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⑤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시선에 가치 평가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15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을 지켜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공손성의 원리 중 '이익과 부담'의 상황을 고려하는 관용의 격률에 따르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은 늘리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은 줄여서 대화를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질의 격률에 따라 잔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켜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고, 명령이나 직접적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④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이나 태도의 격률을 지켜 대화 주제와 맞는 것을 말하고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 ⑤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의 말에 공감을 표현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16 ㉮의 민호는 범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했으므로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위배된다. ㉯의 찬준은 대화 목적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에 위배된다. ㉰의 석재는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위배된다. ㉱의 은채는 대화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에 위배된다.

17 ⑤는 산책을 가자는 친구의 제안에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 표현이다. 공손성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재요청하고 있다. ②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최대화하고 있다. ③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④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줄이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있다.

18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이미지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지와 수정은 빛나라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핀잔을 주는 언행을 사용하여 빛나라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오답 해설 ①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②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③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해당한다. ④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는 차이점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과 같이 상대의 말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19 (라)에서 선배는 책 정리를 잘 못하는 후배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데 이는 후배의 체면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책에 붙은 청구 기호를 보면 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와 같이 상대를 존중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서윤은 대화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 관련성의 격률에 위배된다. ② (나)에서 지호는 찬우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찬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③ (나)에서 찬우는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고, 강당 정리도 같이 하자며 자신이 부담을 지고 있다. ④ (다)에서 찬우는 지호의

자세를 칭찬하며 격려하지만, 지호는 운동 신경이 남달라 빨리 배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20 (가)에서 서윤에게 필요한 대화의 원리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라)에서 선배에게 필요한 대화의 원리는 상대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말하는 체면 유지의 원리이다.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건드리지 않고 적극적인 체면을 세워 주며 존중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양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질의 격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협력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의 목적이나 상대의 요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하는 것이다.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정보를 '자세히'가 아니라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많은 정보를 말할 필요도 없다.

오답 해설 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질의 격률) ②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양의 격률) ③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한다.(관련성의 격률) ④ 협력의 원리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하라는 원리이다.

22 공손성의 원리에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줄이고 이익을 주는 말을 늘리는 요령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말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말을 늘리는 관용의 격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은 줄이고 칭찬하는 말을 늘리는 찬동의 격률,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리는 겸양의 격률, 상대와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 말은 줄이고 의견이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리는 동의의 격률이 있다. 즉, 상대를 비방하는 말은 줄이되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을 늘려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해당한다. ②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③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에 해당한다. ⑤ 체면 유지의 원리에 해당한다.

23 지민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늘리는 관용의 격률을 지켜 말해야 한다.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민경이 네가 해 줄 수 있을까? 대신 나는 홍보 문구를 쓸게.'에서 홍보 문구를 쓰겠다는 것과 같이 자신이 부담을 안겠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민경이 네가 조장이니까 네가 그려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표현은 민경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에 위배된다. ② '다들 바쁘니까, 제일 한가한 민경이 네가 그리면 좋겠어.'라는 표현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에 위배된다. ③ '지난 축제도 네가 그렸으니, 이번에도 네가 그리는 게 좋겠어.'라는 표현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에 위배된다. ④ '민경이 네가 지난번에 그린 홍보 포스터 그림 멋있었는데, 이번에도 네가 그려.'라는 표현은 상대를 칭찬하지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에 위배된다.

24 체면 유지 전략 중 ㉠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전략으로 주로 위계 관계에서 나타난다. ㉡은 화자의 바람을 좀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전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유대감을 나타내고 상대를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은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등의 표현으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⑤는 자신의 바람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가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교수님께 강의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에 해당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②, ③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교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에 해당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④ '매우 죄송합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으로 ㉢에 해당한다.

25 담화 관습은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된 듣기 · 말하기의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말한다. (나)는 오늘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비격식체를 사용해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담화 관습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무너진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② 말을 조심히 하고 삼갔던 옛 선조들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④ 수평 호칭은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긴 담화 관습이다. ⑤ 기업에서 수평 호칭을 사용하여 임직원이 상호 평등과 존중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려는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제2회

본문 212~219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①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③							

01 '낯, 날, 낮, 났(다)'의 음절 끝소리는 모두 [ㄷ]이다.

오답 해설 ① '히읗'의 음절 끝소리는 [ㄷ]이다. ② '핥아'는 연음되어 [할타]가 된다.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④ '박', '밖', '키읔'의 음절 끝소리는 모두 [ㄱ]이다. ⑤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대표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02 유음화가 일어나면, 단어의 표기는 '칼날', '권력'이지만 발음은 [칼랄], [권력]이 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칼날', '권력'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유음화이다. ② 음운 변동 현상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③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⑤ '칼날[칼랄]'은 'ㄹ'이 'ㄴ'의 앞에 있고 '권력[권력]'은 뒤에 있지만 모두 음운이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3 'ㅌ'과 모음 'ㅡ'가 만나는 것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므로 '걷을'은 연음되어 [거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굳이'는 구개음화로 인해 [구지]로 소리가 난다. ③ '피붙이'는 구개음화로 인해 [피부치]로 발음된다. ④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ㅈ, ㅊ]으로 음운이 변동하는 현상이다. ⑤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로 [구티다]가 되었다가 구개음화로 인해 [구치다]와 같은 변화 과정을 보인다.

04 '먹고[먹꼬]'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데, 이는 음운의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 (나)와 (다)도 음운의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다.

오답 해설 ① '걷는'에서는 (나)의 비음화만 일어난다. ② '윤리'에서는 (나)의 유음화만 일어난다. ③ '닫히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므로 (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슬프다'가 '슬퍼'로 활용되며 음운이 변동하는 것은 'ㅡ' 탈락에 해당한다.

05 ㉢에서 '코끝이'의 [코끄티]는 (다)의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코끄치]로 발음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이 나타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나)의 '유음화'가 적용돼야 하는데 (나)의 '비음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이 나타난 것이다. ② ㉡은 (나)의 '비음화'가 적용돼야 하는데 (나)의 '유음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이 나타난 것이다. ④ ㉣은 (가)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⑤ ㉤은 'ㄴ' 첨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이 나타난 것이다.

06 '첫여름'은 첨가가 한 번([첟녀름]에서 'ㄴ' 첨가), 교체가 두 번([천녀름]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천녀름 → 천녀름]에서 비음화) 일어난다. '겉모양'은 교체가 두 번([걷모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걷모양 → 건모양]에서 비음화)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꽃향기'는 교체가 한 번([꼳향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축약이 한 번([꼬탕기]에서 거센소리되기) 일어난다. '물받이'는 교체가 한 번([물바지]에서 구개음화) 일어난다. ② '흙냄새'는 탈락이 한 번([흑냄새]에서 자음군 단순화), 교체가 한 번([흥냄새]에서 비음화) 일어난다. ③ '급죽하다'는 교체가 한 번([급쭉하다]에서 된소리되기), 축약이 한 번([급쭈카다]에서 거센소리되기) 일어난다.

07 ㉠ '흙화덕'에서 '흙'이 [흑]이 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드넓다' '넓'이 [널]이 되면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흙화[흐콰]'와 '끊겼[끈켤]'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끊겼[끈켤]'과 '겉[걷]'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 '끊겼다'와 '드넓다' 모두 '다'가 [따]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8 '물약'은 'ㄴ'이 첨가된 이후 '냑'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략]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강릉'은 '릉'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강능]으로 발음된다. ② '물난리'는 '난'의 'ㄴ' 두 개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된다. ③ '잡는다'는 '잡'의 'ㅂ'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잠는다]로 발음된다. ⑤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이후 '색'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09 '우는'은 '울- + -는'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많아[마:나], ② 낳은[나은], ④ 쌓이다[싸이다], ⑤ 좋아서[조:아서]는 모두 'ㅎ' 탈락이다.

10 '따르- + -는'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르는'은 '따르다'의 활용형 중 하나일 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ㅡ' 탈락 ② 모으- + -아라 → 모아라: 'ㅡ' 탈락 ③ 크- + -어서 → 커서: 'ㅡ' 탈락 ④ 아프- + -아서 → 아파서: 'ㅡ' 탈락

11 〈보기〉의 '내복약[내:복약] → [내:복냑] → [내:봉냑]'에서는 'ㄴ' 첨가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난다. '영업용'도 'ㄴ' 첨가([영업뇽])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영엄뇽]이 된다.

오답 해설 ① '꽃망울[꼳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눈요기[눈뇨기]'는 'ㄴ' 첨가 현상만 일어난다. ④ '툇마루[퇸:마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휘발유[휘발류]'는 'ㄴ' 첨가 이후 유음화가 일어난다.

12 '밟는'은 [밥:는]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고 [밤:는]으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13 ㉠은 '풀잎[풀닢 → 풀닙 → 풀립]'의 과정에서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가 일어난다. ㉡은 '읊네[읖네 → 읍네 → 음네]'의 과정에서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난다. ㉢은 '벼훑이[벼훌티 → 벼훌치]'의 과정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첨가('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교체(구개음화)만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 ㉡은 모두 세 번씩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②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ㄹ'이다. ③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자음 동화이다. ㉠에서 일어나는 유음화, ㉡에서 일어나는 비음화는 모두 자음 동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유음화는 'ㄴ'이 앞의 'ㄹ'로 인해 [ㄹ]로 동화된 것이고, ㉢의 구개음화는 'ㅌ'이 모음 'ㅣ'로 인해 [ㅊ]으로 동화된 것이다.

14 '이랑'이 조사일 경우에 표준 발음은 [바치랑](ⓐ)이다. '이랑'이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이라는 뜻을 지닌 명사라면 중간에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은 [반니랑](ⓑ)이다. 따라서 조사 '이랑'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명사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ㄷ, ㅌ'이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15 (가)의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의 인도 출신 친구 아누팜은 자국에서 출연한 영화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

연한 영화로 유명해졌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한국인 배우에게는 '의외로 ○○예술종합학교 출신'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② 글쓴이는 '의외로'라는 표현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글쓴이는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회에서 '의외'의 존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검색 결과에 붙은 '의외로 ○○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는 설명을 보고 '의외로'라는 단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16 (가)의 주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외국인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한국 영화 산업에서 외국인 배우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② (가)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 외국인이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할 때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의 글쓴이는 외국인 배우들이 한국에서 연기 활동을 하려면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17 '무우', '돼지고기 썬 것', '닭알지짐' 등의 어휘를 통해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메밀국수, 고기, 배, 김치 등의 재료는 남북한 모두에서 사용하므로 동질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③ 남북한의 표기법 차이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는 이질성과 '냉면'이라는 음식의 개념이 남한과 북한이 같다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④ 면 조리법에 대한 옛 기록들이 남북한 모두에 공통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조리법이 유사한 동질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⑤ 냉면의 역사적 기록들이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인식되는 것을 통해 동질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18 남한과 북한 중 한 나라라도 강압적으로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려 하면 안 되며 남북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언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생활과 관련된 안내서를 만든다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③ 남한과 북한의 어휘가 수록된 사전을 계속해서 편찬한다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④ 남한과 북한이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알아 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19 '북측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기 ~ 다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측은 외래어 표기를 통일하려고 노력했으나, 북측은 하나로 통일하기 어려움을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겨레말큰사전》에서 남측과 북측은 복수 외래어를 다수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다. ②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및 해외 동포 공동체의 언어를 집대성해 만드는 남북 공동의 한국어 사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겨레말큰사전》은 남북 간 비정치적 교류 사업이다. 그리고 남북 어문학 분야 학자들이 협력하여 펴내는 최초의 사전이다. ⑤ 《겨레말큰사전》에는 남북이 합의하지 못한 언어적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통일 후의 사회 언어학적 문제에 대비해 통일 표기법을 마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반론을 준비하고, 논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에서는 글의 구조를 계획하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한다. ③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④ 관심 있는 사회적 쟁점을 선택하고, 그 쟁점이 왜 중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⑤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1 예상 독자는 학교 학생 및 학생회 구성원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아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주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② 글의 목적은 학생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③ 이 글의 예상 독자는 학교 학생 및 학생회 구성원이다. ④ 글을 실을 매체는 학교 소식지, 학생회 게시판,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3~5문단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교실에서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물 절약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산림을 조성하고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라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보기〉의 '본론 1-가, 나'에 학교의 전기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 남기지 않기의 구체적 방법들이 잘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서론'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의 개념 및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므로 '본론 2'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결론'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할 때, '본론'에서 언급된 각 실천 방안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적절하다. ⑤ '본론 2-나'의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삭제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24 ㉠은 '학급 환경 미화'와 관련한 글쓴이의 개인적 생각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법,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라는 앞뒤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공기 정화 식물이 환경 미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④ 공기 정화 식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⑤ 식물 이외에 공기 정화가 가능한 것을 추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학생들이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는 실천 방안을 통해 의류 생산 및 폐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탄소 배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서론에서 문제 제기로 활용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② 탄소 중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면 개인의 소비 습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적으로 강조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⑤ 결론에서 활용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다.

제3회

본문 220~231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④	20 ⑤	21 ⑤	22 ①	23 ③	24 ①
25 ③							

01 화자는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을 통해 절망 속에 희망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종결 어미 '-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시상 전개에 따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③ 화자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고 말하며 절망 속에 삶의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가 보고자 하는 대상인 '고운 노을'은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02 (가)에서 땅끝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면서 삶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서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땅끝은 이상적인 공간(④), 동경하는 공간(①)을 의미하며 인생의 고비(②), 삶의 위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역설법을 통해 땅끝은 절망 속에 희망(③)을 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기도 하다.

03 (가)는 종결 어미 '-지', (나)는 종결 어미 '-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ㄴ). (가), (나) 모두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ㄷ). 둘 다 함축적 언어를 활용하는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ㄹ).

오답 해설 ㄱ. 산문시에 대한 설명으로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04 ㉢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상에 도달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상 추구가 좌절된 후 삶에 대한 화자의 불안한 심정이 '삐걱삐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② '나비를 쫓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땅끝'을 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파도가 달려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5 (가)에서 '그네'는 노을을 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기〉에서 '그넷줄'은 이상 세계를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화자를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지 않다. ③ '그네'는 이상 세계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에서는 반복적인 행위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6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초점화된 화자는 나타나나, 다양한 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광복 직후 서울을 배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드러낸 세태 소설이다. ③ 이 글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주인공 미스터 방은 외세에 빌붙어 출세를 도모하는 인물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다. ⑤ 인물의 외양적 특징과 표정을 과장하는 등 희화화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7 백 주사가 미스터 방의 비위를 맞추며 빼앗긴 재산을 찾고자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 주사는 마흔여덟 살로 미스터 방보다 열한 살이 많다. ② 미스터 방은 의기양양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미스터 방이 동양 삼국 물을 다 먹어 보았다고 말하며 청어, 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미스터 방은 신사, 방 선생으로 불리고 있지만 행동은 예전에 하던 버릇이 무심중에 나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8 미스터 방과 백 주사 모두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① 미스터 방에 대한 설명이다. ② 미스터 방과 백 주사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③, ④ 백 주사에 대한 설명이다.

09 ㉣은 백 주사의 속마음을 제시한 부분으로, 백 주사가 자신이 권세를 누렸던 일제 강점기를 좋은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미스터 방은 미군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을 통해 미국을 추앙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백 주사는 나이도 많고 지체도 높은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미스터 방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 ③ ㉡을 통해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경찰서 주임이던 친일파 아들을 두어 권세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⑤ 늙은 부모님께 의지하여 지내던 모습을 통해 미스터 방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0 한순간의 실수로 미스터 방의 처지가 몰락할 것임을 보여 주어 미스터 방의 부와 권력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풍자와 비판의 대상인 미스터 방의 몰락은 웃음을 유발하므로 연민의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상황을 합리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해학적인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백 주사의 상황이 바뀔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S 소위를 정당하게 평가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⑤ 미스터 방이 S 소위를 향해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1 ㄷ. '~ 있었더란다'와 같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이 설명하며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ㄹ. 백선봉의 집에서 나온 물건들을 한 줄에 하나씩 배열하여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일 행각으로 호화롭게 살며 재산을 모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대조적인 소재를 제시하지 않았다. ㄴ. 물건들은 호화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들이며 극적 반전을 이끌지도 않는다.

12 미스터 방의 현재 상황을 나열하고 있으나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백 주사는 미스터 방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의 도움으로 부귀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참고 있다. ③ 재물을 도로 찾을 수만 있다면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인 부귀를 추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백 주사는 광복 후에도 친일 행위를 반성할 줄 모르고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인물이다. ⑤ 백 주사 앞에서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으나 미군 장교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통해 미스터 방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13 ㉤는 '이 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의미한다. '집의 앞뒤나 어떤 곳에 닦아놓은 평평한 땅'은 '마당'에 대한 설명이다.

14 채록이 덕출에게 어려운 발레 동작을 제안했을 때 덕출은 해맑게 웃으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승주이다.

오답 해설 ① 승주는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칠 게 아니라면 복학하든지 나가라고 채록에게 말하고 있다. ② 채록은 발레를 배우러 온 덕출을 노려보는 등 못마땅해 하고 있다. ③ 채록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채록이 발레 연습하는 것

을 보고 덕출은 발레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15 ㉣은 지시문으로, 등장인물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보기〉로 보아 ㉠의 대사, ㉡의 지시문, ㉢의 장면 번호, ㉤의 오버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16 채록은 덕출에게 일부러 어려운 발레 동작을 해 오도록 제안하여 그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가능성이 보여야 자신도 스스로 의욕을 갖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곤 있지만 '하긴 뭘 해'라는 말을 통해 덕출이 동작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덕출을 가르치는 것으로 승주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17 ⓑ는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오답 해설 ㄴ은 '내레이션', ㄷ은 '컷'에 대한 설명이다.

18 (가)에서 채록은 덕출의 병세가 걱정되어 발레를 그만두기를 바라지만 덕출은 계속 발레를 하고 싶어 하여 둘 사이에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채록은 덕출의 병세가 걱정되어 덕출이 발레를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가르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는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 채록은 이미 덕출의 병을 알고 있다. ④ (가)에서는 발레를 그만두기를 바라는 채록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덕출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⑤ (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다.

19 (가)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 (나)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다. 둘 다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촬영과 관련된 특수 용어를 사용한다. ② (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많은 편이나 (가)는 제약이 거의 없다. ③ 시나리오인 (가)는 장면으로 구분되고 희곡인 (나)는 막과 장으로 구분된다. ⑤ (가), (나) 모두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극 갈래에 속한다.

20 교수는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들리는 하품을 하는데 장녀는 이를 '달콤한 하품'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에 대해 무관심한 딸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남이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한 것과 달리 교수는 찌푸린 얼굴에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다. ② 원고지 무늬는 규격화된 틀 속에서 구속받고 사는 교수의 삶과 번역을 하는 직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철문이나 쇠사슬은 교수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④ 장남의 말을 통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21 덕출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덕출이 주소를 다 외운 모습을 기특해하는 선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지시문이 어울린다.

오답 해설 ① ㉠ 선배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사용하여 과거 사건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② ㉡ 덕출이 동네 주소와 위치, 주민을 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들을 따로따로 촬영하여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몽타주 기법이 적절하다. ③ ㉢ 덕출의 피곤해 보이는 눈이 잘 보이도록 클로즈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 덕출이 첫 편지를 배달하는 모습에서 마지막 편지를 배달하는 상황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컷 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2 (가)는 고전 수필로 교술 갈래, (나)는 시나리오로 극 갈래, (다)는 소설로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 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등을 지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② (나)는 (다)와 달리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③ (나)와 (다)는 갈등 중심의 문학으로 모두 허구적인 사건을 그린다. ④ (가)는 교술 갈래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한다. ⑤ (가), (나), (다) 모두 문학 작품에 해당한다.

23 ㄱ, ㄷ 교술 문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ㄴ. '나'와 '손님'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ㄹ. '이'와 '개'를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24 미스터 방과 백 주사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다)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③ (다)에는 미스터 방을 괄시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④ 백 주사는 미스터 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를 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다)에서 미스터 방은 교양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고 있다.

25 ㉢에서 서술자는 말을 건네듯 서술하는 구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손님은 개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고 있다. ② 덕출은 먼저 죽은 친구의 비석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덕출의 슬픈 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신사', '방 선생', '미스터 방' 등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미스터 방의 언행과 어울리지 않아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전하고 있다.

제4회

본문 232~23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③
0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④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③	21 ⑤	22 ①	23 ②	24 ①
25 ③							

01 '잡수시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고, '여쭤보다'는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특수 어휘이다. 따라서 높임의 대상인 주체와 객체는 모두 '할아버지'이다.

오답 해설 ① 청자인 '엄마'에게 해요체를 써서 높임을 실현하였고, 주체인 '할머니'를 높임의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② 주체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으나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돌아가시다'는 선어말 어미 '-(으)시-'가 쓰인 것이다. ③ 청자(상대)를 높이기 위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고, 주체의 말을 낮추는 특수 어휘 '말씀'을 사용하였다. ④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였고, 주체의 말을 낮추는 특수 어휘 '말씀'을 사용하였다.

02 '께서'와 달리 '-(으)시-'는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웃음'을 높여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갑시다'는 하오체의 청유형 표현이다. ② '주문하신'은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나오셨습니다'는 '음료'를 높인 것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④ '말씀하신'의 주체는 '어머니'이고, 청자도 '어머니'이므로, 주체 높임의 대상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일치한다. ⑤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였고, 해요체를 통해 청자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내었다.

03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오답 해설 ①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②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③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선어말 어미 '-더-'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④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현재와는 단절된 느낌을 준다.

04 '열려 있다'는 완료상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② '-으면서'와 '-고 있다'를 활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였다. ③ '-어(아)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④ '-어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내고, '-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⑤ '-어(아) 오다'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05 ㄱ. '부과되다'는 명사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 '-되다'가 쓰였다. ㄷ. '미루어지다'는 동사 어간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ㄴ. '잊혀지다'는 동사 어간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 '-히-'와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함께 사용한 잘못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ㄹ. '열려진'은 동사 어간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 '-리-'와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함께 사용한 잘못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ㅁ. '물렸다'는 동사 어간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사동 표현이다.

06 피동 표현은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주체보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날씨가 풀리다.'와 같은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 ②, 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능동문은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때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③ 피동 표현은 주체가 다른 힘으로 인해 움직였음을 나타내어 주체보다 대상을 강조하게 된다.

07 〈보기〉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주체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의도 때문에 피동을 쓴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제품화되다' 등은 명사에 피동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② 뉴스나 기사에서 피동문을 사용하면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④ '쓰이다'는 '쓰다'라는 동사 어간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 ⑤ 피동 표현은 주체의 의도가 아닌 외부적 힘에 의해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주체의 의도가 부각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08 ㉡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높임의 종결 어미 '-세요'는 유지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에 사용하는 조사는 '라고'이고, 간접 인용에 사용하는 조사는 '고'이다. ② ㉠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종결 표현의 변화는 없었다. ④ 직접 인용에 사용하는 큰따옴표를 간접 인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신문 기사나 보도에서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글의 사실성과 현장성이 높아진다.

09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대부분 한자어이고,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 '약탈, 환수'는 빼앗겼던 문화재를 되찾아 온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고, '보관, 인도'는 상대가 맡아서 관리하던 사물을 넘겨받는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난다. ②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의 어종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의미가 유사한 단어라도 표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③ 외래어보다 한자어를 사용할 때 예스럽고 전통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④ 전문어는 학문이나 직업 분야의 지식이 담겨 있는 어휘이다. '도리', '서까래', '종도리', '처마도리' 등은 건축 분야의 전문어라고 할 수 있다.

10 논설문에서 논증을 구성할 때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정보이다.

오답 해설 ① 논설문의 논증을 파악할 때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③ 이 글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장을 강화하는 귀납적 논증 방식의 논설문이다. ④ 논설문을 읽을 때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읽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⑤ 논증의 신뢰성은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부합하는 사례 등을 통해 파악한다.

11 (가)의 중심 내용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름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중심 내용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다. ② (가)의 중심 내용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했다는 것이 아니다. ③ (가)의 중심 내용은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④ (가)의 중심 내용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다.

12 야생 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는 곳이나 생태가 아닌 '가축화' 여부이다.

오답 해설 ①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위적으로 번식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를 거쳐 왔기 때문에 야생에서 지내던 조상과는 전혀 다른 동물이 된 것들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야생 동물들은 가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동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야생 동물들은 가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위적으로 번식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를 거쳐 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에 의해 길러지고 유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가축화되었다.

13 이 글의 주장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다. (다)에 이유로 제시된 것은 '야생 동

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해당 야생 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이며, 근거로는 미어캣과 금강앵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① 근거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나,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②, ③, ⑤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다)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한 이유는 (다)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미어캣이나 금강앵무와 같은 동물에게 맞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야생 동물의 복지를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4 야생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한 사례가 아니라, 야생 동물을 길들여도 야생성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와 야생 동물로 인한 감염병 발생 통계 자료를 통해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로 감염병의 문제를 제시하였고, 근거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발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② 인간이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장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③ 주장에 대한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나 조건 등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④ 왕뱀이 사람을 공격한 사례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15 야생 동물이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여 인간이 입는 손실은 기존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수입 비용과는 무관하다.

오답 해설 ① 붉은귀거북, 늑대거북, 악어거북은 반려동물로 수입된 야생 동물로 주인에게 버려지면서 생태계를 크게 교란하였다. ② 붉은귀거북, 늑대거북, 악어거북이 그 예이다. ③ 회색앵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주장에 대한 이유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16 ㄱ에 대해 글쓴이는 사람이 오랫동안 길들인 야생 동물이라도 야생성이 사라지지 않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ㄴ에 대해 글쓴이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적이 없다. ② 글쓴이는 어떤 사람들은 사육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번식되고 '사람에게 길든 야생 동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생 동물은 오랫동안 길들였다 해도 야생성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공격, 방어 행동 등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공격이나 방어 행동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야생 동물을 기르려는 사람들로 인해 야생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 사례를 들었으나, 야생 동물을 기른다고 해서 모든 야생 동물이 멸종될 것이라 주장하지는 않았다. ④ ㄱ에 대해 글쓴이는 사람이 오랫동안 길들인 야생 동물이라도 야생성이 사라지지 않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따라서 야생 동물을 오랫동안 길들이면 야생 동물의 야생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7 글쓴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수 공통 감염병과 야생 동물로 인한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 비교한 적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가축화되지 않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야생 동물을 지금부터 길들여 가축화하겠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 ③ 유럽 국가들도 백색 목록 제도를 통해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사육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인수 공통 감염병 중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감염병은 대부분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 동물과 사람의 접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8 연역적 논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은 '야생 동물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야생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 이 글은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야생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⑤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지 않고, 야생 동물의 고유한 습성을 지켜 주는 것이 사람과 공존하는 방법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9 반대 신문은 상대측 입론의 허점을 파악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① 사회자가 토론의 처음 부분에서 토론의 배경, 논제, 토론 유형, 토론 순서를 소개하고 있다. ② 정책 논제는 현 상황이나 정책을 변화하고자 하는 쪽인 찬성 측의 입장을 논제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③ 논증을 구성할 때는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찬성 측은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주요 개념에 대해 밝히고, 필수 쟁점들에 대해 모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 찬성 측은 로봇세를 통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찬성 측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가 심각하다.'이다. ② 찬성 측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은 '로봇세를 걷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자.'이다. ④, ⑤ 효과와 이익에 대해 찬성 측은 로봇세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21 효과와 이익에 대해 반대 측은 로봇세를 도입하여 얻게 되는 이익보다 로봇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산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는 심각하지 않고, 심지어 로봇 산업 관련 일자리가 증가한 부분도 있음을 근거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② 로봇세의 과세 대상을 규정하게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로봇세를 걷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③ 지금까지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로봇세 과세 대상 규정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④ 로봇세 도입의 효과와 이익보다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은 반대 측 입론을 듣고 입론 내용의 논리적 허점이나, 근거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아 진행한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면 로봇세를 부과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단순한 질문을 반대 신문이라 볼 수 없다. ③ 반대 신문은 질문의 형식으로 상대측 논거의 부적절함을 지적해야 한다. ④ 상대가 이미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발언 기회를 주는 질문으로, 적절한 반대 신문이라 볼 수 없다. ⑤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는 로봇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다.

23 반대 신문은 상대의 입론을 듣고 입론 내용의 논리적 허점이나, 근거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아 질문하는 형식이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발언은 반론에서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모두 끝난 후 반론의 단계로 이어진다. ③ 정책 논제를 주제로 삼은 토론은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부터 입론을 한다. ④ 토론을 듣는 청중은 양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순서를 안내해야 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다.

24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은 로봇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찬성 측은 로봇세를 걷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교육한다면 로봇을 활용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

람의 빈부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찬성 측은 산업용 로봇 증가가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⑤ 반대 측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로봇을 활용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빈부 차이의 원인을 반드시 로봇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5 반대 측이 면세자의 대부분은 단순 반복 노동 분야 종사자라고 판단한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측의 입론에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② 로봇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로봇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법 익힘북

01 음운 변동 1 _ 교체

본문 242~243쪽

01 ㄷ 02 ㄱ, ㄷ, ㅂ 03 유음화 04 예사소리 05 ㅈ, ㅊ 06 형식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없다 16 비음화, 방법 17 유음화, 역행 18 뒤 19 구개음화 20 비음화 2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22 유음화 23 실질 24 (1) [바치] (2) 구개음화 25 ② 26 ⑤ 27 ⑤ 28 ④ 29 ④

07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가 일어나도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08 유음화는 'ㄹ'의 위치에 따라 순행 동화(예 칼날[칼랄])와 역행 동화(예 신라[실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09 '난로[날:로]', '천리[철리]'는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ㅈ'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난다.(예 절도[절또])

12 '갈등[갈뜽]', '멸시[멸씨]', '발전[발쩐]'과 같이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결합되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20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21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바뀌어 [압니]가 되었다가,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여 [암니]가 된다. 따라서 '앞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22 '천리[철리], 신라[실라], 광한루[광:할루]'는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고, '물난리[물랄리]'는 '난'의 'ㄴ' 2개가 앞과 뒤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모두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2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발 + 일 → 발일[반닐]'과 같이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4 '밭이'는 실질 형태소('밭')와 형식 형태소('이')가 이어지므로 'ㅣ' 앞의 'ㅌ'이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5 '꽃을'은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꼬츨]로 발음될 뿐 음운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③ '꽃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만]이 되었다가 비음화에 따라 [꼰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ㄴ])가 일어난다. ④ '꽃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꼳받침]이 되었다가 된소리되기에 따라 [꼳빧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 / ㅂ → [ㅃ])가 일어난다. ⑤ '꽃꽂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이 [꼳]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ㅊ → [ㄷ])가 일어난다. 이후 '꽃이'의 받침 'ㅊ'이 연음되어 [꼳꼬지]로 발음된다.

26 '맑다[막따]'는 자음군 단순화(ㄺ → [ㄱ])와 된소리되기(ㄷ → [ㄸ])가 일어난다.

27 '넘기다'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삼고[삼:꼬]'와 같이 'ㅁ'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사동 접미사나 피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넘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더듬다[더듬따]'와 '신기가[신:끼가]'는 어간이 각각 'ㅁ'과 'ㄴ'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값도[갑또]'는 앞말의 받침이 'ㅂ(ㅄ)'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닭과[닥꽈]'는 앞말의 받침이 'ㄱ(ㄺ)'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28 '미닫이[미다지]'는 받침 'ㄷ'이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 'ㅣ'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홑이불[혼니불]'은 형식 형태소('홑-') 뒤에 실질 형태소('이불')가 결합한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굳히다[구치다]'는 'ㅌ(ㄷ + ㅎ)'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③ '밥솥이[밥소치]'와 '밭입니다[바침니다]'는 'ㅌ'이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맏이[마지]'는 'ㄷ'이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29 '생산량[생산냥]'은 'ㄹ'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받이[바치]: 구개음화 ② 덮개[덥개 → 덥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겉웃음[겉우슴 → 거두슴]: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 줄넘기[줄럼기 → 줄럼끼]: 유음화, 된소리되기

02 음운 변동 2 _ 탈락/첨가/축약

본문 244~245쪽

01 축약, 첨가 02 거센소리되기 03 파생어 04 ㅎ 05 탈락 06 ㅣ 07 ㅌ 08 × 09 × 10 ○ 11 × 12 ○ 13 ○ 14 초성 15 값싸다 16 두 17 _ 18 줄어든다 19 축약 20 거센소리되기 21 ㄴ 22 (1) [색년필] → [생년필] (2) 첨가 → 교체 23 (1) [바파고] (2) 거센소리되기(축약) 24 (1) ㉠, ㉣ (2) ㉡, ㉢ 25 ④ 26 ② 27 ② 28 ① 29 ⑤ 30 ③ 31 ③

06 가랑잎: [가랑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교체) → 가랑닙('ㄴ' 첨가 - 첨가)]

08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09 어간의 끝소리 자음 'ㄹ'은 몇몇 어미 앞에서만 탈락한다.

10 서른여덟: [서른녀덟('ㄴ' 첨가) → 서른녀덜(자음군 단순화)]

11 '좋아[조:아]'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만나 탈락한다. 또한 '좋고[조:코]'의 'ㅎ'은 뒤에 오는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다.

12 급행열차: [그팽열차(거센소리되기 – 축약) → 그팽녈차('ㄴ' 첨가 – 첨가)]

15 '흙까지[흑까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다. '값싸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싸다]로 발음된다. 반면 '잡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자피다]로 발음된다.

16 '흙하고[흐카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고([흙하고 → 흑하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므로([흑하고 → 흐카고])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17 '고프– + –아서 → 고파서'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난다.

18 '서– + –어서 → 서서'는 'ㅓ'가 탈락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19 '널따랗다'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널따라타]로 발음된다.

20 '좋지'는 'ㅎ'과 'ㅈ'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1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된다.

22 색연필: [색년필('ㄴ' 첨가 – 첨가) → 생년필(비음화 – 교체)]

23 '밥하고'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바파고]로 발음되는데, 이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24 (1) ㉠과 ㉣은 모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 것이다. (2) ㉡은 'ㅎ' 탈락이, ㉢은 'ㅏ'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25 '크– + –어서 → 커서'는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싫다[실타]'는 자음 축약(ㅎ + ㄷ → [ㅌ])에 해당한다. ② '놓은[노은]'은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울– + –는 → 우는'은 자음('ㄹ') 탈락에 해당한다. ⑤ '건너– + –었다 → 건넜다'는 모음('ㅓ') 탈락에 해당한다.

26 '실학'은 표기 그대로 [실학]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목화[모과] ③ 끊기다[끈키다] ④ 밥하다[바파다] ⑤ 빨갛다[빨:가타]

27 '따르– + –면서 → 따르면서'에서는 'ㅡ'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담그– + –았– + –다 → 담갔다 ③ 아프– + –아서 → 아파서 ④ 모으– + –아라 → 모아라 ⑤ 예쁘– + –어서 → 예뻐서

28 '눈요기'의 발음은 [눈뇨기]로, 'ㄴ'이 첨가되었다.

오답 해설 ② 막히면[마키면]: ㄱ + ㅎ → ㅋ – 축약(거센소리되기) ③ 물난리[물랄리]: ㄹ + ㄴ → ㄹ + ㄹ / ㄴ + ㄹ → ㄹ + ㄹ – 교체(유음화) ④ 벚나무[벋나무 → 번나무]: ㅈ → ㄷ –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ㄷ + ㄴ → ㄴ + ㄴ – 교체(비음화) ⑤ 넣어서[너어서]: 탈락('ㅎ' 탈락)

29 〈보기〉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조:아요]'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좁히다[조피다]', '그렇죠[그러쵸]', '하얗다[하:야타]'는 'ㅎ'과 'ㅂ', 'ㅈ', 'ㄷ'이 만나 각각 [ㅍ], [ㅊ],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놓는다[놑는다 → 논는다]'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되었다가 비음화에 의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이다.

30 '입학[이팍]'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축하[추카]'에서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설날[설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④ '국수[국쑤]', '역전[역쩐]'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여덟[여덜]'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31 '잃– + –어서 → 잃어서[이러서]'는 'ㅎ'이 탈락한 것으로,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놓고[노코]'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②, ④ '숱하다[숱하다 → 수타다]'와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⑤ '닫히는[다티는 → 다치는]'은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03 문장 표현 1 _ 높임 표현

본문 246~247쪽

01 주체 **02** 부사어 **03** 상대 **04** 드리다 **05** 뵙고 **06** 상대 **07** ○ **08** × **09** ○ **10** ○ **11** × **12** ○ **13** 선어말 어미 **14** 께 **15** 주체 **16** 어머니 **17** 상대 **18** 계시면 → 있으시면 **19** ㉠: 아버지, ㉡: 께, 드리다, ㉢: –어요 **20** ㉠: ⓒ, ㉡: ⓑ **21** 물어봐 → 여쭤봐 **22** ② **23** ③ **24** ④ **25** ⑤ **26** ③

08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11 '드리다', '모시다'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6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합니다.'는 '–ㅂ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17 '동생이 밥을 먹습니다.'에는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18 '궁금한 점'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보기〉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서', '–시–'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은 '께', '드리다'(㉡)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고, '어머니'에 대한 높임은 종결 표현 '–어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0 ㉠: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고('께서', '–시–')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 ⓑ는 객체(할아버지)를 높이고('께', '드리다') 상대를 낮추어('–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는 상대를 높여('–어요') 표현하였다.

21 선유의 마지막 말 중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물어보다' 대신 특수 어휘 '여쭤보다'를 사용해야 한다.

22 '교수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높여야 할 대상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23 '께'와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께서'와 '댁', '계시다'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며,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어요'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며, '-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눈을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ㅂ니다'를 사용하여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⑤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24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5 ㉤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큰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6 '잡수시다'는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고,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 높여야 할 인물(그분)과 관련된 것(성함)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② 객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여쭈다)가 사용되었으며,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댁)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다. ④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특수 어휘(모시다)가 사용되었다. ⑤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주무시다'가 사용되었다.

04 문장 표현 2 _ 시간 표현

본문 248~249쪽

01 발화시 **02** 형용사 **03** -겠- **04** 과거 **05** 추측 **06** 진행상 **07** ○ **08** × **09** ○ **10** ○ **11** × **12** × **13** 발화시, 사건시 **14** 앞서 있는, 나중인 **15** 동사 **16** 진행상 **17** 회상 **18** 완료상 **19** 알맞는 → 알맞은 **20** ⓑ **21** ㉠ **22** ㉠, ㉣ **23** ③ **24** ⑤ **25** ③ **26** ③ **27** ②

08 동사는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11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에서 '들은'은 동사 어간 '듣-'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과거를 나타낸 것이다.

12 '그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19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해야 한다.

20 ⓑ에 사용된 '-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감기에 걸림.)의 결과 상태(목이 잠겨 있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아직도')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 '소풍날',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대한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았-'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예에 해당한다. ⓒ: '-았-'은 과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에 해당한다.

21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의 '-겠-'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의 '먹어 간다', ㉣의 '사용하고 있다'에는 진행상이 드러난다.

오답 해설 ㉡의 '가 있다'와 ㉢의 '써 버렸다'에는 완료상이 드러난다.

23 '-더-'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② '-라-'는 미래를 나타낸다. ④ '-ㄹ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⑤ '-었었-'은 단절된 과거를 나타낸다.

24 '빠른'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형용사 어간 '빠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사 어간 '쓰-'에 관형사형 어미 '-던'을 붙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② 형용사 어간 '귀엽-'에 관형사형 어미 '-더-'를 붙여 과거 시제(회상)를 나타내고 있다. ③ 형용사 어간 '조용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붙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동사 어간 '바치-'에 선어말 어미 '-리-'를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25 '익어 간다'는 '-어 가다'를 사용하여 곡식이 익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오답 해설 ①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이미 소문이 퍼졌음을 나타낸 완료상이다. ②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발레 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눈발이 날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⑤ '-어 있다'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건이 완결되어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완료상이다.

26 ㉢의 '산'은 동사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고 있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진행상이다. ② ㉡의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의 '-어 버리다'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다. ⑤ ㉤은 동사 어간 '공부하-'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

27 ②는 넥타이를 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넥타이를 매는 동작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을 붙여, 형이 과거에 양치질을 하는 동작을 진행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③ '-고 있-'을 통해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안경을 벗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고 있-'을 통해 그가 연말에 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기부하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고 있-'을 통해 누나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5 문장 표현 3 _ 피동 표현/인용 표현 본문 250~251쪽

01 피동문 02 부사어 03 목적어 04 –되다 05 따옴표 06 간접 07 × 08 × 09 ○ 10 × 11 ○ 12 ○ 13 강조하기 14 라고 15 간접 16 –히– 17 어제는 18 친구가 벌에게 쏘였다. 19 소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친절하다고 하였다. 20 ㉣, ㉥ 21 ④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⑤

07 '–우–, –구–, –추–'는 사동 접미사이다.

08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10 '달였다'는 '달이– + –었– + –다'로 분석된다. 즉, 피동 접미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11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18 능동문의 목적어('친구를')를 피동문의 주어('친구가')로 바꾸고, 능동문의 주어('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벌에게')로 바꾼다. 그리고 피동 접미사 '–이–'를 활용하여 서술어를 '쏘였다'로 만든다.

19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에서 '당신은'을 '내가'로 바꾸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20 ㉣: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인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접 인용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서술어를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 아들이 어제 저에게 오늘 사무실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21 '나누어집니다'는 '나누–'에 '–어지다'를 붙이는 통사적 피동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상되어진다'는 피동을 표현하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닫혀졌는지'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함께 사용된 이중 피동이므로, '닫혔는지'나 '닫아졌는지'로 고쳐야 한다. ③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그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⑤ '말썽이 빚어지고'는 번역 투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말썽을 빚고'로 고쳐야 한다.

22 '태풍에 건물이 흔들리다.'는 건물이라는 주체가 태풍에 의해 흔들림을 당하는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당기다'는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당기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② '감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로, '감기다'는 사동 표현이다. ③ '놀리다'는 '짓궂게 굴거나 흉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의 뜻으로,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가 아니다. '놀리다'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⑤ '숙이다'의 '–이–'는 사동 접미사로, '숙이다'는 사동 표현이다.

23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② 인용 표현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구분한다. ③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은 조사 '고'이다. ④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24 ①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으로, 인용 표현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네 친구를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③ '함께 영화를 보자.'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④ "곧 새로운 사랑이 올 거야."가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⑤ '사랑한다.'가 간접 인용된 문장이다.

25 '듣다'는 '들리다(듣– + –리– + –다)'라는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칭찬이 부모님에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 해설 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② '풀이 사람들에 의해 뽑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문이 누나에 의해 세게 닫혔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⑤ '탁자 위에 있는 유리병이 그에 의해 깨졌다.'라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26 ㉠을 ㉡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제가'가 생략된다. ㉠의 목적어는 ㉡에서 주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③ '깨– + –었– + –어요'에 '–어지–'가 결합하여 '깨– + –어지– + –었– + –어요'라는 피동 표현이 된다. ④ ㉠은 주어를 통해 화분을 깬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에는 화분을 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⑤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7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주체인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인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한편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에는 '남기라고'가 들어가야 한다.

06 국어사 _ 고대 국어/중세 국어/근대 국어 본문 252~253쪽

01 한자 02 ㅇ 03 방점 04 –옴 05 가 06 모음 조화 07 × 08 ○ 09 × 10 ○ 11 × 12 ○ 13 거센소리 14 선어말 어미 15 ㅅ 16 이어 적기 17 근대 국어 18 –기 19 모음 조화 20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21 ①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⑤

07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이다.

09 중세 국어 시기에 쓰인 '–이–/–잇–'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숩–/–줍–/–숩–'이 있다.

11 근대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거듭 적기, 끊어 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19 현대 국어의 '서로'를 중세 국어에서 '서르'로 표기한 것은, '서'의 'ㅓ'가 음성 모음이므로 뒤에 오는 모음 역시 음성 모음인 'ㅡ'를 넣어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20 중세 국어에서는 '말씀미', '노미', 'ᄠᅳ들'처럼 이어 적기를 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 '사람이', '뜻을'처럼 끊어 적기를 한다.

21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부터이다.

오답 해설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ㅸ, ㅿ, ㆍ' 등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다.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방점이 있었다. ⑤ 'ᄲᅮ메'처럼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

22 된소리 계열이 나타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해당한다.

23 'ᄲᅳ- + -움 + 에 → ᄲᅮ메'는 음성 모음끼리 결합되어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몸'과 '일홈'의 'ㅗ', '하ᄂᆞᆯ'의 'ㆍ'라는 양성 모음에 '을'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⑤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비릇-'에 '-옴'이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24 ㉣은 이어 적기가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끊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25 'ㅅ'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는 'ᄊᆞᄅᆞ미니라'이다.

오답 해설 ② 'ㅂ'으로 시작하는 합용 병서, ③, ④ 각자 병서

26 '것슨'은 '것 + 은'으로, 거듭 적기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 + -은'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③ '심 + 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ᄇᆞᄅᆞᆷ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⑤ '바ᄅᆞᆯ + 애'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27 '묻ᄌᆞᆸ고'는 선어말 어미 '-ᄌᆞᆸ-'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즉, '묻ᄌᆞᆸ고'는 현대 국어처럼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 것도, 청자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한 현대 국어('효도함')와 달리 중세 국어('효도홈')에서는 명사형 어미 '-옴'을 사용하였다. ② 'ᄠᅳ디'에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ㅌㅡ')이 사용되었다. ③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한 현대 국어('성손을')와 달리 중세 국어('聖孫(성손)ᄋᆞᆯ')에서는 목적격 조사 'ᄋᆞᆯ'을 사용하였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내셨습니다')와 중세 국어('내시니이다')에서 모두 '-시-'가 사용되었다.

07 한글 맞춤법

본문 254~255쪽

01 한글 02 의사소통 03 표준어, 어법 04 원형 05 조사 06 일찍이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책이요 16 하굣길 17 주십시오 18 학생으로서 19 널따란 20 백분율 21 시들은 → 시든 22 ㉠: 꽃이, ㉡: 꽃에 23 조사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07 제5항 '다만('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깍뚜기 → 깍두기'로 고쳐야 한다.

08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의 뜻이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이므로, '맞추면 →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10 '들릴'은 용언,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3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내밀은 → 내민'으로 고쳐야 한다.

15 제15항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에 따르면 '책이요'가 맞는 표기이다.

16 제30항 '2'(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따르면 '하굿길'이 맞는 표기이다.

17 제15항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에 따르면 '주십시오'가 맞는 표기이다.

18 제57항(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에 따라 '로서'와 '로써'를 구분해 적는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생으로서'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재료나 수단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19 제21항 '2'의 '다만'(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중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르면 '널따란'이 맞는 표기이다.

20 제11항 [붙임 1]의 '다만'(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에 따르면 '백분율'이 맞는 표기이다.

21 '시들은'은 어간('시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붙인 것으로, 잘못된 표기이다. 제18항 '1'(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 따라 '시든'으로 적어야 한다.

22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꼬치]와 [꼬체]는 연음된 발음이므로, 본래의 형태는 각각 '꽃이'와 '꽃에'가 되어야 한다.

24 '안사람'은 [안싸람]으로 소리 나지만 '안사람'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에 해당한다.

25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의 밑줄 친 부분은 '놀랐던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닫혔다'는 '닫다'라는 자동사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③ '귀걸이'는 '귓불에 다는 장식품'을 이르는 말로,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표준어이다. ⑤ '절이다'는 '절다'의 사동사로, '생선이나 야채 따위를 간이 들거나 숨이 죽도록 소금기가 배어들게 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6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④ '빛'은 [빋], '옷'은 [옫], '잎'은 [입], '바깥'은 [바깓]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쓴 것이다.

27 '젓가락'은 '저'(㉠)와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반면 '숟가락'은 '술'(㉡)과 '가락'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다.

28 '늘리다, 발굴, 검정, 아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하며, '먹는다[멍는다], 북극점[북끅쩜], 밟는다[밤:는다]'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에 해당한다.

29 '무덤'의 어원은 '묻- + -엄'인데, '묻-'은 명사가 아니라 용언 어간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고랑'의 어원은 '골(명사) + -앙'이다. ③ '이파리'의 어원은 '잎(명사) + -아리'이다. ④ '바가지'의 어원은 '박(명사) + -아지'이다. ⑤ '지푸라기'의 어원은 '짚(명사) + -으라기'이다.

08 어휘 _ 고유어/한자어/외래어/전문어/사고 도구어 본문 256~257쪽

01 고유어 **02** 개념 **03** 고유어 **04** 외래어 **05** 전문어 **06** ○ **07** × **08** ○ **09** ○ **10** ○ **11** × **12** 고유어 **13** 외래어 **14** 사고 도구어 **15** 마음 **16** 외래어, 외국어 **17** 산소, 우주 **18** (1) 구름, 빨강 (2) 간식, 책 (3) 로켓, 망토 **19** 외래어, 외국어 **20** ② **21** ① **22** ③ **23** ③ **24** ④

07 바꾸어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이다.

11 '버스'는 외래어이고 '레스토랑'은 외국어이다.

17 '꽃, 흙, 하늘, 아기'는 고유어, '산소(酸素), 우주(宇宙)'는 한자어이다.

18 '구름, 빨강'은 고유어, '간식(間食), 책(冊)'은 한자어, '로켓(rocket), 망토(manteau)'는 외래어이다.

19 '피아노(piano)'는 대체할 어휘가 없으므로 외래어이지만, '게스트(guest)'는 '손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외국어이다.

20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②는 은어에 대한 설명이다.

21 '노랗다, 누렇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샛노랗다'는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며, '달다,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는 미각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말 고유어에 감각어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한 것은 맞지만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③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하나의 말이 지닌 의미의 폭이 넓은 말은 많으나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2 '고치다'라는 고유어가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 등의 한자어로 대응되는 것은 그만큼 고유어의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의 의미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답 해설 ① 고유어에 비해 다의어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고유어에 비해 동음이의어가 많거나, 반의 관계가 뚜렷하거나, 상위어가 발달되어 있는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3 〈보기〉의 의사 1과 의사 2는 '심계 항진', '안구 진탕', '연하 곤란' 등의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어는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① 전문어는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어는 세대와 관계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은 유행어이다.

24 〈보기〉의 밑줄 친 '분류', '구분'은 사고 도구어로, 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③ '분류(分類)'와 '구분(區分)'은 한자로 된 사고 도구어이다. 사고 도구어는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분류'와 '구분'은 '나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나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품사 1 _ 체언/용언

본문 258~259쪽

01 보어 02 인칭 03 순서 04 서술어, 활용 05 성질 06 보조 용언 07 × 08 ○ 09 × 10 × 11 ○ 12 ○ 13 명사, 대명사 14 명사 15 동사 16 들어온 17 형용사, 동사 18 보조 용언 19 수, 일 20 (1) 데 (2) 그, 여기 (3) 일하는 (4) 멀다 21 허름하다 22 ③ 23 ②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① 29 ③

07 '그를 잊을 리 없다.'에서 '리'는 의존 명사이다.

09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매우 뛰어나다.'에서 수사는 '셋'뿐이다. '한'은 수 관형사이다.

10 '다르듯'과 '그러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19 우리(대명사)가(조사) 할(동사) 수(명사 – 의존 명사) 없는(형용사) 일(명사)도(조사) 있다(형용사).

20 그(대명사)가(조사) 일하는(동사) 데(명사 – 의존 명사)는(조사) 여기(대명사)서(조사) 멀다(형용사).

21 나(대명사)는(조사) 허름한(형용사) 책방(명사)에서(조사) 곰팡이(명사) 슨(동사) 헌책(명사)을(조사) 뒤적이며(동사) 학창(명사) 시절(명사)을(조사) 보냈다(동사). → 형용사는 '허름하다' 하나뿐이다.

22 우리(대명사)는(조사) 시골(명사) 할머니(명사) 댁(명사)에서(조사) 즐겁게(형용사) 하루(명사)를(조사) 보냈다(동사). → 수사는 들어 있지 않다.

23 '어느'는 뒤에 오는 체언 '저녁'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나위'는 의존 명사이다. ③ '여기'는 대명사이다. ④ '그것'은 대명사이다. ⑤ '한두째'는 수사이다.

24 '마주치다'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④ '파랗다', '비슷하다', '뛰어나다', '높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25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② '잘못'은 명사이다. ③ '열'은 수사이다. ④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다. ⑤ '무엇'은 대명사이다.

26 '되고 싶었다'의 '싶다'는 소망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놀다', ②의 '인사하다', ③의 '가다', ⑤의 '오다'는 모두 실질적인 뜻을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7 '쌓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이다.

오답 해설 ①의 '놓다', ③의 '체하다', ④의 '듯싶다', ⑤의 '보다'는 모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다.

28 옛날(명사) 사진(명사)을(조사) 보니(동사) 기뻤던(형용사) 기억(명사) 하나(수사)가(조사) 떠올랐다(동사). → '옛날'은 명사이다.

29 〈보기〉의 ㉠은 의존 명사이다. ③의 '때'는 자립 명사로, '때가 되었다.'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의 '터', ②의 '지', ④의 '만큼', ⑤의 '바'는 모두 의존 명사로, 문장의 첫머리에 쓸 수 없다.

10 품사 2 _ 관계언/수식언/독립언

본문 260~261쪽

01 가 02 서술 03 명사 04 부사 05 못 06 아이고 07 × 08 ○ 09 × 10 ○ 11 ○ 12 × 13 보조사 14 보격 조사 15 관형사, 부사 16 관형사 17 오늘 18 감탄사 19 의, 은, 이다 20 (1) 가 (2) 을 (3) 에 21 보격 조사 22 ㉠: 수사, ㉡: 관형사, ㉢: 명사 23 ㉠, ㉡ 24 ㉠: 명사, ㉡: 부사 25 ㉠: 감탄사, ㉡: 관형사 26 (1) ㉡, ㉣ (2) ㉠, ㉢ 27 ⑤ 28 ④ 29 ② 30 ②

07 같은 조사끼리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사는 다른 조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

09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12 '민수야'는 '명사 + 호격 조사' 형태의 독립어이지만, 감탄사는 아니다.

19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 '은'은 보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20 '아이가'의 '가'는 주격 조사, '의자에'의 '에'는 부사격 조사, '책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21 '되다', '아니다'가 쓰인 문장에서 주어에 붙은 '이/가'를 제외하고 다른 체언에 붙은 '이/가'는 보격 조사이다.

22 ㉠은 자식이 세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수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체언 '살'(의존 명사)을 수식하므로 수 관형사이다. ㉢은 '순서가 가장 먼저인 차례'가 아니라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맏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23 ㉠은 뒤에 오는 '말'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므로, 둘 다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은 '일처리'를 수식하지만, '빠르고', '빠르니'와 같이 활용하는 형용사이다.

24 ㉠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이다. 그리고 ㉡은 뒤에 오는 용언 '먹어서'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5 ㉠은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그리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 '상황'을 수식한다.

26 '이'(㉡)는 체언 '사과'를, '그'(㉣)는 체언 '연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또한 '이리'(㉠)는 용언 '오다'를, '그리'(㉢)는 용언 '보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7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②~④ '에', '랑', '이며'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28 '과연'은 부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첫', ②의 '무슨', ③의 '아무', ⑤의 '온갖'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29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의 '모름지기', ③의 '일찍이', ④의 '같이', ⑤의 '살랑살랑'은 모두 부사이다.

30 ㉡과 ㉢은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명사가 독립어로 쓰인 것이다. ㉣ 화제를 전환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11 문장 성분 _ 주성분/부속 성분/독립 성분

본문 262~263쪽

01 보어 **02** 점수를 **03** 이상한, 마을로 **04** 물정에 **05** 독립어 **06** ○ **07** × **08** ○ **09** ○ **10** × **11** 주어 **12** 예쁘다 **13** 정보의 **14** 공원에서 **15** 부사어 **16** 나는, 동창생을, 만났다 **17** 보니, 우울하다 **18** ㉠: 주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19** 관형어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④ **26** ②

07 주어는 '그는'이고, '귀감이'는 보어이다.

10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16 '나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에서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동창생을', 서술어는 '만났다'로, 이들이 주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제', '길에서', '우연히'는 부사어, '초등학교'는 관형어이다.

17 '어두운 하늘을 보다.(보니) + 괜히 기분마저 우울하다.'의 형태이므로, 서술어는 '보니'와 '우울하다'의 2개이다.

18 '어머니께서'는 주어, '형에게'는 필수적 부사어, '용돈을'은 목적어, '주셨다'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19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은 관형어이다.

20 그들은(주어) 어린(관형어) 소년에게(필수적 부사어) 중요한(관형어) 임무를(목적어) 맡겼다(서술어). →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21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에서 주어는 '고래는'이고, '어류가'는 보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너만'과 '나도'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④ '아버지께서'는 '체언 + 주격 조사의 높임말(께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⑤ '학교에서'는 '체언 + 주어가 단체일 때 쓰이는 주격 조사(에서)'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22 '동생도 이제 나만큼 컸다.'에서 '나만큼'은 부사어이다. 목적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주스나'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마시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② '얘기'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의 목적어로, '듣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③ '야구는'은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좋아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⑤ '밥만이라도'는 '체언 + 보조사 + 보조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로, '먹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23 '연신'은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④ 형용사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쓰였다.

24 '친구마저'는 '체언 + 보조사'로 이루어진 주어이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으로'는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② '조용히'는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④ '그래서'는 접속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⑤ '어지럽게'는 '용언의 어간 + 부사형 어미'로 이루어진 부사어이다.

25 ㉠야호(독립어 – 독립 성분)! ㉡우리가(주어 – 주성분) ㉢드디어(부사어 – 부속 성분) ㉣힘든(관형어 – 부속 성분) ㉤관문을(목적어 – 주성분) ㉥통과했어(서술어 – 주성분). →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 ㉤, ㉥이고,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인 ㉢, ㉣이며, 독립 성분은 독립어인 ㉠이다.

26 '아'는 독립어(감탄사)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세월의'는 관형어, '이토록'은 부사어, '빠른'은 관형어로, 부속 성분은 모두 3개이다.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고,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므로, 둘 다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세월의 흐름은 빠른 것인가!'). ④ ㉡은 뒤에 오는 체언 '흐름'을, ㉣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수식하고 있다. ⑤ ㉡은 체언 '세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으며, ㉥은 체언 '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형('인가')으로 결합되어 있다.

Memo